

국립국어원 2011-01-1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333-01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연구 책임자

임 영 철(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주관 연구 기관 중앙대학교

연구진	성명 (소 속)
연구 책임자	임영철(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교수)
연구원	이길용(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부교수)
	이찬규(중앙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구 보조원	곽은심(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김종완(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보조원	이민선(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석사과정)
	권은희(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석사과정)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국외 동포의 사회생활 환경 및 의식 구조, 그리고 언어 사용 실태 및 그 실태의 배경이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국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보급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 및 의의,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의 배경에 대한 이론적 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민족지적 관점에서 국외 동포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 하에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오늘날 그들의 현상(現狀)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어 사용 실태 및 한국어 교육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국가와 조사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정확한 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 방법론, 그리고 조사 항목과 자료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 논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일본 오사카와 도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이민 시기 및 이민 세대별 언어 사용, 발화 상황 및 발화 상대별 언어 사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세대의 언어 선택 결정 요인, 중간 언어의 사용 양상의 등 언어 사용 실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시범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조사 방법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른 지역의 국외 동포 사회로 조사를 확대·발전시킬 때에 각 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명하기 위해서이다.

제5장에서는 국외 동포에 대한 민족지적 조사 결과 및 한국어 사용 실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 시범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5년간 실시될 중장기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장기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는 계속 조사를 위해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외국의 사례 연구로서 다른 나라의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언어생활을 어떻게 조사 연구하였는가. 그 방법론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본에서 브라질 거주 일본계인(외국에 이주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일본인과 그 자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끝으로 면접 조사표와 지침서 그리고 심층 면접 조사표와 지침서를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to understand the overseas Koreans' social life environment, their mindset, present status of the use of language in daily life and factors in the present status, and to prepare a cornerstone of the edu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for overseas Koreans. The research contents are summed up as follows:

In Chapter 1, this study examined the research purpose and significance, necessity of the research, and theoretical frame of the research background for overseas Korean people's language use in daily life.

In Chapter 2, this study examined through what period background and what historical process the overseas Koreans have formed and how their present situation is going today through literature review. In addition, this study looked into the actual condition of their use of the Korean language and its education.

In Chapter 3, this study,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actual situation of overseas Koreans' language use in daily life, discussed the research methodology on how to select the research country and research district and which research method could make it possible to collect and analyzed accurate data, and also discussed the research items and data analysis method.

In Chapter 4, as a preliminary study for grasping the actual condition of overseas Koreans' language use in daily life, this study conducted an interview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survey of the Korean residents who were living in Osaka and the surrounding area of Tokyo. This surve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understand the use of language according to the overseas Koreans' immigration time & generations, and the use of language according to a speech situation and a speech counterpart, etc. On the basis of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made an overall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of the language use, such as the determinant of the language choice of the new and old generation, and using aspects of the interlanguage with the aim of looking deeper into the universality and uniqueness of each district when this survey is expanded and developed into even the scope of the overseas Koreans's society in other districts by improving various problems in research methods revealed in the model survey.

In Chapter 5, this study established the medium and long term survey plan to be carried out with focus on China,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the US, Brazil and Japan for the following 5 years [2012~2016]on the basis of the model survey experience and survey results in the actual circumstances of shortage in the preliminary data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overseas Korean people's language use in daily life and their mindset. The data obtained from the medium and long term survey will be very useful preliminary data for the continuous study.

In Chapter 6, in order to examine the methodology, this study looked into the actual condition survey conduc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argeting the people who were living in Brazil and whose root are Japanese(Japanese people and their descendants who acquired the proper nationality after emigrating to Brazil).

In closing, this study attached the interview questionnaire, its guidebook,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and its guidebook as an appendix.

〈목 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1
2.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의 의의	2
3.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의 필요성	3
3.1. 현황과 문제점	4
3.2. 추진 방향과 내용	4
4. 국외 동포의 언어 실태에 대한 연구 배경	5
4.1. 사회적 이유	6
4.2. 언어적 이유	6

제2장 국외 동포 사회의 민족지적 고찰

1. 국외 동포 사회 거주 형성사	9
1.1. 중국 지역 동포 거주 형성사	10
1.2. 독립국가연합 지역 동포 거주 형성사	12
1.3. 미국 지역 동포 거주 형성사	14
1.4. 브라질 지역 동포 거주 형성사	16
1.5. 일본 지역 동포 거주 형성사	17
1.5.1. 연대별 이주 변천사	17
1.5.2. 재일 한국인의 인구 변화	19
1.5.3. 재일 한국인의 지역적 분포	21
2. 국외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및 한국어 교육 실태	22
2.1. 중국 지역의 한국어 사용 및 교육 실태	22
2.2.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한국어 사용 및 교육 실태	26
2.3. 미국 지역의 한국어 사용 및 교육 실태	30
2.4. 브라질 지역의 한국어 사용 및 교육 실태	32
2.5. 일본 지역의 한국어 사용 및 교육 실태	35
3. 국외 동포 구성 및 거주국의 정책 비교	38

제3장 조사 방법론

1. 조사 지역	42
1.1. 조사 지역 선정 기준	42
1.2.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	43
2. 조사 대상자의 선정	45
2.1. 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	45
2.2. 조사 대상자 수	45
3. 조사 방법	46
3.1. 면접 조사	47
3.1.1. 면접 조사 방법	47
3.1.2. 면접 조사 시 주의 사항	48
3.1.3. 면접 조사 항목	51
3.2. 심층 면접 조사	66
3.2.1. 심층 면접 조사 방법	67
3.2.2. 심층 면접 조사표 및 주의 사항	68
3.2.3. 심층 면접 조사 항목	71
4. 분석 방법	75
4.1. 면접 조사 분석 방법	75
4.1.1. 단순 분석	75
4.1.2. 교차 분석	76
4.2. 심층 면접 조사 분석 방법	79
4.2.1. 한국어 사용 실태 분석	79
4.2.2. 한국어 유지 및 변종 수집	79

제4장 재일 한국인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1. 면접 조사	80
1.1. 조사 지역	80
1.2. 조사 대상자	80
1.3. 조사 방법	81
1.3.1. 현지 조사원(key person)의 도입	81

1.3.2. 사용 언어	82
1.3.3. 조사 시간	82
1.4. 조사 항목	82
1.5. 조사 결과	84
1.5.1 한국어 사용 의식	84
1.5.2. 한국어 사용 실태	89
1.5.3. 한국어 교육에 관한 의식	97
2. 심층 면접 조사	104
2.1. 조사 개요	104
2.2. 한국어 사용 실태와 중간언어의 양상	105
2.2.1. 구이민 1세의 한국어 사용 실태와 중간언어	105
2.2.2. 구이민 2세의 한국어 사용 실태와 중간언어	107
2.2.3. 구이민 3세의 한국어 사용 실태와 중간언어	108
2.2.4. 신이민 1세의 한국어 사용 실태와 중간언어	109
2.3. 시범 조사의 성과 및 문제점	110
2.3.1. 시범 조사의 성과	110
2.3.2. 시범 조사의 문제점	110
2.3.3. 24시간 조사	112

제5장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중장기 조사 계획

1. 연도별 조사 계획	113
1.1. 2012년 중국 조사	114
1.1.1. 조사 운영·조직	114
1.1.2. 조사 지역	114
1.1.3. 조사 대상자	115
1.1.4. 조사 일정	115
1.1.5. 연구 용역 산출 내역서	116
1.2. 2013년 독립국가연합 조사	120
1.2.1. 조사 운영·조직	120
1.2.2. 조사 지역	120

1.2.3. 조사 대상자	121
1.2.4. 조사 일정	121
1.2.5. 연구 용역 산출 내역서	122
1.3. 2014년 미국 조사	125
1.3.1 조사 운영·조직	125
1.3.2. 조사 지역	125
1.3.3. 조사 대상자	126
1.3.4. 조사 일정	127
1.3.5. 연구 용역 산출 내역서	127
1.4. 2015년 브라질 조사	131
1.4.1. 조사 운영·조직	131
1.4.2. 조사 지역	131
1.4.3. 조사 대상자	132
1.4.4. 조사 일정	132
1.4.5. 연구 용역 산출 내역서	133
1.5. 2016년 일본 조사	134
1.5.1. 조사 운영·조직	134
1.5.2. 조사 지역	134
1.5.3. 조사 대상자	135
1.5.4. 조사 일정	136
1.5.5. 연구 용역 산출 내역서	136

제6장 외국의 사례

1.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언어 실태 조사	142
1.1. 연구의 목적 및 한계	145
1.2.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특징	149
1.3. 조사 지역 선정 및 특징	153
1.3.1. 조사 지역 선정 이유	153
1.3.2. 조사 지역의 민족지적·역사적 배경	157
1.4. 연구 방법론 개발	160

1.4.1. 언어생활 조사	160
1.4.2. 언어 사용 실태 조사	167
1.5. 언어 실태 조사의 개요	174
1.5.1. 기초 사회 조사	174
1.5.2. 언어생활 조사	176
1.5.3. 언어 사용 실태 조사	177
1.6. 언어 실태 조사의 결과 소개	181
1.6.1. 기초 사회 조사 결과	181
1.6.2. 언어생활 조사 결과	185
1.6.3.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192

<부 록>

면접 조사표	205
面接 調査票	214
면접 조사 지침서	223
심층 면접 조사표	234
심층 면접 조사 지침서	236

〈표 목차〉

제2장 국외 동포 사회의 민족지적 고찰

표1 국외 동포 현황	9
표2 주요 연해 지역 조선족의 인구 이동 추이	12
표3 최근 10년간의 일본인으로서의 귀화자 수 추이	20
표4 중국 내 한국학교 학생 현황	25
표5 구소련 지역 한국교육원 현황	29
표6 구소련 지역 재외 한국인 학교 현황	29
표7 브라질 한글학교 현황	34
표8 국외 동포의 구성 및 거주국의 정책 현황	40

제3장 조사 방법론

표1 국외 동포 현황	43
표2 조사 국가 및 조사 지역	44
표3 조사 지역 국외 동포 수에 따른 조사 대상 인원의 산정	46
표4 ‘모어 전승 의식’의 단순 집계표	75
표5 세대별×직업별×지역별 교차 분석의 예	77
표6 모어 전승 의식과 사회언어학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78

제4장 제일 한국인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표1 조사 대상자의 기본 속성	81
표2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	86
표3 통명 사용 의식	87
표4 스포츠 응원	88
표5 차세대 동포의 결혼관	88
표6 한국어 학습 경험 및 교육 기관	98
표7 한국어 학습 기간	99
표8 한국어 학습 동기	100

표9 한국어 학습의 힘들었던 점	101
표10 한국어를 배우고 난 후에 달라진 점	102
표11 24시간 조사 스케줄	112

제5장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중장기 조사 계획

표1 연차별 추진 계획표	113
표2 중국 지역 국외 동포 현황	114
표3 중국 지역 조사 대상 인원	115
표4 중국 지역 조사 일정	116
표5 독립국가연합 지역 국외 동포 현황	120
표6 독립국가연합 조사 대상 인원	121
표7 독립국가연합 조사 일정	121
표8 미국 지역 국외 동포 현황	126
표9 미국 지역 조사 대상 인원	126
표10 미국 지역 조사 일정	127
표11 브라질 지역 국외 동포 현황	131
표12 브라질 지역 조사 대상 인원	132
표13 브라질 지역 조사 일정	132
표14 일본 지역 국외 동포 현황	135
표15 일본 지역 조사 대상 인원	135
표16 일본 지역 조사 일정	136

제6장 외국의 사례

표1 브라질로의 일본 이민 입국자 수(1908~1963)	150
표2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 조사지 개요	153
표3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과 아리안사 이주지의 15세 이상 세대별 인구 구성	161
표4 추출된 세대별 표본 수	162
표5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언어생활 조사 표본의 연령 구성	162
표6 아리안사 이주지의 언어생활 조사 표본의 연령 구성	163
표7 언어생활 조사표의 구성 설문 항목 (대분류) 및 대상자	164

표8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 항목 (대분류)	175
표9 조사지별 조사표 총수	175
표10 언어생활 조사 실시의 세대별 · 조사지별 인원	176
표11 담화 수록 대상자와 조건: 아리안사 이주지	177
표12 담화 수록 대상자와 조건: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178
표13 현지 조사원(key person)의 상세 정보: 아리안사 이주지	179
표14 현지 조사원(key person)의 상세 정보: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180
표15 가정 내 사용 언어 -부모와 자식 사이(세대주와 자녀)-	181
표16 가정 내 사용 언어 -부부 간(세대주 부부) -	182
표17 가정 내 사용 언어 -아이 간 (세대주의 아이)-	182
표18 정기 구독물 -신문-	182
표19 정기 구독물 -잡지-	183
표20 일본계 미디어 -NHK-	183
표21 일본계 미디어 -일본계 라디오-	183
표22 일본어 능력 의식 -읽기 · 쓰기-	184
표23 일본어 능력 의식 -말하기 · 듣기-	184
표24 일본어 학교 통학 경험별 인구	184
표25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언어생활 조사 대상자의 세대별 · 연령별 인원 수(%)	186
표26 아리안사 이주지의 언어생활 조사 대상자의 세대별 · 연령별 인원 수(%)	186
표27 언어생활 조사 대상자의 세대 간 개인 속성 차이	187

〈그림 목차〉

제2장 국외 동포 사회의 민족지적 고찰

그림1 중국 조선족자치주 길거리의 언어 경관	23
그림2 독립국가연합의 도로 표지판에 나타난 언어 경관	27
그림3 미국 코리아타운의 언어 경관	31
그림4 브라질 코리아타운의 언어 경관	33
그림5 일본 오사카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의 언어 경관	36

제3장 조사 방법론

그림1 조사 국가 및 조사 지역	44
그림2 면접 조사의 한 장면	51

제4장 제일 한국인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그림1 한국어 지향 의식(세대별)	85
그림2 한국어 ‘말하기’ 능력(세대별)	90
그림3 한국어 ‘듣기’ 능력(세대별)	90
그림4 한국어 ‘읽기’ 능력(세대별)	91
그림5 한국어 ‘쓰기’ 능력(세대별)	92
그림6 가족 간 사용 언어(조사 대상자→가족) (세대별)	93
그림7 가족 간 사용 언어(가족→조사 대상자) (세대별)	94
그림8 동포와의 사용 언어(세대별)	95
그림9 내적 언어의 사용현황(세대별)	97
그림10 한국어 교육 시의 중요항목	103
그림11 일본의 한국어 교실 안내 포스터	104

제6장 외국의 사례

그림1 콜로니아어의 모델	194
그림2 일본어 운용 능력과 4기능	194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2010년 12월 현재, 외교통상부의 ‘재외 동포 현황’에 의하면 전 세계에 거주하는 국외 동포는 7,268,771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생활이나 의식 구조 또는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에 대한 연구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에게 언어란 의사소통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거주국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거주국의 언어를 습득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사정이나 이유 등에 의해서 고국을 떠나 국외에 거주하지만, 한국인 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모어인 한국어를 유지하고 습득하여, 후대에 전승하려는 국외 동포도 많다. 따라서 국외 동포의 언어(한국어와 거주국의 언어) 능력과 한국어의 지향 의식이나 전승 의식 그리고 한국 문화의 유지 등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실태의 배경이 되는 요인을 구명(究明)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계획하였다.

- 1) 국외 동포의 사회생활 환경 및 의식 구조, 그리고 언어 사용 실태 및 그 실태의 배경이 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 2) 국외 동포 사회에서 발생한 한국어 변종을 사회언어학적인 방법을 원용하여 국가별, 지역별, 세대별, 성별, 학력별, 직업별 등 사회적 변인에 따른 기초 자료를 수집·구축한다.
- 3) 내국인과 국외 동포 간 그리고 국외 동포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후 5년에 걸쳐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국외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다.

첫째 민족지적 관점에서 국외 동포가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오늘날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어 사용 실태 및 한국어 교육 실태도 아울러 살펴본다.

둘째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국가와 조사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조사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정확한 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있을가에 대한 조사 방법론, 그리고 조사 항목과 자료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셋째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일본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시범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른 국외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시켜 나아갈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국외 동포에 대한 민족지적 조사 결과 및 한국어 사용 실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 시범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5년간 실시될 중장기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중장기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는 계속 조사를 위해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¹⁾

다섯째 외국의 사례 연구로서 일본에서 브라질 거주 일본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 실태 조사에 대해서 개관하였다.

2.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의 의의

본 연구를 토대로 실시될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닐 것이다.

첫째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국외 동포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의 의식 구조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변인을 결정

1) 일본에서는 쓰루오카(鶴岡)지역의 공동어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20년 간격으로 3차(1950년, 1970년, 1990년)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분석 보고한바 있다.

하는 요인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국외 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국외 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의 입장에서조차 자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의식 및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한국인에 대한 언어 정책은 물론 언어 교육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이와 같은 대규모 비교 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는 이후 연구와 계속 조사를 위해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국외 동포의 언어 실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인 연구자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국가 기관의 주도 하에 보다 체계적으로 그들의 실태를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3.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의 필요성

최근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 그리고 고학력화라는 사회적인 기반 변화로 인하여 외국인의 거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7년 7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시행되어, 우리 사회에서도 법률에 의해 이주 외국인의 권리가 보호를 받게 되었다. 또한 2011년 1월에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을 우수인재로 분류하여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등 한국의 발전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단지 국제화 사회로의 바람직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이민 국가가 아니고 민족 국가라는 점,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크다는 점, 혈통적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점 등 한국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의 정체적 동질성을 유지·전승하고 있는 국외 동포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인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이후 5년간에 걸쳐서 실시될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를 위한 확실한 기초 구축을 위해 깊이 있는 연구를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3.1. 현황과 문제점

1900년대 초반에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 미국 등으로 이주한 재외 동포는 이미 3~4세대를 거치면서 거주국의 문화에 동화되어, 거주국의 언어를 모어로 습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주 1~2세대가 사망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습득하는 국외 동포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처럼 한국어는 ‘외국어’로서의 사용 범위와 세력은 점점 증가하여 안정적 위치를 잡아 가고 있는 반면, ‘민족어’로서의 입지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또한 국외 동포 수가 7,268,771명(외교통상부 ‘재외 동포 현황’ 2011년 자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외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된 적이 없다. 이에 국외 동포에게 한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가지는 의식 또는 태도 등을 파악하고, 후속 세대인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 의사 여부와 한국어 전승의 동기 등을 파악하는 조사가 요구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한국어 보급을 위해서는 국외 동포의 사회적 변인(거주 국가, 이주 세대, 이주 시기, 이주 이유,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른 한국어 사용 환경과 한국어 능력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 역사가 100여 년이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변인에 의해 국외 동포의 거주국 언어와 한국어가 혼용되는 중간 언어가 발달함과 동시에 한국어 변종이 생겨나 표준 한국어와는 언어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내국인과 국외 동포 간 그리고 지역이 서로 다른 국외 동포 간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국외 동포가 이주 전에 사용하는 고어를 현재까지 유지함으로써 표준 한국어와 차이가 발생하여,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심화되었다. 이처럼 국외 동포 사회에서 생겨난 한국어 변종으로 인해 유발되는 한국어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2. 추진 방향과 내용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 추진 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주 역사가 길어서 구이민과 신이민이 존재하고, 동포 수가 많아서 사회적

변인을 모두 갖추고 있는 중국, 독립국가연합, 미국, 브라질, 일본 등을 거점으로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 국가별, 세대별로 국외 동포가 습득한 언어의 실태 조사. 한국어와 거주국의 언어 중 모어로 습득한 언어에 대한 조사와 한국어를 포함한 이중 언어 사용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 국외 동포가 한국어에 대해 갖는 태도 및 후속 세대의 한국어 교육 의사 여부를 조사한다.
 - 다양한 사회적 변인(이주 지역, 이주 세대, 이주 시기, 이주 이유,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른 국외 동포의 한국어 사용 환경 및 한국어 능력을 조사한다.
- (2) 국외 동포 사이에서 발생한 한국어 변종 조사 및 자료를 구축한다.
- 국가별로 표준 한국어와 차이를 보이는 한국어 변종을 자료로 구축한다.
 - 국외 동포 간에 세대별로 발생하는 언어적 차이를 자료로 구축한다.
- (3) 한민족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국외 동포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국가별, 세대별 비교 자료를 구축한다.
- (4) 국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포함한 이중언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정책을 제언한다.

4. 국외 동포의 언어 실태에 대한 연구 배경

소수이민집단(minority)의 언어 문제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던 서구와는 달리 한국인 이민 사회(communitiy)의 언어 문제가 연구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재일한국·조선인의 언어에 관하여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이며(生越 1982, 任榮哲 1989 등) 다른 나라의 한국인 이민 사회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후(박경래 2002, 이길용 외 2009 등)에 조금씩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4.1. 사회적 이유

한국 사회가 국제화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국외 동포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된 점이다. 국외 동포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민족 국가라는 점,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이 크다는 점, 혈통적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문화적 동일성을 파악하는 척도로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국외 동포의 한국어 보존 및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외 동포 사회의 동질성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어 보급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다.

4.2. 언어적 이유

세계적으로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언어 접촉 연구의 일부로서, 국외 동포 사회의 한국어 사용 의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접촉했을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변화로서 Winford(2003:11~24)는, ‘언어 유지’, ‘언어 교체’, ‘접촉 언어의 형성’의 세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3개의 패턴 중 어느 것이 선택되느냐는 사회 상황과 대화 상대의 의식, 또 거주 지역의 언어 정책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국외 동포 사회의 언어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언어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다음에서는 국외 동포 사회의 언어적 특징과 한국어의 보존 및 소멸에 관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이론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1) 국외 동포 사회에서의 한국어의 자리 매김

먼저 국외 동포 사회의 한국어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하여는 Ferguson(1959)과 Fishman(1967)의 양층 언어(Diglossia)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Ferguson(1959)은 하나의 언어 공동체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서로 다른 사

회적 기능과 상황에 할당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동일한 사회에서 사용되는 한 언어의 상위 변이어(High variety)와 하위 변이어(Low variety)가 존재한다고 하는 양층 언어(Diglossia)를 제창하였다.

Ferguson(1959)이 양층 언어란 개념을 제안할 때, 그는 다음의 두 가지를 엄격히 한정하였다.

- (a) 상위어와 하위어의 관계가 별개 언어가 아니라 한 언어의 변종의 관계이며 동시에 일반적인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가 아닐 것.
- (b) 그 대립을 일으키는 언어가 두 개일 것.

그런데 Fishman(1967)은 이러한 엄격한 제한을 완화하여 상위어와 하위어의 관계가 별개 언어일 때에도 이 용어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어떤 언어 공동체 안에서 두 언어가 상위어와 하위어와 같이 대립적인 기능을 하면 그 두 언어의 관계가 별개 언어이든, 동일 언어의 변종이든, 또는 그 이하의 어떤 관계이든 거기에 어떤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더 나아가 Fasold(1984)는 일반적인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관계’, ‘한 방언 안에서의 격식 말투와 비격식 말투의 병존 현상’에도 이 개념을 적용시키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Fishman(1967)이 말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양층 언어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럼으로써 국외 동포의 한국어 사용 의식 및 사용 요구가 거주국의 언어 정책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 보존의 조건 및 언어 선택 요인

다음으로, 언어 보존의 조건에 대하여 Holmes(1992)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들고 있다.

- (1) 밀집하여 살면서 자주 접촉하면서 생활하는 경우 (뉴질랜드 Wellington의 회랍인 구역, 미국의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의 경우 언어 보존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
- (2) 모국과의 접촉이 빈번한 경우. 모국에서 새 이민들이 계속 합류하고, 또 모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잦으면 그만큼 언어 보존이 잘 될 것.

- (3) 소수족의 언어 보존에 교회 및 학교가 담당하는 몫 또한 큼. (캐나다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들 고유 언어를 잘 보존하는 것은 캐나다가 이들 지역의 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언어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재미 한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주관이 되어 한글학교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보존에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독립국가연합, 브라질 모두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글학교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집주도(集住度)’ 및 ‘교육’이 언어 보존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참조해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국외 동포 사회의 언어 선택에 있어서 ‘영역(Domain)’과 ‘대화 상대’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Fishman(1971)의 ‘영역(Domain)’이란, 한 사회의 제도 및 한 언어 공동체의 활동 영역과 부합하여 의사소통의 화제, 화자 사이의 관계 및 의사소통의 현장 등에서 추출되는 일종의 사회문화적 구성 개념이다. 영역(Domain)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1) 일반적인 화제(Topic)의 영역(종교, 가족, 직업), (2) 참여자(Participant) 간의 역할 관계(성직자와 교구민, 엄마와 딸, 사장과 비서), (3) 상호작용의 배경(Settings)(교회, 가정, 사무실)이다. ‘대화 상대’는 거주 지역 및 민족성 여부, 외부와의 접촉도(이민족 친구의 많고 적음) 등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국외 동포 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어의 자리매김과 한국어 보존의 조건 및 언어 선택 요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및 언어 선택 요인에 관하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언어 수록 조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언어 사용 실태 조사는 가정 내 사용 언어, 학교 교육 및 사용 언어, 민족의 이민 사회 참가 및 사용 언어, 지역 사회에서의 사용 언어, 한국과의 관계에서 사용 언어 등에 관한 의식 조사이고, 언어 수록 조사는 중간언어 사용 양상의 파악을 위한 것으로 In-group과의 회화 및 Out-group과의 대담을 수록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제2장 국외 동포 사회의 민족지적 고찰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은 이민 시기, 이민 세대, 이민 사유, 해당 거주국의 언어 정책 등과 같은 사회·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리고 해당 거주국의 사회·정치적인 상황은 한국어의 사용 의식이나 한국어 교육 정책 수립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외 동포 사회의 이민 시기 및 이민 사유에 따른 이민 사회 형성을 중심으로 한 거주 형성사, 그리고 국외 동포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연구 배경 등에 대해서 개략하기로 한다.

1. 국외 동포 사회 거주 형성사

표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011년 7월 현재, 전 세계에 거주하는 국외 동포는 7,268,771명에 달한다. 국외 동포의 숫자는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아주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 캐나다, 중남미 등의 미주 지역, 독립 국가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구주 지역,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순이다. 이하 각각의 국외 동포 사회 거주 형성사에 대해서 개괄한다.

표1 국외 동포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05	2007	2009	2011	백분율 (%)	전년비 증감율 (%)
아주 지역	3,590,411	4,040,376	3,710,553	4,063,220	55.90	9.50
일본	901,284 (284,840)	893,740 ①(296,168)	912,655 ②(320,657)	904,806 ④(326,671)	12.45	-0.86
중국	2,439,395	2,762,160	2,336,771 ③(1,923,329)	2,704,994	37.21	15.76
기타	249,732	384,476	461,127	453,420	6.24	-1.67

연도별 지역별	2005	2007	2009	2011	백분율 (%)	전년비 증감율 (%)
미주 지역	2,392,828	2,341,163	2,432,634	2,521,470	34.69	3.52
미국	2,087,496	2,016,911	2,102,283	2,176,998	29.95	3.55
캐나다	198,170	216,628	223,322	231,492	3.18	3.66
중남미	107,162	107,624	107,029	112,980	1.55	5.56
구주 지역	640,276	645,252	655,843	656,707	9.03	0.13
독립국가연합	532,697	533,976	537,889	535,679	7.37	-0.41
유럽	107,579	111,276	117,954	121,028	1.67	2.60
중동 지역	6,923	9,440	13,999	16,302	0.22	16.45
아프리카 지역	7,900	8,485	9,577	11,072	0.15	15.61
총계	6,638,338	7,044,716	6,822,606	7,268,771	100	6.54

출처: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재외동포과 (2011년 7월 기준)

- ① 1952~2005년간 재일 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 ② 1952~2008년간 재일 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 ③ 2000년도 중국 전국인구조사상의 조선족(중국 국적) 총수
- ④ 1952~2010년간 재일 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1.1. 중국 지역 동포 거주 형성사

1) 이주 전사

중국 지역 동포의 이주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5기로 분류할 수 있다.

제1기는 1620~1670년으로 1626년의 정묘호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으로 인해 수만 명의 한국인이 한국 서부 지역에서 중국의 요동 지역 일대로 강제로 끌려간 시기이다. 제2기는 1670~1885년으로 불법으로 월강하는 시기로서 한국의 거둬되는 수재, 한재, 충재, 흥년으로 관리까지 월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제3기는 1885~1910년으로 청나라로의 귀화를 강요당한 시기로서 귀화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를 몰수당한 시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만주족과 한국인 지주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작인으로 전락했으며 많은 동포들이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제4기는 1910~1931년으로 자유이민 시기이다. 5기인 1945년 해방 이후에는 한반도로 귀환이 이루어졌으며, 1949년에는 연변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이어서 1952년 9월 3일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건설되었다.

2) 민족 이동기

중국 옌벤 조선족 동포 사회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두 갈래로 나뉘어 민족 대이동을 시작한다. 한 갈래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 힘입어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중국 내 지역으로의 이동이며, 다른 한 갈래는 한중수교에 따른 한국으로의 이동이다.²⁾

먼저 중국 내 이동은 농촌의 조선족 집거지역에서 동북 지방의 옌벤(延邊), 선양(瀋陽), 창춘(長春), 하얼빈(哈爾濱), 지린(吉林), 다롄(大連) 등 중국 내 대도시로의 이동이다. 이 시기의 이주자들은 상당수가 농민들이다. 1980년대 말에는 만리장성 동쪽의 첫 관문인 산하이관(山海關)을 넘어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산둥(山東), 장쑤(江蘇), 광둥(廣東) 등 연해 도시로 대거 이동하게 된다. 이 시기에 대도시로 이주한 동포들은 대부분 경제 활동이 왕성한 고학력자의 청년층과 여성의 진출이 많았다. 여성들의 진출이 많은 이유는 남성들에 비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며 대도시에서 한국 기업이 설립한 노동 집약적인 기업에서 생산직, 통역 및 관광 안내원, 한국 음식점과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족 대이동은 옌벤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족의 집거 지역인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랴오닝성(遼寧省)에서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개혁 개방 이전의 옌벤,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베이징 등지에서만 볼 수 있었던 동포 사회가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다롄(大連), 텐진(天津), 선전(深圳) 등 연해 지역에도 생겨났다.³⁾ 특히 2000년대 초반에 급속히 성장한 베이징의 왕징(望京) 지역은 조선족 인구 이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현재 왕징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1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조사에 의하면 왕징 지역에는 약 3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족과 5~6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

표2를 통해서 조선족의 도시 이주가 2000년대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2) 한국 법무부의 통계(2005)에 의하면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이 14만 5천명에 달하는데 반수 이상이 옌벤 조선족이다. 참고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는 2009년 38만 2천명까지 늘었다가 최근 2년간 감소추세를 보여 2011년 현재는 28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법무부 통계 기준)

3) 강은국(2009), 「중국 상하이 지역 동포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4) 예동근(2009), 「글로벌시대 중국의 체제 전환 과정하의 종족 공동체의 형성 -북경 왕징(望京)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인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리아타운을 형성한 것, 그리고 한국 등 국외에서 자본을 축적하여 대도시로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의 1/4가량이 중국 내 연해 도시로, 그리고 같은 숫자의 조선족이 국외로 이주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국내 연해 도시로 재이주하여, 연해 지역의 코리아타운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한중 간 인적 교류는 연간 13만 명에 불과했는데 2000년 이후 양국의 인적 교류는 482만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후 매년 1만 명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⁵⁾

표2 주요 연해 지역 조선족의 인구 이동 추이

(단위: 명)

연도 지역	1982년	1990년	2000년
베이징	3,905	7,710	20,369
상하이	462	782	5,120
톈진	816	1,820	11,041

출처: 중국 제5차 인구보편조사자료(2000년)⁶⁾

1.2. 독립국가연합 지역 동포 거주 형성사

2011년 7월 현재,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국외 동포는 535,679명으로, 이는 전체 국외 동포의 약 7.4%를 차지하여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 규모이다. 인구 수도 많으며 이민 역사도 약 150년에 달해, 국외 동포 사회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 사회이다.

5) '2006년 한중 인적 교류 현황' 외교통상부 통계. 참고로 2010년도 한중 인적 교류 집계 결과, 그 수는 600만 명에 달하였다.

6) 2010년에 실시된 제6차 인구 보편 조사 결과 중 조선족 인구수에 대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음.

1) 강제 이주기

일반적으로 러시아로의 한국인 이주는 1860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맺어진 베이징조약에 의해 러시아가 우수리강 동쪽 지역을 차지하게 된 186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본래 중국 영토이던 곳이 러시아 영토에 속하게 되면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한국은 러시아와 인접하게 되었으며 1869년~1870년 사이에 발생한 북한 지역의 대기근이 함경북도 주민들로 하여금 러시아로의 대규모 이주를 유발시켰다. 이처럼 연해주 지역으로의 이주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루어졌지만, 1910년 한일합방과 1919년 3·1 운동 이후부터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및 지식인들이 연해주 지역을 독립운동의 전진 기지로 삼아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고국을 떠났으며, 이주는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1930년대에는 일본의 아시아대륙 침략과 더불어 일·소 관계가 악화되어, 극동 지방 국경 지역의 한국인들에 대한 강제 이주가 1937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일본과의 전쟁을 앞두고 한국인들이 일본의 첩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군사적 우려와, 독립국가연합의 낙후된 지역을 한국인 노동력으로 개간한다는 경제적인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현재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는 약 30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은 이때 강제로 이주한 1, 2세의 후손들이다. 1937년의 강제 이주 이후 고려인은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독립국가연합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2) 대도시로의 재이주기

1956년 7월 소련 최고회의에서 ‘특별 이주자들의 법적 지위상 특별 거주에 따른 제한 조치의 해제에 관하여’란 법령이 공포되면서, 고려인은 독립국가연합으로부터 거주 제한과 통제가 풀리게 되었다. 이에 고려인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를 거치면서 농사,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지로 이주하였다. 이후 급격히 도시로의 이주가 진행되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도시 거주율은 1939년에는 15.5%, 1959년에는 31.9%, 1979년에는 71.8%까지 증가하게 된다⁷⁾. 이 시기에 재이주하여 새로운 곳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대부분 현지 사

회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며 중상류층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3)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1989년 소련 체제의 붕괴를 전후해서 대규모 재이주가 일어난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국가 공식 언어로 러시아어 대신 자국의 언어를 채용하게 되는데, 이는 고려인들에게 독립된 국가의 공용어와 러시아어, 그리고 민족어(한국어) 등 3중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었다. 특히 고려인들은 관리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독립된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농업이나 자영업 또는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소수 민족에 대한 회교도 자민족 중심주의 정책과 타지키스탄의 내전(1991) 등이 고려인의 생활 기반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에 고려인들은 경제 사정이나 기타 여건이 훨씬 안정적인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의 재이주를 결심하게 된다.⁸⁾

참고로 사할린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일제 강점기에 남한에서 강제 이주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캄차카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북한에서 해방 이후 노무자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의 고려인은 독립국가 연합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사할린에서 이주해 온 사람 그리고 북한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혼재하는 곳이다.

1.3. 미국 지역 동포 거주 형성사

한국인의 미국 지역으로의 이주 역사는 1903년의 하와이 이민에서부터 시작한다. 이후 미국 서부 지역으로의 이민이 시작되어 현재 110여 년의 이민 역사를 갖는다.

7) 조윤희(2001)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인의 도시화 비율이 1939년 15.5%, 1959년 31.9%, 1979년 71.8%, 1989년 79.8%인 것으로 나와 있으며, 윤인진(2004)에서도 1959년 카자흐스탄 내 농촌 인구는 70% 이상이었으나, 1970년에는 59.9%, 1999년에는 86%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Sovetskie Korejtsy Kazakhstan(1992, p.156[(곽충구(2009b)에서 재인용]))의 1989년 도 통계 자료에서도 도시 거주 84.2%, 농촌 거주 15.8%인 것으로 보아 구소련 내 고려인의 급격한 도시화를 확인할 수 있다.

8) 윤인진(2004)에 의하면 1994년 기준으로 고려인의 연해주로의 재이주는 7,660명으로 추정되는데, 1997년 한 해에 약 748명이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1945년 이전의 미국 지역으로의 이민

한국인의 미국 지역으로의 이민은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약 7,000여 명이 하와이에 들어오고, 사진 신부(picture bride) 약 2,000여 명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초기 이민자들은 오늘날 미국 서부 지역으로의 이민자들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하와이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시골 출신은 아니었지만 교육 수준은 낮은 편이어서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하와이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 약 1,000여 명이 다시 미국 본토, 그 중에서도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로 이주하였다.

2) 1945년부터 1965년까지의 한국 이민자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과 그들의 자녀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약 10,000여 명에 달하는 여성이 미군 남편을 따라서 이주하였다. 그리고 전쟁 고아들이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되었으며, 유학생도 증가하여 약 15,000여 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 시기에 이주한 한국인들을 제2의 이민파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고향에 있는 친인척들의 미국 이민을 주선하였다. 그리고 미국인 남편을 따라온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면서 미국 전역에 퍼져 살게 되었다.

3) 1965년부터 한국인의 대량 이민 시작

1965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민자를 제한하는 제도가 폐지된 이민법 개정은 한국인의 미국 이민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 왔다. 첫째, 이산 가족 상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으로서 귀화하거나 영주권을 획득한 한국인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부모도 별 어려움 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의사, 기술자, 과학자 등 특별한 기술을 소지한 사람 그리고 성직자도 미국으로 이주할 길이 열려 대량 이민이 시작되었다.

1.4. 브라질 지역 동포 거주 형성사

2011년 7월 현재, 중남미 지역에는 112,980명의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브라질 동포 사회로 50,77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중남미 동포 사회의 약 45%에 해당한다. 다음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로, 각각 20%와 1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동포 사회의 규모와 이민의 역사 등을 고려하여 브라질 이민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이민 역사

전경수(1991)와 최금자(2007)에 의하면 한국인의 브라질 이민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일본인들의 브라질 농업 이민단에 섞여 갔다고 한다. 뒤이어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사면 당시 제3국행을 희망한 반공 청년 50명이 브라질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들이 브라질 문화와 한국 문화의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서 정인규 대령과 일제 강점기 이민자인 김수조가 브라질 대통령과의 개인적 교섭을 통해 한국인 농업 이민에 대한 승낙을 얻어 이민이 시작된다.

2) 이민 사회 형성기(1963~1980)

1963년부터 1966년 사이에 공식 이민 첫 번째 그룹으로 5차에 걸쳐 약 1,300명이 브라질로 건너가게 된다. 이들은 처음에는 농장을 경영하였으나 실패하고, 이민 계약 기간인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1966년, 이 시기 이민자의 약 90%가 대도시 상파울루 지역으로 이주한다. 이들이 처음에 체결한 계약을 어기고 상파울루 지역으로 이주하자 브라질 정부는 1968년 한국인 농업 이민을 금지한다.

이에 한국은 두 번째 그룹으로, 1971년 기술 이민자 1,400명을 보낸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는 기술 이민자였지만 실제로는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중산층들로서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상인들이었다. 이들의 출현은 동포 사회 전체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당시 한국의 봉제 기술은 국제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닦은 봉제 기술을 브라질에서 발휘할 수 있었다. 물론 봉제 기술을 충분히 발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1977년과 1978년 사이를 전후해서 상파울루시에 본격적인 의류 제품업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상파울루 지역에 모여 거주하게 된 것은 한국 이민 사회가 하나의 ‘사회’로서 자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곧 한국인 이민 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직업 분화와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국어만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안정기(1980년 이후)

1972년부터 1980년까지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브라질에서 의류 제품업이 잘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불법 이민이 다수 이루어졌다.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가족이나 친지 초청 이민으로 한국인이 꾸준히 유입되었다. 한국인은 브라질 영토 전역에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96.84%가 아끌리마썬, 봉헤찌로, 브라스구 등 상파울루시에 집결하여 살았다. 그 중 약 90%가 직·간접적으로 의류업계에서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였다.

2010년 1월 12일 상파울루시 조례(법령 Lei No.15110)에 의해 봉헤찌로가 코리아타운(Bairro Coreano em Sao Paulo)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포 사회가 자체적으로 봉헤찌로를 한국인 경제, 문화 특구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상파울루시 정부로부터 행정, 재정 등 다양한 지원 또한 기대되므로 한국인 최대 밀집 거주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봉헤찌로는 앞으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 일본 지역 동포 거주 형성사

1.5.1. 연대별 이주 변천사

1) 한일합방 이전

한일합방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은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1882년에 4명, 1909년에는 790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생이며 소수가 외교관, 정치적 망명자들이다. 한일합방 이전에는 일본의 대부분의 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2) 제1기(1910~1938)

한일합방으로 인해 한국인이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에서 자유로워지자 일본 자본가들은 일본 국내의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저임금의 한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다. 그 결과 재일 한국인 수는 1915년 3,917명에서 1920년에는 30,189명으로 5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하였다.

1920년 일제는 한국에서 산미(産米)증산 계획을 실시하여 쌀 생산은 증가했으나 일본으로의 유출량이 많아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농 인구가 증가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던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떠났다. 그러나 일본의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도항(渡航)을 저지하려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극심한 생활고 탓에 도일한 재일 한국인은 1944년에는 1,936,843명에 이르렀다. 그들 대부분은 경상도, 제주도, 전라도 등 남한 지역 출신자들로서 절대 다수가 농민 출신이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단기간 취업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이었다.

3) 제2기(1939년~1945년 8월)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하면서 병력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노동력 동원 계획을 발표하여 주로 탄광, 광산, 철강, 토목 사업장 등으로 한국인을 연행하였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 연행된 한국인은 724,787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군인, 군속 365,263명을 합하면 강제 연행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대의 이름으로 20만 명이 추가로 동원되었는데 이 중 8만 명가량이 종군위안부로 동원되었다.

4) 제3기(1945년 8월~1980년대 말)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인들은 귀국을 서두르기 시작했으나 60만 명 정도가 일본에 잔류하게 되었다. 이들은 본국과의 연락이 취약해서 귀국한다 해도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국인 귀환자가 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을 1천 엔 이내로 제한한 까닭에 어렵게 모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여 귀국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당시 한국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여 귀국하였다 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5) 제4기(1980년대 말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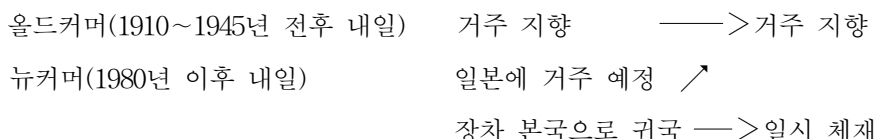
1980년대 말 이후, 일본의 경제 호황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뉴커머⁹⁾’들이 일본에서 새로운 한국인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재일 한국인은 565,989명으로 이 가운데 특별 영주자 395,233명을 제외한 17만 명 중 대다수가 뉴커머이며, 실제 수는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 20~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뉴커머의 3분의 1 이상이 도쿄의 신주쿠(新宿) 쇼쿠안도오리(職安通り)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1.5.2. 재일 한국인의 인구 변화

일본에서의 거주 연수가 길어지면서 재일 한국인의 인적 구성이 변하고 있다. 한국인 1세는 5% 미만의 극소수에 불과하고, 2세는 대부분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3세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4세가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식민지의 국민으로서 수모와 핍박을 받은 1세들과는 달리 2세 이후는 일본 사회에 대한 참여도도 높고 일본인과의 접촉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재일 한국인 자녀의 대다수는 일본 학교를 다니며 일본인과 교우관계를 맺고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다. 1세와는 달리 민족이나 혈통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면서 일본인과의 혼인도 증가하고 있다.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이하 ‘민단’이라 칭한다)의 자료에 의하면 1975년에 이루어진 7,249건의 혼인 가운데 재일 한국인끼리의 혼인이 3,618건(49.9%), 일본인과의

9) 일반적으로 한일합방 이전부터 제3기까지의 이민자와 그 후손 세대를 ‘올드커머’라고 하며, 제4기 이후의 이민 세대를 ‘뉴커머’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고시(2007)에 의하면, 재일 한국인은 도일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일본의 강점기(1910~1945) 전후에 도일한 사람과 그 후손들로서 이른바 올드커머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재일 한국인의 대부분은 이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협의의 재일 한국인은 이 그룹을 가리킨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장래에도 일본에 거주할 의향을 갖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로 1980년대 이후 사업, 결혼, 유학 등을 위해서 도일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 뉴커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 그룹은 일본에 영주할 것인가 아니면 본국으로 귀국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다시 두 그룹으로 하위 분류할 수 있다. 세 그룹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혼인이 3,552건(49%), 기타 외국인과의 혼인이 87건(1.2%)이었으며 1999년에는 일본인과의 혼인이 86.7%로 증가하였다. 2001년의 인구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일 한국인의 혼인 건수 10,894건 중 재일 한국인끼리의 혼인이 1,019건(9.4%), 일본인과의 혼인이 8,665건(79.5%)이었는데, 그 중 6,188건이 재일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간의 혼인이었다. 이처럼 재일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간의 국제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인데 이는 1980년대 말부터 뉴커머들이 급증한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세대교체와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으로의 귀화가 증가하였다. 과거 일본 정부는 귀화 조건이 까다롭고 일본인으로의 동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1세대들은 귀화를 재일 한국인에 대한 핍박과 차별에 대한 굴복으로 인식하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2세 이하의 거주 의식이 강해지며 귀화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여 귀화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귀화자 수는 1952년에는 233인, 1960년대에는 3,360명, 1980년대에는 5,370명, 1997년에는 9,678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3년을 정점으로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3 참조)

표3 최근 10년간의 일본인으로의 귀화자 수 추이

(단위 : 명)

연도	사항	귀화허가 신청자 수	귀화 허가자 수				불허가자 수
			합계	한국/조선	중국	기타	
2001		13,442	15,291	10,295	4,377	619	130
2002		13,344	14,339	9,188	4,442	709	107
2003		15,666	17,633	11,778	4,722	1,133	150
2004		16,790	16,336	11,031	4,122	1,183	148
2005		14,666	15,251	9,689	4,427	1,135	166
2006		15,340	14,108	8,531	4,347	1,230	255
2007		16,107	14,680	8,546	4,740	1,394	260
2008		15,440	13,218	7,412	4,322	1,484	269
2009		14,878	14,784	7,637	5,391	1,756	202
2010		13,391	13,072	6,668	4,816	1,588	234

출처 : 일본국 법무성 민사국

재일 한국인의 연령별, 성별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이주 초기에는 남성이 많았으며 남성 중에서도 15세부터 39세 이하의 청장년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처자를 본국에 남겨둔 채 일자리를 찾기 위해 혼자 일본으로 건너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에서의 거주 연수가 늘어나 거주 의사가 강해지면서 처자식을 불러와 가정을 이루고 일본에서 태어난 2세들이 성장하면서 남녀 비율이 균등해 지고 아동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1969년에는 남성이 55.2%, 여성이 44.8%였는데, 1992년에는 남성이 49.2%, 여성이 50.8%로 오히려 여성 비율이 높아졌으며, 2001년에는 여성이 52.7%가 되었다.

둘째 출산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1992년 이후에는 10세 이하 아동의 비율이 감소하고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은 인구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청장년층이 나이가 들면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에는 10세 이하는 10%내외이며 출생자 수의 감소와 재일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과의 혼인이 증가하면서 인구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1.5.3. 재일 한국인의 지역적 분포

재일 한국인 1세는 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지를 형성하였으며, 본국의 출신지에 따라 한 곳에 모여 사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오사카에는 제주도 출신이 많고, 히로시마에는 경상남도 출신이 많으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출신 지역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재일 한국인은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나고야(名古屋), 고베(神戸), 요코하마(横浜), 후쿠오카(福岡) 등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에서 많이 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일이 급증하던 1920년대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서, 한일합병 직후에는 부산과 시모노세키(下関)간의 부관(釜関) 연락선에 의해 시모노세키에 상륙한 한국인들은 시모노세키와 가까운 기타큐슈(北九州)의 공업 및 탄광 지대가 많은 후쿠오카현에 몰렸다. 그 후 1923년 2월에 제주도와 오사카 간의 정기 항로가 개설되면서 오사카로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제주도 출신자의 집중이 두드러졌다.

1920년부터 1966년 사이의 거주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타큐슈 지역은

40.7%에서 12.8%로 감소한 반면 오사카 지역은 27.3%에서 44.1%로, 도쿄 지역은 8.3%에서 18.2%로, 주쿄(中京) 지역은 2.9%에서 11.1%로 증가하였다. 1992년에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긴키(近畿) 지역이 46.5%, 도쿄 지역이 23.4%, 주쿄 지역이 10.5%로 제일 한국인의 80.4%가 이 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제일 한국인들의 거주 경향은 여전히 도시를 중심으로 몇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나 2, 3세들이 밀집 거주 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점차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오사카시의 이쿠노구(生野区)와 같이 특수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제일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점점 해체되고 있다.

2. 국외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및 한국어 교육 실태

전 세계에 거주하는 국외 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민족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한국어 교육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한 한국어 교육 정책은 해당 지역의 외국인 정책(이민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실시 방법도 다르고 실시 현황도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는 각 지역에 처음 자리를 잡은 이민 1세와 그의 자녀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민 지역의 타민족과 타언어에 대한 정책의 차이에 의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국외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및 한국어 실태에 대해서 개관하기로 한다.

2.1. 중국 지역의 한국어 사용 및 교육 실태

1) 한국어 사용 실태

박경래(2002)는 연변 거주 조선족을 대상으로 모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변 조선족은 한어(이하 중국어라 한다)보다 조선어를 훨씬 잘 구사하며, 세대별로는 학생 세대보다 부모 세대가 더 잘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 발화 상황에 따라 언어 선택을 달리하지만 집안에서 가

족들에게 말할 때는 세대에 관계없이 90%~99% 정도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조선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젊은 세대의 화자가 상위 세대를 배려한 언어 선택의 결과이거나, 상위 세대로부터의 무언의 압력(조선 사람은 조선어를 써야 한다.)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족들 간의 대화에서 90% 이상이 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모어를 상당히 잘 보존하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다.

그림1 중국 조선족자치주 길거리의 언어 경관



2) 한국어 교육 실태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06년 룡진(龍井)에 세워진 ‘서전서숙’에서부터라고 한다. 20세기 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이루어져 엄격한 의미의 정규 교육이라 할 수 없다. 해방이 되고 생활이 안정되자 각지에서 조선족학교가 많이 생겨났으며 그에 따라 한국어 교육도 점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소학교(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중학교, 그리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교육 과정이 정립되어 조선족 학생이라면 누구나 조선족학교에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52년에 접어들면서 중국 내의 여러 민족과 교류가 활발해지자 한족 대

학에 진학을 한다거나 옌벤 조선족 자치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취직을 하려면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학교 1학년부터 교과 과정에 한어(중국어)과를 증설하여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중 언어 교육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조선족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은 거듭되는 정치 운동과 사회 변화로 말미암아 순탄치 않았으며 1958년부터 진행된 극좌 운동으로 한국어 교육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첫째, 조선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보다 중국어 교육을 우선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둘째 한어(중국어)과를 처음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개설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초등학교 3학년부터, 또 얼마 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개설하였다. 셋째 한국어 강의 시간을 줄이는 대신 중국어 시간수를 늘렸다. 넷째, 한족학교의 국어과 교과 과정을 그대로 적용시켰다. 다섯째, 한어(중국어)과 교육만 강조하다보니 한국어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1961년 초까지 이어져 오다 교육 부문의 구조 조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학기부터 원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나 1966년부터 1978년까지 진행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또다시 조선족학교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한국어 무용론의 영향으로 많은 조선족 학생들이 조선족학교를 이탈하여 한족학교로 이동하여 학생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중국 조선족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1978년 중국의 개혁 개방과 더불어 소수 민족 정책이 회복됨에 따라 상황은 많이 호전되었다. 정책적으로 조선족학교는 한국어로 수업을 함과 동시에 중국어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수 민족 입시생일 경우 대학 입시 때 자기 민족 언어로 시험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민족어로 시험을 볼 경우 가산 점수를 주는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붕괴 직전이었던 조선족학교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한국어 교육도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어 교육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¹⁰⁾

현재도 ‘국가소수 민족수능가산점정책’(国家少数民族高考加分政策)은 계속 시행되고 있으나 성(省)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옌벤 조선족 자치주의 경우는

10) 김병운(2007), 「중국조선족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33호, pp.397~402.

무조건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랴오닝성의 경우는 두 가지(조선어, 중국어) 언어 교육을 하는 민족고등학교를 졸업한 조선족에게는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헤이룽장성의 경우는 지원 대학의 합격선에서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정책은 다르지만 조선족이 동북 3성뿐만 아니라 산둥성의 칭타오에도 많이 거주하게 되어 칭타오에서도 소수 민족가산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한국학교 가운데 가장 먼저 설립된 학교는 1988년에 개교한 홍콩 한국국제학교이며, 가장 최근에 개교한 학교는 2006년에 개교한 우시(無錫)한국학교이다. 중국 본토에 설립된 학교는 모두 1997년 이후로서 이들 한국학교는 한국에서 정규 사립학교에 준하는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모두 학력이 인정된다. 중국 내 한국학교 학생 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중국 내 한국학교 학생 현황

학교명	설립일자	학생수(학급)				
		계	유	초	중	고
베이징한국국제학교	98.08.26	1,127(42)	81(4)	558(19)	230(9)	258(10)
상하이한국학교	99.09.01	1,093(46)	-	599(26)	212(9)	282(11)
옌벤한국학교	97.12.01	213(12)	-	98(6)	62(3)	53(3)
톈진한국국제학교	01.03.07	919(31)	117(5)	428(14)	185(6)	189(6)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182(14)	18(2)	80(6)	22(3)	62(3)
옌타이한국학교	01.03.01	704(26)	-	309(12)	195(6)	200(8)
다롄한국국제학교	03.12.23	374(17)	-	191(8)	97(5)	86(4)
선양한국국제학교	06.03.01	182(14)	38(3)	92(6)	34(3)	18(2)
우쑤한국학교	06.09.04	84(9)	-	79(6)	5(3)	-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25	588(27)	56(5)	310(12)	143(6)	79(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내부 통계자료(2009)

2.2.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한국어 사용 및 교육 실태

1) 한국어 사용 실태

곽충구(2009b)에 의하면 이주 초기(1863~1900년대 초)에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사용 언어는 주로 두만강 하류 지역에서 쓰이던 육진 방언이었다고 한다. 이후 두만강에서 멀리 떨어진 함경도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수많은 비육진 방언 화자들이 대거 연해주로 이주해오면서 점차 비육진 방언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각 지역 방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후 1937년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이후에는 여러 지역 출신자들이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살게 되면서 ‘고려인 사회’라는 하나의 민족 언어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¹¹⁾ 이 시기 이후 ‘고려말’이 하나의 ‘immigrant koiné¹²⁾’로서 발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연자(1988)는 60대 이하 고려인들 가운데 한국어로 회화가 가능한 사람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고재남(1993)은 고려인 중에 단지 5%만이 한국어로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구소련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한 허승철(1996)의 연구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1959년에는 79.3%에서 1970년 68.8%, 1979년 55.5%, 1989년 47.2%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고려인들의 언어 동화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98년 러시아 거주 고려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인진(2004)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1%가 러시아어를 본인이 가장 자유롭게 사용하는 언어로 꼽고 있어 러시아어로의 언어 동화가 1989년 이후에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11) 윤인진(2004)에 의하면 1939년 초 카자흐스탄 전 지역에 총 70개의 고려인 집단농장이 형성되어 8,037가구 35,724명이 거주하였으며, 지역별로는 크즐-오르다주에 29개, 알마티주에 19개의 집단농장이 집중되어 있어 고려인의 고유한 민족문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곽충구(2004)에 의하면 현재 50세인 장류드밀라 교수, 김유라 씨의 증언에서도 그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이 우슈토베의 집단농장에서 살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어를 몰랐다고 한다.

12) 곽충구(2004)에 의하면, koiné라는 용어는 흔히 한 언어에 속한 여러 지역 방언들이 상호 접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교역 또는 이주 등)이 마련되면서 어느 한 방언을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다른 방언적 요소들이 뒤섞인 것을 일컫는데, 그 환경적 요인에 따라 ‘regional koiné’와 ‘immigrant koiné’로 구분하기도 한다. immigrant koiné는 같은 언어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방언을 말하는 이민자들에 의해 정착된 이민 사회 내에서 형성된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 4세대 응답자의 98% 가량이 러시아어를 가장 자유롭게 사용하는 언어라고 보고하고 있어 젊은 세대일수록 언어 동화 또는 민족어 상실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한국인으로 동일시하는 주관적 수준을 측정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만이 자신을 러시아인 또는 현지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 높은 언어 동화율에 비해 민족 애착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 독립국가연합의 도로 표지판에 나타난 언어 경관



2) 한국어 교육 실태

김승화(1989)에 의하면, 극동 시베리아의 고려인을 위한 러시아 정교회의 미션계 학교, 한인 민족학교, 러시아 한인학교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학교들은 소규모였다고 한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고려인들은 여러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전까지 5,75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182개의 학교가 고려인이 모금한 자금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고려인의 한국어 교육은 1937년 가을 강제 이주와 함께 서리를 맞게 된

다. 일단 해삼위 사범대학이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로 이주하게 되고 곧 이어 문을 닫게 된다. 그리고 연해주에서는 한 곳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도 쉬웠으나 중앙아시아로 이주 후에는 흩어져 다른 민족과 섞여 살게 되면서 한국어 교육이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이주 직후인 1938년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어 학생들이 러시아 학교로 가게 된다. 이때부터 고려인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¹³⁾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 문화 부흥 운동의 여파는 고려인 사회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여러 곳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고려인들 간에 민족 정체성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어 재생 운동¹⁴⁾이 시작되게 된다. 알마티시의 제28호 114중학교에 한국어 학습반을 편성하여, 1989년 9월부터 개강을 했으며 타슈켄트의 4개 중학교에서는 한국어 학습반을 만들었다. 1985년 니자미 명칭 사범대학에는 조선어 문학과를 설치, 80여 명의 학생이 조선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크대학에서 조선어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한민족의 언어·문화를 재생·계승하기 위해 고려인 문화센터가 모스크바, 알마티, 타슈켄트에 설립되었으며 기타 지역에서도 그러한 조직이 만들어졌다¹⁵⁾.

이후 한국 정부에서도 고려인들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고려인의 한국어 교육과 문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8월 알마티에 한국교육원, 1992년 3월에 모스크바에 한국학교, 1992년 5월에 타슈켄트 그리고 1993년 하반기에 사할린에 한국교육원을 개설하였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교육원 및 한글학교의 설립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0년 4월 현재 러시아 지역에는 122개의 한글학교에서 8,088명, 우즈베키스

13) 고송무(1990), 『소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14)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우후죽순으로 고려인협회와 고려인 문화센터를 조직하고 제일의 사업을 한글 배우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잊었던 모어를 배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목적도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에 동포이기 때문에 현지인을 채용할 경우 자기들이 유리하리라는 기대에서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인을 채용할 때 러시아에서 동포인 자기들보다 러시아인을 고용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특히 우즈베크, 카자흐 등지에서 고려인보다 우즈베크인이나 카자흐인을 고용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이에 대해 재소고려인들은 남한 기업인들에게서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이광규(1998), 러시아 沿海州의 韓人社會, 집문당, p.225.).

15) 임채환(1999),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적 정체성과 민족의식」, 『국제정치논총』 제39권 제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p.8.

탄에는 122개의 한글학교에서 134명,¹⁶⁾ 카자흐스탄에는 103개교에서 4,199명, 키르기스스탄에는 43개교에서 1,405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표5, 표6 참조).

표5 구소련 지역 한국교육원 현황

(2010년 4월 기준)

관할 재외공관	학교명	설립 연월일	학생 수(학급 수)					전임(파견)교원 수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등	중등
러시아(대)	모스크바한국학교	'92.03.01	78(8)	32(2)	46(6)	-	-	8(1)	2	6(1)	-

출처: 교육과학기술원

표6 구소련 지역 재외 한국인 학교 현황

(2010년 4월 기준)

관할 재외공관	교 육 원 명	설립	파견 자수 (명)	관할 내 한글학교			관할 내 동포수			
				학교 수	학생수	교원수	계	일시 체류자	영주 권자	시민 권자
주블라디보스톡(총)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95.03.24	1	56	3,847	134	34,405	400	5	34,000
주러시아 대사관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97.08.07	1	16	1,723	38	25,500	500	-	25,000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01.09.19	1	32	1,769	68	64,169	162	7	64,000
주요주노사할린 스크출장소	사할린한국교육원	'93.12.10	1	18	749	44	30,300	300	-	30,000
러시아지역 소계 (4개원)			4	122	8,088	284	154,374	1,362	12	153,000
주우즈베키스탄(대)	타슈켄트한국교육원	'92.05.27	1	122	134	134	182,000	2,000	180,000	-
주카자흐스탄 알마티분관(분관)	알마티한국교육원	'91.08.22	1	103	4,199	167	103,842	1,980	61	101,801
주키르기스스탄(대)	비쉬켄한국교육원	'01.05.28	1	43	1,405	63	18,810	585	25	18,200
CIS지역 소계 (3개원)			3	268	5,738	364	304,652	4,565	180,086	120,001

출처: 교육과학기술원

16) 우즈베키스탄의 한글학교와 학생수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원의 표 안의 수치를 인용한 것인데, 수치에 오차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3. 미국 지역의 한국어 사용 및 교육 실태

1) 한국어 사용 실태

윤인진·채정민(2007)은 미국 거주 국외 동포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에 관해 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1세의 94.2%, 1.5세의 58.9%, 2세의 69.1%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며, 1세의 5.8%, 1.5세의 41.1%, 2세의 30.9%가 영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재미 한국인의 영어 구사 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영어 구사 능력이 예상외로 낮다는 것이다. 1세 중에서 영어가 미숙하다는 사람이 61.4%에 달하고 1.5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에서 출생한 2세 중에도 영어가 미숙하다는 비율이 15~23%에 달한다. 그러나 1.5세와 2세의 영어 구사 능력을 동일 세대의 다른 아시안 민족 집단과 비교하여 보면 특별히 낮은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5세와 2세가 미국 주류 사회로 진입하는데 영어로 인해 특별히 장애를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광해(2002)는 'LA지역의 한국어 교육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2002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LA지역의 대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출생지는 대부분 미국이며 미국에 온 평균 연수는 대학생 12.7년, 고등학생 9.2년이였다. 대부분 집에서 한국어를 배우지만 주말 한국 학교의 비중이 높아서, LA지역의 한국어 교육에서 주말 한국학교(Korean Community Schools)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90%가 넘는 가정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집에서 부모님은 한국어, 나는 영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한국인 2세, 1.5세들의 언어가 이미 상당 부분 영어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대학생, 고등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한국인이니까', '가족이나 다른 한국 사람과 한국어로 대화하기 위해서'가 많았다.

자녀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집과 주말 한국학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절반 정도의 가정에서 집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한국어 구사 수준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그저 그렇다'가 가장 많았고, '잘 못한다'는 11%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자녀가 한국어를 배워야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꼭 배워야 한다’가 50%, ‘가능하면 배우게 하고 싶다’가 4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여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의욕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 미국 코리아타운의 언어 경관



2) 한국어 교육 실태

미국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가정과 주말 한국학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주로 교회이다. 이러한 한국학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주 업무로 하지만, 해당 지역 사회의 동포들이 모여 친교를 나누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미국의 한국어 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480개에 달하는 주말 한글학교와 30여개 대학(국방 외국어 대학 포함)의 크고 작은 한국어 프로그램이다. 한글학교는 주로 동포 1세 한국인들이 자치적으로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서, 주로 동포 2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동시에 이중 언어 사용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글학교는 미국 40

여개 주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계 인구 분포 수와 정비례하여,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시애틀 등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 지역에 많이 집결되어 있다. 학생 수는 3만 명 정도이고 교사 수는 3천 7백 명에 이른다.

2.4. 브라질 지역의 한국어 사용 및 교육 실태

1) 한국어 사용 실태

브라질 지역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브라질로의 이민 역사가 짧은 까닭에 브라질 지역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언급한 논문은 다른 동포 사회에 비해 많지 않다.

전경수(1990)에 의하면, 초기에 브라질로 건너간 이민 1세는 거의 일본인 이민 사회 내에서 일본인 신분으로 거주하면서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일본인들처럼 이민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인들과 함께 브라질 학교에 다니면서 브라질식의 생활 방식과 언어를 배웠으나 학습을 게을리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브라질에 늦게 도착한 이민자들은 먼저 도착한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브라질 문화와 한국 문화가 충돌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대부분의 어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브라질 사회에서 형성된 한국 Quisto¹⁷⁾에서 살게 되어 1세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잘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1세와 함께 브라질로 건너간 1.5세의 경우는 이민 당시의 연령대에 따라 언어 사용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고등학생 이상 때 부모와 함께 브라질로 건너간 1.5세의 경우는 일찍이 부모를 도와 함께 돈을 버는 이민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뚜렷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 습득기 이후에 이민한 탓도 있어 이들 역시 1세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잘 보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17) 브라질 남부의 Blumenau 근처는 독일 이민자로 구성된 독일 문화가 지속되고 있고, 서아프리카로부터 이전된 요루바의 문화는 동북 지방인 바이아에 존속되고, 일군의 미국인들이 건설한 Americana에서는 미국식이 남아있고, 일본인들이 건설한 일본계 콜로니아에서는 전통적인 일본 문화의 모습이 남아 있다. 그리고 아마조니아나 뻘파나오 등지에는 인디오 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브라질에서는 Quisto라고 하여, 민족마다 각기 다른 생활 방식을 기초로 한 배타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한다. 각각의 개별적인 Quisto의 존재를 인정하고 통합적인 문화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브라질 사회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재학 또는 그 이전에 이민한 1.5세의 경우, 브라질에 도착한 이후 거의 브라질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들은 동포 사회에서 이미 ‘브라질리언’으로 취급되며, 한국어 실력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브라질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것도, 이들과 이민 1세 부모들 간에 의사소통이 힘들어진 데에 그 이유가 있다.

2) 한국어 교육 실태

브라질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 교육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71년 상파울루 소재의 연합교회에 의해서였다. 연합교회는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학교’라는 명칭으로 자녀들에게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1975년도에는 서울교회에서 한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교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그림4 브라질 코리아타운의 언어 경관



1980년대 초반, 교회에 의해 소규모 토요 한글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다. 선교 교회와 중앙교회에 이어, 1984년 2월 4일 한국인 천주교회에서 ‘대건학교’를 설립 하였으며, 1985년에는 대한성결교회, 안디옥교회, 한인교회 등에서도 토요 한글학교를 설립하였다. 같은 해 2월 23일에는 대성한글학교(대한성결교회)와 안디옥교회가, 3월 9일에는 한인교회의 한인한글학교가 개설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9년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거나 새로이 설립된 브라질 내 한글학교는 25개가 있는데, 이 중 3개교는 휴교 상태이다. 교원 수는 170명이며 학생 수는 유치원생 240명, 초등학생 437명, 중학생 335명, 고등학생 200명, 성인 223명으로 총 1,425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소재지가 확인된 것은 19개교인데, 이 중 15개교가 상파울루에 위치하고 있다. 브라질의 한글학교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브라질 한글학교 현황

(2009년 현재)

번호	학교명	교원수	학생수	설립년도	주소지
1	대건 한글학교	20	230	1988	Rua Matarazzo 20 Bom Retiro, S.Paulo
2	대한 한글학교	6	42	1988	R. Muniz de Souza, 297 S.Paulo
3	두리서당 한글학교	4	38	1993	R. Lubavitch, 203/205 Bom Retiro, S.Paulo
4	빌라델비아 한글학교	6	52	?	?
5	배우리 한글학교	10	123	1993	R. Salvador Correria, 99, S.Paulo
6	브라질 한글학교 (구 상파울루 한글학교)	23	208	1983	R. Solon, 1018 Bom Retiro. , S.Paulo
7	사랑유치원 한글학교	6	36	1995	R. Cachoeira, 1328 Pari, S.Paulo
8	선교 한글학교	13	62	2004	R.David Bigio, 31 Bom Retiro, S.Paulo
9	신암 한글학교	5	39	1989	R. Rodovalho De Fonceca 194 Bras, S.Paulo
10	새소망(영재) 한글학교	11	73	1985	R. Santa Rita, 215 Pari, S.Paulo
11	순복음교회 한글학교	21	124	?	R. Sao Joao Batista, 77, S.Paulo
12	아이템플 한글학교	9	72	?	R. DR. PACHECO E SILVA, 46, S.Paulo
14	이화 한글학교	5	43	?	?
14	한솔 한글학교	3	38	?	?

번호	학교명	교원수	학생수	설립년도	주소지
15	캄파나스 한글학교	2	10	1998	R. Antonio Rodrigues de Mello, 34 Campinas, S.Paulo
16	히오 한글학교	8	42	1984	Estrada Pau Ferro, 1148 자카레빠과 Rio de Janeiro
17	이태권도히오 한글학교	4	30	?	?
18	꾸리찌바 한글학교	3	23	1985	R.24 de maio, 2600 꾸리찌바 빠라나
19	이과수 한글학교	3	21	2005	R. Almte Barroso, 1384 2 And Foz Do Iguacu Brazil
20	한브새천년문화센터	2	25	?	?
21	쥬지포라 한글학교	2	12	?	?
22	새소망 한글학교	4	80	1985	R. Santa Rita, 215 Pari, S.Paulo
23	봉혜찌루 한글학교	휴교 中		?	R.AFONSO PENA,400, S.Paulo
24	쁘르뚜 알레그리	휴교 中		1980	R. Vigario Jose Inacio, 399 Sala 407 쁘르또알레그리 히오그란지도술
25	한브 언어학당	휴교 中		?	R. Solon, 1018 Bom Retiro. , S.Paulo
총 계		170	1,425		

현황출처: 한브교육협회(2009)¹⁸⁾

2.5. 일본 지역의 한국어 사용 및 교육 실태

1) 한국어 사용 실태

일본 지역 국외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를 오고시(1982, 1983), 임영철(1992b, 1993)의 결과를 통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 및 가정은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일본에서 태어난 동포와 그 가정에서는 일본어만을 사용하는 단일어화가 진척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본인보다 윗사람 또는 친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일상적인 장면보다 공적이고 격식을 띤 장면에서 한국어를 자주 사용한다. 특히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가족 이외의 구성원과의 사용 언어는 친소관계, 상하관계에 따른 참여자 간의 화제에 따라 사용 언어가 달랐다.

18)소재지 및 설립일은 재외동포교육기관(www.kosnet.go.kr)과 재외동포신문 자료를 참조하였다.

그림5 일본 오사카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의 언어 경관



2) 한국어 교육 실태

일본 정부는 소수 민족에 대한 동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동포들에 비해서 한국어 보존은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민간인 주도 하에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에서 제일 동포 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 북한의 지원 하에 조총련을 통하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한(反韓)교육 활동에 자극을 받고서부터였다. 정부는 일본 거주 동포의 대부분이 남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한국인 교육이 방치됨으로써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게 되었다고 자각하고 북한과 조총련의 교육 사업에 대응하는 조치로 민족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제일 한국인의 한국어 교육은 민단계의 한국학교와 조총련계에 속하는 조선학교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한국어 교육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민단계 민족학교

2011년 현재 일본 내의 민단계 민족학교는 오사카 건국학교(개교시기 1946년), 금강학교(1946년), 교토 국제학교(1947년), 도쿄 한국학교(1954년)의 4개교로 모두 전일제이다. 이 중 도쿄 한국학교를 제외한 3개교가 정규 사립학교로 등록되어 있다. 이는 일본의 학교 교육법 제1조에 해당하는 일조교(一条校)¹⁹⁾에 의한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도쿄 한국학교는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다. 2009년 현재 교육 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민단계 민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2,050명이다.

○ 조총련계 민족학교

조총련계 민족학교는 일반적으로 조선학교라 불린다. 조선학교는 일본의 학교 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된다. 처음에는 일본 정부가 학교로서 인정하지 않았으나 끊임없는 투쟁으로 1975년에는 모든 조선학교가 각종학교로 인가를 획득하였다. 현재 조선학교는 학생 수의 감소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다. 또한 북한과 일본의 정치적인 관계로 인한 일본의 차별 정책과 사회의 적대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⁰⁾

2006년 통계 결과 약 80개 정도의 학교가 존재하며(각 과정별로는 약 130개교), 초·중급 학교, 중·고급학교와 함께 병설된 학교가 많다. 현재 모든 조선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개편된 새로운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²¹⁾ 그리고 사용하는 교과서는 북한의 교과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학교 내에서는 조선어를 공식어로 하여, 일본어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조선어로 진행된다.

○ 민족학교 밖에서의 한국어 교육

2007년 현재, 5~19세의 학령기 인구는 약 6만 명에 이르는데 민족 교육을 받는 학생은 25% 정도에 불과하다.²²⁾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민단과 조총련에서는 각

19) 일본의 학교교육법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 종합적인 법률이다. 학교 교육법 제1조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학교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전문학교,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유치원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학교들을 일조교(一条校)라고 부른다.

20) 표선실(2010), 『북한의 재일조선학교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조선학교의 교육커리큘럼은 10년에 한 번씩 개편되고 있다. 조총련 결성 이후, 55~57년, 63~64년, 74~77년, 83~85년, 93~95년, 2003~2005년에 6회에 걸쳐서 교과서가 개편되었다.

22) 재일한국민단 홈페이지에 따름 <http://www.mindan.org/kr/shokai07.htm>

각 준정규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준정규과정은 민족학급, 오후 야간학교, 토요일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어 교육, 역사, 지리, 문화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 한국교육원이 있다. 한국교육원은 평생교육 형태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주말 정시제 학교 형태인 한글학교의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한국교육원은 총 35개 인데 그 중 일본이 14개로 가장 많다. 한국교육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보급 등 민족 교육의 직접적인 실시와 지원·지도이다.

3. 국외 동포 구성 및 거주국의 정책 비교

(1) 중국 지역의 국외 동포 형성은 1940년대까지 형성된 연변 조선족 동포 사회와 198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 힘입어 경제가 발전한 중국 내 도시로의 이동과 한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신이민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변 조선족의 중국 내 도시 지역으로 이주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집중되고 있다.

중국 국외 동포의 한국어 사용 및 교육 실태는, 2000년대 이전에는 중국의 자치정책에 의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큰 문제없이 유지되어 한국 정부의 큰 역할 없이도 중국 조선족에 의한 자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연변 조선족의 중국 내 도시로의 이주 현상은 중국 동포 사회의 분열을 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중국어 교육이 활발해지고,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이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2)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국외 동포 사회는 구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국외 동포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로 인해서 형성되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던 고려인들은 1956년에 거주 이전의 제한이 해제되었다.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동포 사회는 1989년 이후 소련 체제의 붕괴를 기점으로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독립국가연합과 구소련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말살되고 소실되어 버렸다. 하지만, 1989년 이후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시금 한국어를 되

살리기 위한 한국어 재생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한국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한국어 교육 정책을 실시해야할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3) 미국 지역의 국외 동포는 1903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이민에 의한 국외 동포와 1965년 이후 대량 이민으로 형성된 동포 사회로 이루어져 있다. 초창기에는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중심으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였지만, 이후 미국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의 이민도 활발해져서, 동포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어 사용 실태 및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미국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와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4) 브라질의 국외 동포 사회는 1966년 농장 경영을 위한 이민에서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 의류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민으로 형성되었다. 대부분의 국외 동포가 브라질의 상파울루시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의류업계에서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브라질 국외 동포의 한국어 교육은 부모 세대들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를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민 1세와 이민 2세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녀 세대인 2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할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한국어 교육은 주로 1970년대 상파울루 소재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일본의 국외 동포 형성은 크게 1945년 이전까지의 외국인 노동자나 강제 연행에 의해서 일본 지역에 정착한 구이민 세대와 그 자손들인 2세, 3세,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일본의 경제 호황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뉴커머’라고 불리는 신이민 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지역의 국외 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북한의 조선어 교육 정책에 자극을 받아서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동화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한국인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둔 교육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위에서 살펴본 국외 동포의 이주 형성사 및 거주국의 정책 그리고 민족문화의 정체성 유지 및 사회 문화 적응 유형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8과 같다. 결국 한국어의 유지 상황은 국외 동포의 내재적 지향 의식 이외에도 국외 동포가 거주하는

나라의 언어 정책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주국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국외 동포 사회에 대한 한국어 보급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8 국외 동포의 구성 및 거주국의 정책 현황

	중국	독립국가연합	미국	브라질	일본
이민시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620~1670 1670~1880 1885~1910 1910~1931 1931 이후	1863~1937 1937~1945 1945~1989 1989년 이후	1903~1945 1945~1964 1965년 이후	1963 이전 1963~1980 1980년 이후	1910 이전 1910~1938 1939~1945 1945~1989 1989년 이후
세대 구성	2, 3세가 주류	3, 4세가 주류	1세가 주류	1, 2세가 주류	2, 3세가 주류
출신 지역	1930년 이전: 현재의 북한지역 (함경도, 평안도) 1930년 이후: 한반도 내지 전지역	현재의 북한지역 (함경도, 평안도)	대부분 남한지역 출신과 소수의 북한 실향민	대부분 남한지역 출신	현재의 남한지역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주 동기	주로 경제적 이유(경제유민)/ 정치적 동기(독립운동)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경제유민)/ 정치적 동기(독립운동)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초기의 노동이민과 후기의 중산층 이민)/ 사회문화적 동기(자녀교육)도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북미 이주의 경유지 역할도 함)	주로 경제적 이유(노동유민)/ 1937~1945년에는 강제징집
계층 배경	다수가 기근과 압제에 떠밀린 농민·유민(流民)의 성격이 강함	다수가 기근과 압제에 떠밀린 농민·유민(流民)의 성격이 강함	초기: 농민, 노동자 중기: 국제결혼여성, 전쟁고아, 유학생 후기: 고학력, 중산층. 초기의 체류자 성격에서 정착 이민의 성격으로 변화	고학력, 중산층 정착 이민의 성격이 강함	다수가 농민과 노동자·체류자와 강제이주자의 성격이 강함
거주국의 민족정책	다원주의 (민족자치허용)	동화주의	동화주의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중국	독립국가연합	미국	브라질	일본
문화 변용 수준		민족문화유지	러시아 문화로의 동화	미국문화로의 동화와 민족문화 유지	브라질 문화 로의 동화와 민족문화유지	일본 문화로의 동화
호칭		중국 조선족	고려인	재미 한인(코리안 아메리칸)	제브 한인	재일 한인
민족 문화 의 정체 성 유지	민족 어	민족어 사용수 준 높음. 최근 들어 젊은 세 대의 민족어 상실 가속	민족어 사용능력 낮음. 러시아어로 의 언어 동화 높 은 수준	2세 이후의 한국어 사용수준 낮음	2세 이후 한 국어·포르투 갈어 이중언어 사용	민족어 사용능력 낮은 수준
	족내 혼	족내혼 비율 높음	족내혼 비율 낮음	2세 이후 족내혼 비 율 낮음	-	족내혼 비율 낮음
	민족 문화	민족문화와 관 습을 유지	러시아 문화로 동화, 중앙아시아 원주 민 문화로는 동화 안됨	한국의 식생활, 명절 유지	-	1, 2세는 일본 문 화에 저항, 3, 4 세는 동화
	민족 정체 성	높은 민족동일 시와 애착심, 이중정체성	높은 민족동일시 와 애착심, 이중 정체성	강한 민족정체성과 민족동일시, 이중정 체성	강한 민족정 체성과 민족 동일시	다양한 정체성 존재
사회문화적 응유형		과거에는 고립 형이 지배적, 1980년대 이후 수용형 증가	초기 고립형이 지 배적.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수 용형 증가, 현재 동화형으로 전환 중	초기 고립형. 현재는 수용형 지배적. 2세 이후에는 동화형으로 전환 중	초기에는 고 립형, 현재는 수용형	초기에는 고립형 이 지배적. 1960 년대이후 수용형 증가. 현재 동화 형으로 전환 중

제3장 조사 방법론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연구는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실태의 배경이 되는 요인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국제 비교 연구는 이후 국외 동포 국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라는 점, 그리고 이후의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길라잡이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외 동포 전체의 언어 사용 실태와 그 배경의 요인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을 모델로 선정하여, 그 지역의 실태를 정치(精緻)하게 파악하여 다른 지역과 비교함으로써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와 그 배경 요인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1. 조사 지역

1.1. 조사 지역 선정 기준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외 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의 전 지역에서 조사 지점 및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random sampling)로 추출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시간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 지역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국외 동포의 이주 역사가 길어서 구이민 세대와 신이민 세대를 조사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이어야 한다.

둘째 국외 동포 수가 많아서 사회적인 변인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인 국외 동포 사회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조사 해당 국가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일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

도록 조사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넷째 조사 지역에 연구 협력자가 거주하여 조사 대상자의 협력을 얻기 쉬운 지역이어야 하며 조사 지역을 한 지역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근 지역도 포함한다.

1.2.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

이상과 같은 조사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조사 국가 및 조사 지역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2010년도 재외동포영사국의 ‘재외 동포 현황’을 참고로 하여 먼저 국외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인구 순으로 5개 국가를 선정하였다(표1 참조). 그리고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1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표2와 그림1 참조).

표 1 국외 동포 현황

	중국	미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브라질
국외 동포 수	2,704,994	2,176,998	904,806	535,679	112,980

2010년 12월 현재 재외동포영사국의 ‘재외 동포 현황’에 의함.

(1) 중국

중국의 조사 지역은 모두 4곳을 선정하였다. 중국에 산재하는 조선족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구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엔지(延吉)와 헤이룽장성 그리고 최근 한국인의 이주와 중국 내 조선족의 이주가 많은 지역으로 베이징과 칭타오를 각각 선정하였다.

(2) 독립국가연합

독립국가연합 조사 지역은 모두 3곳을 선정하였다. 구이민이 많이 거주하는 타슈켄트시와 타슈켄트시를 포함하는 타슈켄트주, 그리고 알마티이다.

(3) 미국

미국의 조사 지역은 이민 역사가 오래된 서부의 로스앤젤레스와 신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동부의 뉴욕과 그리고 남부의 텍사스주이다. 지역을 안배하여 3곳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4) 브라질

브라질은 이민 역사가 짧아 비교적 신이민자가 많으며 동포의 거주 지역도 상파울루 지역에 거의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파울루 1곳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5) 일본

일본은 구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와 나고야,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신이민자가 급증하는 도쿄를 선정하였다.

표2 조사 국가 및 조사 지역

조사국가	조사 지역	비 고
중국	엔지/ 헤이룽장 /베이징 /칭다오	구이민 · 신이민
독립국가연합	타슈켄트시 /타슈켄트주 /알마티	구이민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텍사스	구이민 · 신이민
브라질	상파울루	신이민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구이민 · 신이민

그림1 조사 국가 및 조사 지역



2. 조사 대상자의 선정

2.1. 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

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구이민 세대와 신이민 세대로 나누어서 생각하였다. 구이민 세대는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 국외 동포의 기초가 되는 1세, 그 자손들인 2세, 3세 이후와 같이 세 부류로 분류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신이민을 한 부류로 하여 총 네 부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구이민 세대와 신이민 세대의 구분은 나라에 따라 이주 형성사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5개국 14개 지역이 모두 공통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국외 동포를 신이민이라고 하고(미국의 경우는 1965년 이후에 이주한 사람을 신이민이라고 한다) 그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을 구이민으로 분류하였다. 1세, 2세, 3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세: 피조사자가 한국 지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외 조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5세: 피조사자가 한국 지역에서 출생하여, 미성년일 때 부모를 따라서 이주하여 국외 조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단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1.5세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세: 피조사자가 국외 조사 지역 출신으로, 부모님이 1세인 사람으로서 해당 조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3세: 피조사자 및 부모 중 한 쪽 또는 양쪽 모두 해당 조사 지역 출신이면서 조부모가 1세인 사람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연구팀과 현지의 사정이 밝은 현지 조사원(key person)을 활용한다.

2.2. 조사 대상자 수

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5개국, 14개 지역의 국외 동포 이민 사회의 성격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중국, 미국, 일본은 구이민 세대와 신이민 세대가 공존하는

지역이지만, 독립국가연합은 신이민 세대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숫자가 매우 적으며, 브라질은 구이민 세대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시 존재하더라도 그 숫자가 매우 적다.

이러한 조사 대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그 기준은 최소 조사 인원을 면접 조사는 400명, 심층 면접 조사는 50명으로 하였으며, 해당 조사 지역의 국외 동포 수의 5% 내외로 선정하였다. 물론 조사 대상자 수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언어학적인 조사에서 면접 조사는 400명 이상, 심층 면접 조사는 50명 정도이면 조사에 대한 신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숫자라 하겠다.

표3은 2011년도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한 국외 동포 수 및 그에 따른 면접 조사의 조사 대상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면접 조사 대상자 수는 중국, 미국, 일본은 국외 동포 수가 많기 때문에 각각 500명으로, 독립국가연합과 브라질은 각각 400명으로 하였다. 심층 면접 조사는 모든 국가에서 50명으로 하였다.

표3 조사 지역 국외 동포 수에 따른 조사 대상 인원의 산정

(단위: 명)

		중국	독립국가연합	미국	브라질	일본
국외 동포 수		2,704,994	535,679	2,176,998	112,980	904,806
조사 대상자	면접 조사	500	400	500	400	500
	심층 면접 조사	50	50	50	50	50

3. 조사 방법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1) 국외 동포의 한국어 사용 의식과 한국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양적 조사(면접 조사)와 (2) 조사 대상자의 격식적인 장면과 일상적인 장면에서의 한국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질적 조사(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순서는 먼저 면접 조사를 실시한 후에 조사 국가의 지역적인 특징 및 실태를 파악한 후에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면접 조사

양적 조사인 면접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에게 면접 조사표를 배포하고, 현지 조사원(key person)이 면접 조사표의 항목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조사 방법은 설문지 조사가 가질 수 있는 조사 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사 방법으로,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1.1. 면접 조사 방법

면접 조사는 현지 조사원(key person)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 간의 1대1 면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적인 특성 등 제반 조사 환경을 고려하여 집합조사법도 허용한다.

1) 현지 조사원(key person)의 선정 기준

조사자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현지 조사원(key person)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 대상자와 (친한) 친구이며 자연스럽게 비공식적인 말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일 것.
- (2) 조사 대상자와 동년배 또는 연하이며, 동세대인 사람일 것.
- (3) 지역 이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

일상적인 장면에서의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의 초점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담화를 과연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가 연상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는 상대와 친하다 하더라도, 공손한 말씨로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지 조사원(key person)은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와 동년배이거나 연하가 바람직하다. 또한 현지 조사원(key person)은 조사 대상자와 동세대가 좋다고 생각한다. ‘세대’는 조사 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조건이며, 세대라는 특성이 화자의 언어적 특징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지 조사원(key person)은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목적에 따라 조사 대상자와의 담화 등을 수록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와의 조사 일정 조정, 조사 장소 확보, 조사 장소까지의 이동 등 실제 조사를 실시할 경우,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3)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다.

3.1.2. 면접 조사 시 주의 사항

면접 조사를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면접 조사표 및 부탁의 말씀

(1) 면접 조사표 및 면접 조사 지침서

면접 조사표는 A4판 9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조사 지역 언어의 번역본을 준비하여 조사 지침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지침서는 항목 선정 이유 및 구체적인 조사 방법 등이 각 항목별로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범 조사인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묻는 항목 및 조사 지침서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표 및 조사 지침서는 부록으로 권말에 첨부하였다. 그리고 면접 조사표의 조사 항목 중의 일본, 일본인, 일본어는 조사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예를 들어 중국이라면 중국, 중국인, 중국어를 의미한다. 이하 모든 항목에서 동일하다.

<면접 조사 항목>

Q 300. 귀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면접 조사 지침서>

Q 300.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

- 모국의 문화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가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여기에서의 ‘한국 문화’란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등을 포함하며, 북한 문화도 포함한다.

(2) 조사 협력에 대한 부탁의 말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표 처음 부분에 부탁의 말씀을 기입한다. 조사 협력에 대한 ‘부탁의 말씀’은 조사의 목적 설명, 국립국어원의 소개, 응답자의 개인명을 공표하지 않는다는 취지 설명, 조사자의 연락처(소속,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부탁의 말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탁의 말씀>

본 조사는 한국 국립국어원의 「국의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 유출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연구 책임자 ○○대학교 ○○○ (+82-2-820-○○○○)

2) 면접 조사 실시에 대한 정보

다음과 같이 면접 조사에 대한 조사 정보를 수집한다.

(1) 조사 지역

000. 조사 지역 (오사카, 도쿄)

면접 조사를 실시한 조사 지역을 ○표로 표시한다. 따라서 조사표를 작성할 때 조사 지역(오사카, 도쿄) 등 해당 조사 지역 국가의 지역명을 미리 기입하여 둔다.

(2) 조사 소요 시간

001. 조사 시작 (_____시_____분)

002. 조사 종료 (_____ 시 _____ 분)

조사 시작 시각과 조사 종료 시각을 분 단위로 기입하며, 조사 시작 시각은 1쪽에 기입하며, 조사 종료 시각은 조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쪽에 기입한다. 일본 국립국어연구소(1981)의 조사 시간에 대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은 오후와 석식 이후 시간이, 여성은 오후 2시경부터 4시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조사 시간은 될 수 있으면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양질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이다.

(3) 조사 시의 사용 언어

003. 사용 언어

면접 조사 시 조사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가 한국어로 하는 질문을 못 알아듣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거주국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조사가 끝난 후에 사용 언어(한국어, 해당 조사 지역 언어, 반반)를 기입한다.

(4)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의 확보

004.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 (가. 부) 연락처(_____)

면접 조사에 이어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면접 조사 대상자에게 심층 면접 조사에 응할 수 있는가를 물어 가부를 표시한다. 심층 면접 조사가 가능하다면 연락처를 기입하여 심층 면접 대상자로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조사원

005. 조사원 (_____)

조사원 란에는 조사를 실시한 사람의 이름을 기입한다. 이는 책임 있는 조사와,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후일 조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6) 조사 실시 장소

006. 조사 장소 (_____)

조사를 실시한 장소를 자택, 거실, 연구자의 연구실, 점포, 음식점, 근무처 등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그리고 녹음은 되도록이면 조사 대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 실시한다. 예를 들면 자택의 안방에서 조사를 실시했다면 조사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2 면접 조사의 한 장면



3.1.3. 면접 조사 항목

본 연구는 국외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조사 계획의 수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5개국 14개 지역의 조사 항목은 될 수 있으면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 지역의 언어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없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대체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조사 항목의 선정 이유 및 조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분석 방법 등을 조사표의 설문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1) 조사 대상자의 기본 속성(100~105번)

조사 대상자의 연령, 성별, 출생지, 국적, 이주 이유, 이민 세대, 직업, 학력 등의

기본 속성은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속성 및 범주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령

Q 100.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만 20세 이상으로 하며 만으로 기입한다. 국외 동포 1세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연령의 상한은 없다. 분석할 때는 20~29세, 30~39세 등 10년 간격으로 한다.

(2) 성별

Q 10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성 ②여성

성별은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보고 판단하여 기입한다.

(3) 출생지

Q 102.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①한국 ②북한 ③일본 ④기타(_____)

SQ1. (위의 질문 102에서 ①한국 「②북한」 「④기타」 라고 응답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그러면 귀하는 몇 살 때 일본으로 이주했습니까?

(만_____세)

SQ2. 그러면 현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①한국 ②북한 ③기타(_____)

SQ3. 이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 ②결혼하기 위해서 |
| ③공부를 하기 위해서 | ④이민 경유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
| ⑤부모나 가족을 따라서 | ⑥기타(_____) |

출생지는 한국, 북한, 기타라고 답한 경우에는 보충 질문으로 해당 조사 국가에 이주한 당시의 연령을 묻는다. 이는 언어 형성기(5세~15세)를 어디에서 거주 했는

가를 살피기 위해서 이다. 국적 및 이주 이유는 한국어와 거주국의 언어와의 접촉, 그리고 자기 정체성 및 언어에 대한 태도의 정도가 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4) 이주 세대

Q 103. 이주 몇 세대입니까?

- ①1세대 ②1.5세대 ③2세대
④3세대 ⑤4세대 ⑥기타(_____)

어느 세대에 이주하였는가에 따라 언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주 세대를 분류하기는 쉽지 않지만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원칙으로 한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1.5세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미국 등에서는 1.5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세대 구분은 본 장 2절 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따른다.

(5) 직업

Q 104.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농림·어업·임업 ②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 ③단순 노무
④판매·서비스직 ⑤사무직 ⑥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
⑦전업 주부 ⑧학생 ⑨무직 및 기타(_____)

직업은 9단계로 분류하였다.

(6) 학력

Q 105. 최종으로 졸업한 학력과 지역을 ()안에서 골라 ○표를 해주세요.

- ①초등학교(한국, 북한, 일본, 기타)졸업 ②중학교(한국, 북한, 일본, 기타)졸업
③고등학교(한국, 북한, 일본, 기타)졸업 ④대학(한국, 북한, 일본, 기타)졸업
⑤대학원 (한국, 북한, 일본, 기타)졸업 ⑥무학

최종 학력은 조사 국가나 지역에 따라 교육 제도가 서로 다르므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중퇴는 하위 학교 졸업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중퇴일 경우는 중학교 졸업으로 한다.

2) 사회생활 환경(200~202번)

다음 3항목은 사회생활 환경이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민 시기와 이민 세대 그리고 성차 등 사회적인 속성에 따라 조국과의 왕래 빈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일상적인 교제 대상과 동포와의 교제 빈도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언어 사용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국과의 왕래나 일상적인 교제, 나아가서는 동포와의 교제가 빈번하지 않다면 한국어나 한국 문화와의 접촉도도 감소할 것이며 언어 사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항목은 사용 언어 선택(한국어와 거주국의 언어)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한다.

(1) 조국과의 왕래

Q 200. 귀하는 한국에 어느 정도 갑니까?

- ①1년에 1회 이상 ②2~3년에 1회 정도 ③4~5년에 1회 정도
④5~10년에 1회 정도 ⑤10년 이상에 1회 정도 ⑥모르겠다

(2) 일상적인 교제 대상

Q 201. 귀하는 동포와 일본인 중 주로 어떤 사람과 교류합니까?

- ①주로 동포와 교류한다 ②대부분 동포와 교류한다
③동포와 일본인 반반 정도이다 ④대부분 일본인과 교류한다
⑤주로 일본인과 교류한다 ⑥모르겠다

(3) 동포와의 교제 빈도

Q 202. 귀하는 일상적으로 동포와는 어느 정도 만납니까?

- ①하루에 1회 이상 ②2~3일에 1회 정도 ③일주일에 1회 정도
④1달에 1회 정도 ⑤2~3달에 1회 정도 ⑥모르겠다

3) 한국 문화와 거주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300~302번)

국의 동포는 한국 문화와 거주국 문화와의 접촉이 예상되며, 두 문화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전승도 그리고 거주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 등은 사회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 3항목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의 정도, 차세대에 한국 문화를 전승하고 싶은가, 거주국 문화에는 적응하기 쉬운가를 질문하여 자기 정체성과 언어 사용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1)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

Q 300. 귀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2) 차세대에 대한 한국 문화의 전승도

Q 301. 귀하는 한국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3) 거주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

Q 302. 귀하는 일본 문화에 적응하기 쉬운 편입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4) 언어 지향 의식(400~402번)

다음 3항목을 통해서 동포라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어가 유창한 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녀와 손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의향이 있는가를 물음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지향 의식을 알아본다. 따라서 이 항목은 동포라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어가 유창한 동포는 민족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항목이 실제 한국어 사용과 얼마만큼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이다. 그리고 한국어 지향 의식이 높을수록 한국어 사용률이 높은지 아니면 지향 의식과 실제 언어 사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조사 항목 Q 402와 SQ3 항목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

(1) 한국어에 대한 언어 태도

Q 400. 귀하는 동포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2)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동포에 대한 언어 지향 의식

Q 401. 귀하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동포는 민족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3) 차세대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향

Q 402. 귀하는 자신의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SQ1 (위의 질문 402에서 「①매우 그렇다」 또는 「②약간 그렇다」 고 응답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그러면 가르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취직이나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②가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③한국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④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⑤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싶기 때문에
⑥기타(_____)

SQ2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까?

- ①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을 정도 ②길을 물을 수 있을 정도

- ③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을 정도 ④어떤 상황이든지 불편이 없을 정도
 ⑤완벽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 ⑥기타(_____)

SQ3 (위의 질문 402에서 「③별로 그렇지 않다」 또는 「④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그러면 가르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일본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②장래의 취직 때문에
 ③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④교육 내용상의 장점 때문에
 ⑤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받기 싫기 때문에 ⑥기타(_____)

5) 자기 정체성(500~502번)

다음 3항목은 언어 사용과 자기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각국의 언어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씨와 자기 정체성을 연관시켜 분석할 수 있는 국가도 있으나 불가능한 국가도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스포츠 경기 응원 항목은 조사가 불가능한 항목이다. 대체 항목으로 ‘이후에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은가’, ‘어느 정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식 성(통명)의 사용이 이민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통명 사용 의식과 자기 정체성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스포츠 응원에 관한 항목은 세대별, 국가별로 결과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의 결혼관에 대해서는 구이민 세대와 신이민 세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식 성과 거주국식 성씨(통명)의 사용 의식

Q 500. 귀하는 한국식 성과 일본식 성(통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①한국식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②일본식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양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④모르겠다

(2) 스포츠 경기 응원팀

Q 501. 귀하는 조국 팀과 일본 팀이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어느 쪽 팀을 응원합니까?

- ①조국 팀을 응원한다 ②일본 팀을 응원한다
③양쪽 팀을 응원한다 ④모르겠다

(3) 차세대 결혼관

Q 502. 귀하는 다음 세대 동포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동포끼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②**일본인**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③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④모르겠다

6) 한국어 4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600~603번)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4기능을 난이도별로 자기 평가하도록 하여, 실제 한국어 사용 실태와 얼마만큼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국어 4기능 선택지의 난이도 설정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평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등급별 평가는 ‘잘 못 한다’는 초급(1급), ‘조금 한다’는 초급(2급), 중급(3급), 중급(4급), ‘잘 한다’는 고급(5급), 고급(6급)에 준하여 설정하였다. 분석은 응답을 4단계 등간격 척도로 변환하여 ‘잘 한다’=4점, ‘조금 한다’=3점, ‘잘 못 한다’=2점, ‘전혀 못 한다’=1점, ‘모르겠다’=0점과 같이 점수화한다.

(1)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Q 600.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 ①잘 한다 ②조금 한다 ③잘 못한다 ④전혀 못 한다 ⑤모르겠다

(1)자기 소개하기나 물건사기 등과 같은 기초적인 대화	① ② ③ ④ ⑤
(2)자신의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	① ② ③ ④ ⑤
(4)연설, 토의, 통역 등 전문적인 대화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Q 601.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 ①잘 이해한다 ②조금 이해한다 ③잘 못 이해한다
 ④전혀 이해 못 한다 ⑤모르겠다

(1)인사말 등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광고, 일기예보 등의 실용적 담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뉴스를 대체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적인 내용의 연설, 토의 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Q 602.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 ①잘 읽는다 ②조금 읽는다 ③잘 못 읽는다 ④전혀 못 읽는다 ⑤모르겠다

(1)간단한 광고나 간판 등의 안내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편지,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잡지, 신문 등 평이한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분야의 서적이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Q 603.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 ①잘 쓴다 ②조금 쓴다 ③잘 못 쓴다 ④전혀 못 쓴다
 ⑤모르겠다

(1)간단한 사물 이름, 위치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거주국어 4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700~703번)

조사 대상자의 거주국 언어의 4기능을 난이도별로 자기 평가하도록 한다. 난이도 설정 및 분석 방법은 한국어 4기능과 같다.

Q 700. 귀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 ①잘 한다 ②조금 한다 ③잘 못한다 ④전혀 못 한다 ⑤모르겠다

(1)자기 소개하거나 물건사기 등과 같은 기초적인 대화	① ② ③ ④ ⑤
(2)자신의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	① ② ③ ④ ⑤
(4)연설, 토의, 통역 등 전문적인 대화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Q 701. 귀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 ①잘 이해한다 ②조금 이해한다 ③잘 못 이해한다
④전혀 이해 못 한다 ⑤모르겠다

(1)인사말 등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광고, 일기예보 등의 실용적 담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뉴스를 대체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적인 내용의 연설, 토의 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Q 702. 귀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 ①잘 읽는다 ②조금 읽는다 ③잘 못 읽는다 ④전혀 못 읽는다
⑤모르겠다

(1)간단한 광고나 간판 등의 안내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편지,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잡지, 신문 등 평이한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분야의 서적이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Q 703. 귀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①잘 쓴다 ②조금 쓴다 ③잘 못 쓴다 ④전혀 못 쓴다 ⑤모르겠다

(1)간단한 사물 이름, 위치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상대와 장면에 따른 언어 선택(800~801번)

다음 2항목은 실질적인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먼저 가족 구성원 별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파악함으로써 세대 간의 한국어 사용 차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장면에 따른 언어 선택을 파악하기 위해 동포 사회 내부와 외부, 격식적인 자리와 비격식적인 자리에서의 사용 언어를 분석한다. 격식적인 자리일수록 한국어 사용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부합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암산이나 기도할 때의 사용 언어가 제1언어(L1)의 영향을 받는지, 세대에 따라 제1언어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분석한다. 조사 항목에 제1 언어가 어느 언어인가를 조사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가족 간의 사용 언어

Q 800. 귀하는 다음의 가족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귀하 →가족)

사용하는 언어를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보기> ①대부분 한국어로 한다 ②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많다
 ③반반씩이다 ④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많다
 ⑤대부분 일본어로 한다 ⑥모르겠다

귀하가 말을 거는 상대			사용 언어
관 계	유 무	국 적	선 택 지
(1)조부	① ②	한국. 북한. <u>일본</u> .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2)조모	① ②	한국. 북한. <u>일본</u> .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3)아버지	① ②	한국. 북한. <u>일본</u> .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4)어머니	① ②	한국. 북한. <u>일본</u> .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5)배우자	① ②	한국. 북한. <u>일본</u> .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6)형제	① ②	한국. 북한. <u>일본</u> .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7)자매	① ②	한국. 북한. <u>일본</u> .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8)자녀	① ②	한국. 북한. <u>일본</u> .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9)손자/손녀	① ②	한국. 북한. <u>일본</u> .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10)사위	① ②	한국. 북한. <u>일본</u> .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11)며느리	① ②	한국. 북한. <u>일본</u> .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12)기타()	① ②	한국. 북한. <u>일본</u> .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SQ1. 그러면 가족이 귀하와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가족→귀하)

위의 질문 800번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가족→귀하	사용 언어	가족→귀하	사용 언어
관 계	선택지	관 계	선택지
(1)조부	① ② ③ ④ ⑤ ⑥	(7)자매	① ② ③ ④ ⑤ ⑥
(2)조모	① ② ③ ④ ⑤ ⑥	(8)자녀	① ② ③ ④ ⑤ ⑥
(3)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9)손자/손녀	① ② ③ ④ ⑤ ⑥
(4)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10)사위	① ② ③ ④ ⑤ ⑥
(5)배우자	① ② ③ ④ ⑤ ⑥	(11)며느리	① ② ③ ④ ⑤ ⑥
(6)형제	① ② ③ ④ ⑤ ⑥	(12)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2) 동포와의 장면별 사용 언어

Q 801. 귀하는 **한국어가 가능한 동포**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사용하는 언어를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보기> ①대부분 한국어로 한다 ②한국어가 일본어 보다 많다 ③반반씩이다 ④ 일본어 가 한국어보다 많다 ⑤대부분 일본어 로 한다 ⑥모르겠다

(1)동포가 모이는 공식적인 모임에서 이야기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2)동포와 개인적인 식사나 술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3)동포가 경영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①	②	③	④	⑤	⑥
(4)길거리에서 서서 동포와 이야기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5)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동포와 이야기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6)동포와 말다툼을 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SQ1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의 질문 801번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1)암산이나 셈을 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2)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①	②	③	④	⑤	⑥
(3)꿈을 꿀 때	①	②	③	④	⑤	⑥

9) 한국어 교육(900~902번)

다음 3항목은 이후 한국어 교육 입안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먼저 거주국에서 태어나거나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주한 조사 대상자 중에서 한국어 학습 경험에 있는 경우, 학습 기관, 학습 기간, 학습 동기 등을 묻는다. 학습 경험이 없는 조사 대상자에게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가, 학습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희망하는 학습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다. 마지막으로 이후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고르도록 한다. 여기서는 특히 구이민 세대의

- ①통학의 어려움 ②교육시설의 부실
③수업료의 부담 ④교육 내용의 부실
⑤교사의 지도 능력 부족 ⑥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의 차이나 이질감
⑦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 ⑧기타()

- ①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 ②한국에 가 보고 싶어졌다.
- ③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다.
- ④취직이나 진학할 때 유리했다.
- ⑤가족이나 친척들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⑥장래에 한국에 가서 취업하거나 생활하고 싶어졌다.
- ⑦그다지 없다
- ⑧기타()

(2) 한국어 학습 희망

Q 901. (위의 질문 900에서 「②없다」 고 응답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귀하는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 ①그렇다 ②아니다 ③모르겠다

SQL (위의 질문 901에서 「①그렇다」 고 응답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그러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를 답해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 ①취직이나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 ②지금하고 있는 일이나 전공에 필요하기 때문에
- ③한국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 ④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 ⑤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 ⑥외국어 습득의 하나로
- ⑦장래에 한국에서 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 ⑧조부모, 부모, 가족, 친척,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 ⑨기타()

SQ2 귀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습니까?

- ①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을 정도 ② 길을 물을 수 있을 정도
 ③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을 정도 ④ 어떤 상황이든지 불편이 없을 정도
 ⑤ 완벽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 ⑥ 기타()

(3)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

Q 902. 귀하는 이후 한국어 교육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보기>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약간 중요하다 ③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⑤ 모르겠다

(1)정치	① ② ③ ④ ⑤	(5)역사	① ② ③ ④ ⑤
(2)경제	① ② ③ ④ ⑤	(6)사회생활	① ② ③ ④ ⑤
(3)사회	① ② ③ ④ ⑤	(7)일상생활	① ② ③ ④ ⑤
(4)문화	① ② ③ ④ ⑤	(8)기타()	① ② ③ ④ ⑤

3.2. 심층 면접 조사

심층 면접 조사는 기업 등에서 마케팅 조사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특정 주제를 주고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심층 면접 조사는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의 답변에 맞춰 그때그때 질문 내용을 바꿈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마음속 얘기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층 면접 조사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1) 한국어의 사회적 역할과 한국어 교육

거주국에서의 한국어의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이주 초기의 국외 동포 사

회에서 한국어의 사회적 역할은 어떠했으며, 현재 한국어의 역할과 앞으로의 역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전개해야 좋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 고찰한다.

(2) 한국어의 유지 및 변종 수집

한국어 모어 화자가 사용하는 한국어와 국외 동포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한국어 간에 어떠한 공통점과 상이점(음성면, 문법면, 어휘면 등)이 있으며, 구이민과 신이민의 세대 간 또는 개인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인 변인에 따른 변종을 수집하여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한다.

3.2.1. 심층 면접 조사 방법

1)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

심층 면접 조사는 면접 조사에 참가한 조사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최선이나, 면접 조사 응답자가 아니더라도 면접 조사 응답자의 지인 등,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면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아울러 구이민은 될 수 있으면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이민은 해당 거주국의 언어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심층 면접 시 주의할 점

일상적인 장면에서 자연스러운 담화를 수집하기 위해 현지 조사원(key person)과 연구팀의 조사자가 심층 면접 조사 지침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자와 주고받는 대화를 녹음한다. 하지만 녹음 기재를 눈앞에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태 그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담화 분석 및 고찰 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3.2.2. 심층 면접 조사표 및 주의 사항

1) 심층 면접 조사표

심층 면접 조사표는 A4판 2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접 조사와 달리 선택지가 없으며 특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조사는 심층 면접 조사 지침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지침서에는 조사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 조사 시 사용한 조사 항목 및 조사 지침서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표 및 조사 지침서는 권말에 부록으로 첨부한다.

<심층 면접 조사 항목>

Q 8. 이 지역의 재일 한국인이 사용하는 말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는 어떤 점이 가장릅니까?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심층 면접 조사 지침서>

Q 8. 이 지역의 재일 한국인이 사용하는 말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는 어떤 점이 가장릅니까?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주위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민단계 재일 동포나 조선학교 출신의 재일 동포가 있을 경우, 그들의 언어와 실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와의 이질감을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조선학교 출신뿐만 아니라 민단계 재일 동포라도 재일 동포 특유의 말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에 민감한 사람은 차이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의 말투가 한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와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 본인은 한국어 사용에 있어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말투에는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억양, 어휘, 표현 등 조사 대상자가 평상시에 느끼던 점을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2세나 3세의 경우 부모와 조부모가 어느 지역(남한 또는 북한) 출신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면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은 어떠

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추가로 묻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조선어를 존중해야 된다, 남북한의 절충식이 좋다 등 유도 질문 여하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 정보에 대한 배려 약속

심층 면접 조사에서 실시한 녹음 등 담화 자료를 공표할 때는 자료의 공표에 대해서 응답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응답자에게 약속하고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다.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는 조사의 목적 설명, 국립국어원의 소개, 응답자의 개인명을 공표하지 않는다는 설명, 조사자의 연락처(소속, 이름,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여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과제명 : 국외 동포 실태 조사 기초 연구

본 연구는 국외 동포 실태 조사 기초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위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귀하의 자료를 귀하의 동의하에 정리, 분석, 보고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연구의 연구자 및 보고 업무를 위임 받은 기관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자료는 익명 처리한 상태로 사용되며 위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공유 및 활용되며, 개인 정보로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귀하는 위 정보 공유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위 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경우 아래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본 연구 과정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 책임자: ○○○(소속)

(2) 전화번호: 82-○○-○○○-○○○○

· 조사 대상자 이름 : _____

· 조사 대상자 서명 : _____

· 서명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3) 심층 면접 조사 실시에 대한 정보

(1) 조사 정보

조사 실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그리고 조사 장소 등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다.

- 조사 시작 시간 · 조사 종료 시간

(2) 녹음 시 유의 사항

녹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녹음할 때는 녹음기 2대를 이용한다. 이는 녹음기 상태가 불량하여 녹음이 잘 안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만약을 위해서이다.

(3) 녹음 소요 시간

녹음 시간은 30분에서 40분을 기본으로 하고 최장 1시간 이내로 하며, 될 수 있으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녹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조사 시간을 30~40분으로 설정한 것은 연구 분석에 적합한 양의 자료 확보와 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이다.

(4) 조사 준비물

조사에 대한 답례품은 조사를 마친 다음에 전달한다.

- 조사 지침서 1부 · 녹음기 2대 · 필기구 1식 · 예비 건전지 2개
- 답례품

(5) 조사 시의 사용 언어

심층 면접 조사 시의 사용 언어는 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응답자가 한국어로 하는 질문을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거주국의 언어를 사용한다. 조사자가 조사 시에 사용한 언어를 예를 들면 한국어, 거주국 언어, 반반 등으로 기입하여 둔다.

(6) 조사 실시 장소

조사 장소는 연구실 등 될 수 있으면 양질의 자료를 녹음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바람직하다.

3.2.3. 심층 면접 조사 항목

1) 조사 대상자의 기본 속성

조사 대상자의 기본 속성은 될 수 있는 한 조심스럽게 질문한다. 특히 가족의 이주 시기와 직업, 학력 등 조사 대상자가 꺼리지 않는다면 자세하게 파악한다. 그리고 한국의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서 통용되는 통명을 사용하는지 이 단계에서 질문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연령 · 성별 · 출생지 · 현주소 · 국적
- 이주 시기 · 이주 세대 · 직업 · 학력

2) 심층 면접 조사 항목

(1) 한국어 학습 경험

Q1. 한국어는 언제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어를 언제 어디에서 학습했는지를 묻는다. 또한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한다.

(2) 거주국 언어 습득

Q2. 거주국 언어는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배웠습니까?

거주국 언어를 언제 어디에서 학습했는지를 묻는다. 또한 거주국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한다.

(3) 가족과의 동거 여부

Q3. 가족과 함께 지냅니까?

- ①네 ②아니오(4번 항목으로 이동)

SQ1. (‘①네’라고 답한 사람에게)

그러면 가정 내에서는 가족들에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면접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을 묻고 구성원 각각과의 사용 언어를 상세하게 묻는다. 부모 세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모 세대의 이주 시기와 출신지를 파악하여 둔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연령과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사회인이 라면 졸업한 학교를 파악하고 한국어 학습의 유무를 묻는다. 만약 자녀가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거나 잘 못 한다면, 장차 한국어 교육을 받게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다.(예를 들어 한글학교에서의 학습, 민족학교로의 진학, 한국으로의 어학 연수 등). 한국어 교육을 받게 할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다.

(4) 한국어 사용 경험

Q4.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족이나 동포, 그리고 한국인 등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5번 항목으로 이동)

SQ1. (‘①있다’고 답한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하관계. 친소관계. 사업상 등)

SQ2. 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한국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외 동포 중에서 어떤 상대와 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가를 파악한다.

(5) 화제에 따른 한국어 사용

Q5. 어떤 화제에서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동포끼리의 대화에서 어떤 화제 때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를 묻는다.

재일 한국인 시범 조사에서는 친족 호칭, 제사 지낼 때, 싸움을 할 때 한국어 사용이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응답이 안 나올 때는 유도 질문할 수 도 있다.

(6)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대

Q6. 어떤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어떤 상대에게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를 묻는다. 예를 들면 상하관계, 친소관계, 가족 등이다.

(7) 장래의 바람직한스러운 한국어 교육

Q7.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한국 정부의 지원과 연계, 강사의 자질, 체계성과 전문성의 필요, 학습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한국 문화와 사회, 정치 등과 연관시켜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대답하기 쉽지만, 한국어 경험이 전혀 없다면 질문자가 능숙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8) 한국어의 차이점

Q8. 이 지역의 재일 한국인이 사용하는 말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는 어떤 점이 가장 다른니까?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주위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민단계 재일 동포나 조선학교 출신의 재일 동포가 있을 경우, 그들의 언어와 실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와의 이질감을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조선학교 출신뿐만 아니라 민단계 재일 동포라도 재일 동포 특유의 말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에 민감한 사람은 차이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의 말투가 한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와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 본인은 한국어 사용에 있어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말투에는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역양, 어휘, 표현 등 조사 대상자가 평상시에 느끼던 점을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2세나 3세의 경우 부모와 조부모가 어느 지역(남한 또는 북한) 출신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면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추가로 묻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조선어를 존중해야 된다, 남북한의 절충식이 좋다 등 유도 질문 여하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9) 한류에 대한 의견

Q9. 최근의 한류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 세계 각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연관 지어 물을 수 있을 것 같다. 동포라고 해서 모두가 한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며, 한류 그리고 한국에 대한 생각, 이미지, 문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피조사자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미지와 현재 살고 있는 일본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하여 문화에 대한 적응도나 호감도 파악도 가능할 것이다.

(10) 사회적인 처우

Q10. 제일 한국인의 일본 및 한국에서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일본에서 제일 한국인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한국에서 제일 한국인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4. 분석 방법

4.1. 면접 조사 분석 방법

면접 조사에서는 먼저 조사 대상자의 기본 속성을 파악한 후 사회적 변인(이민 시기, 이민 세대, 이민 사유, 성별, 직업, 학력)이 한국어 사용 실태와 사용 언어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한다. 특히 이민 세대는 사용 언어 선택과 연관성이 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대별, 연령별로 분류한다. 다음은 면접 조사의 항목별 분석 방법이다.

4.1.1. 단순 분석

분석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실시하며 5개국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는 질문문과 응답 카테고리별로 단순 집계 결과를 제시한다. 기본 속성은 사회언어학적 조사 연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연령별, 성별, 학업별, 직업별, 세대별, 지역별로 단순 집계하여 부록으로 첨부한다. 단순 집계 자료는 계속 조사나 통시적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재일 한국인 시범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모어의 전승 의식’에 대한 단순 집계표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4 ‘모어 전승 의식’의 단순 집계표

		400. 귀하는 동포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세대	구이민 1세	1 (50.0)	-	1 (50.0)	-	0	-	0	-	0	-
	구이민 2세	5 (31.3)	0	9 (56.3)	1 (100.0)	2 (12.5)	0	0	-	0	0
	구이민 3세	4 (17.4)	2 (40.0)	12 (52.2)	2 (40.0)	6 (26.1)	1 (20.0)	0	-	1 (4.3)	0
	구이민 4세	-	3 (60.0)	-	2 (40.0)	-	0	-	-	-	0
	신이민 1세	16 (45.7)	13 (65.0)	13 (37.1)	5 (25.0)	4 (11.4)	1 (5.0)	2 (5.7)	-	0	1 (5.0)
	신이민 2세	3 (75.0)	-	1 (25.0)	-	0	-	0	-	0	-

		400. 귀하는 동포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학력	저학력	-	-	-	-	-	-	-	-	-	-
	중학력	9 (56.3)	4 (66.7)	6 (37.5)	2 (33.3)	1 (6.3)	0	0	-	0	0
	고학력	20 (32.3)	14 (56.0)	28 (45.2)	8 (32.0)	11 (17.7)	2 (8.0)	2 (3.2)	-	1 (1.6)	1 (4.0)
직업	농림	-	-	-	-	-	-	-	-	-	-
	기계	0	0	1 (100.0)	0	0	0	0	-	0	0
	단순노무	-	-	-	-	-	-	-	-	-	-
	서비스	0	0	2 (100.0)	0	0	0	0	-	0	0
	사무직	9 (56.3)	4 (66.7)	4 (25.0)	1 (16.7)	3 (18.8)	1 (16.7)	0	-	0	0
	전문가	9 (32.1)	7 (58.3)	12 (42.9)	3 (25.0)	4 (14.3)	1 (8.3)	2 (7.1)	-	1 (3.6)	1 (8.3)
	주부	6 (40.0)	2 (50.0)	5 (33.3)	2 (50.0)	4 (26.7)	0	0	-	0	0
	학생	3 (37.5)	4 (66.7)	5 (62.5)	2 (33.3)	0	0	0	-	0	0
	무직	2 (22.2)	1 (33.3)	6 (66.7)	2 (66.7)	1 (11.1)	0	0	-	0	0

4.1.2. 교차 분석

각 항목을 항목별로 단순 집계 분석한 다음, 몇 개의 항목을 상호 교차시켜 각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 분석한다. 교차 분석이란 속성과 속성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단순한 항목별 분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경향성을 살필 수 있다.

1) 기본 속성의 교차 분석의 예

기본 속성은 다양하게 교차 분석하여 기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5는 제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 조사 시의 기본 속성인 세대별×직업별×지역별 속성을

교차 분석한 예이다. 분석 결과 구이민 1세인 2명은 각각 사무직과 전문가였으며, 구이민 2세와 3세는 전문가와 사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신이민 1세도 전문가와 사무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세대별×직업별×지역별 교차 분석의 예 실수(%)

	구이민 1세		구이민 2세		구이민 3세		구이민 4세		신이민 1세		신이민 2세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농림	0	-	0	0	0	0	-	0	0	0	0	-
기계	0	-	1 (6.3)	0	0	0	-	0	0	0	0	-
단순 노무	0	-	0	0	0	0	-	0	0	0	0	-
서비스	0	-	1 (6.3)	0	2 (8.7)	0	-	0	0	0	0	-
사무직	1 (50.0)	-	1 (6.3)	0	6 (26.1)	2 (40.0)	-	0	8 (22.9)	4 (20.0)	0	-
전문가	1 (50.0)	-	5 (31.3)	0	7 (30.4)	1 (20.0)	-	0	15 (42.9)	11 (55.0)	0	-
주부	0	-	3 (18.8)	0	4 (17.4)	1 (20.0)	-	0	8 (22.9)	3 (15.0)	0	-
학생	0	-	0	0	4 (17.4)	1 (20.0)	-	5 (100.0)	0	0	3 (100.0)	-
무직	0	-	4 (25.0)	1 (100.0)	1 (4.3)	0	-	0	4 (11.4)	2 (10.0)	0	-
합계	2 (100.0)	-	16 (100.0)	1 (100.0)	23 (100.0)	5 (100.0)	-	5 (100.0)	35 (100.0)	20 (100.0)	3 (100.0)	-

2) 항목별 교차 분석의 예

표6은 제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 조사 시의 ‘모어 전승 의식’에 대해서 ‘사회생활 환경’, ‘민족 정체성’, ‘모어 학습 경험의 유무’ 등 사회언어학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원용하여 예를 들면 Q4‘언어 지향 의식’과 Q6‘한국어 4기능’과 교차 분석하여 어느 요인이 언어 지향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다.

분석 결과, 자녀와 손자 세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한국을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제 범위에서는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민족 정체성에 관해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일본 문화에 대한 적응도는 낮아지는 반면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포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과 스포츠 응원에 있어서 조국 팀을 응원하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어 학습 경험이 있는 경우,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6 모어 전승 의식과 사회언어학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402번. 자신의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한국방문 (200)	자주 간다	70.3	90.9	26.6	9.1	0.0	-	-	-	3.1	-
	가끔 간다	33.3	25.0	50.0	75.0	16.7	-	-	-	0.0	-
교제범위 (201)	주로 동포	78.6	87.5	21.4	12.5	0.0	-	-	-	0.0	-
	반반	57.1	80.0	40.0	20.0	2.9	-	-	-	0.0	-
	주로 일본인	62.5	87.5	21.9	12.5	6.3	-	-	-	9.4	-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300)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68.6	84.6	30.0	15.4	0.0	-	-	-	1.4	-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22.2	75.0	33.3	25.0	22.2	-	-	-	22.2	-
이문화 적응도 (302)	적응하기 쉽다	61.7	83.3	30.0	16.7	5.0	-	-	-	3.3	-
	적응하기 어렵다	80.0	85.7	20.0	14.3	0.0	-	-	-	0.0	-
동포들의 한국어 사용 (400)	그렇다	68.8	85.7	26.6	14.3	3.1	-	-	-	1.6	-
	그렇지 않다	50.0	50.0	35.7	50.0	7.1	-	-	-	7.1	-
스포츠 응원 (501)	조국팀	79.2	96.3	18.9	3.7	0.0	-	-	-	1.9	-
	양쪽	44.4	0.0	50.0	100.0	5.6	-	-	-	0.0	-
	일본팀	0.0	0.0	50.0	0.0	50.0	-	-	-	0.0	-
모어 학습경험 (900)	있다	47.5	63.6	42.5	36.4	5.0	-	-	-	5.0	-
	없다	20.0	0.0	60.0	0.0	20.0	-	-	-	0.0	-

4.2. 심층 면접 조사 분석 방법

심층 면접 조사에서는 담화를 녹음한 다음, 녹음 자료를 문자화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 결과를 분석한다.

4.2.1. 한국어 사용 실태 분석

사회적 변인 중 이민 시기, 이민 세대, 성별로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사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격식적인 장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한다.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함과 동시에 사용 언어 선택의 양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비격식적인 장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포 간의 담화 자료에 나타난 한국어와 거주국 언어의 사용 형태를 분석한다.

4.2.2. 한국어 유지 및 변종 수집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능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으며 거주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담화 자료는 필요한 부분을 문자화하여 사용한다. 문자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어의 문법적, 어휘적 특이성과 한국어와 거주국 언어의 이중 언어 병용 양상 등을 분석한다. 한국어의 발음, 악센트와 같은 음성적 특이성에 관해서는 녹음 파일로 전환하여 보관하고 별도로 기술한다.

제4장 재일 한국인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재일 한국인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일 한국인의 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면접 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두 가지 형태의 조사를 실시한 것은 재일 한국인들의 한국어 사용 의식과 한국어 사용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1절에서 면접 조사의 개요 및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제2절에서는 심층 면접 조사의 개요 및 한국어 사용 실태와 중간언어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면접 조사

1.1. 조사 지역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재일 한국인 밀집 지역인 오사카 지역과 1980년대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신이민 세대가 정착하여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도쿄 지역을 선정하였다.

1.2. 조사 대상자

면접 조사는 현지 조사원(key person) 4명의 협력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 9월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실시하였다. 면접 조사는 오사카 지역에서 81명, 도쿄 지역에서 31명, 총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기본 속성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조사 대상자의 기본 속성

세대 지역		구이민					신이민		합계	
		1세	1.5세	2세	3세	4세	1세	2세		
오사카 지역	남	1		7	10		10	1	29	81
	여	1	1	8	14		25	3	52	
도쿄 지역	남			1	3	4	8		16	31
	여				2	1	12		15	
합계		2	1	16	29	5	55	4	112	
		53					59			

조사 대상자의 남녀 비율은 남성 45명, 여성 67명이다. 구이민과 신이민을 세대 별로 분류하여 보면, 구이민은 1세 2명, 1.5세 1명, 2세 16명, 3세 29명, 4세 5명으로 총 53명이며 신이민은 1세 55명, 2세 4명으로 총 59명이다. 이하에서는 인원수가 가장 많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구이민에서는 2세 16명과 3세 29명, 신이민에서는 1세 55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구이민에서는 1세 2명, 1.5세 1명, 4세 5명, 신이민 2세 4명은 조사 대상자 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3. 조사 방법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조사 지역 및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현지 조사원(key person)을 통해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일상적인 장면에서의 자연스러운 담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지 조사원이 면접 조사표를 가지고 각각의 항목을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1.3.1. 현지 조사원(key person)의 도입

현지 조사원은 조사 대상자로부터 자연스러운 담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람으로, 조사 대상자와 동년배 또는 연하이며 동포 사회를 잘 알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4명을 선정하였다.

- 오사카 지역 - 서운순(도시샤 대학, 교수)
임현수(간사이 대학, 강사)
- 도쿄 지역 - 김경분(메이세이 대학, 교수)
유혜정(오비린 대학, 강사)

위의 4명은 각 동포 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접촉도가 높으며, 사회언어학에 대한 지식을 갖춘 연구자이다. 면접 조사 시에는 사회언어학 지식을 기초로 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위 4명의 현지 조사원에게 조사 협력을 부탁하였다.

1.3.2. 사용 언어

조사자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응답자가 한국어로 하는 질문을 못 알아듣는 등 부득이할 경우에 한해 일본어를 사용하였다.

1.3.3. 조사 시간

면접 조사 시간은 약 30분~40분, 최대 1시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는 질적, 양적 연구 모두 적합한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한 시간이다.

1.4. 조사 항목

면접 조사표는 다음과 같으며 한국어를 모르는 응답자를 위해 일본어 번역본도 준비하였다. 아울러 조사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사 지침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조사표 및 조사 지침서, 심층 면접 조사표 및 지침서는 권말에 부록으로 첨부한다. 앞의 3자리 숫자는 조사 항목 번호이다.

001~006 조사 정보

조사 지점, 조사 개시 시간, 조사 종료 시간, 사용 언어,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 연락처, 조사원 이름, 조사 장소,

Q 100~105. 조사 대상자의 기본 속성

조사 대상자의 연령, 성별, 세대, 학력, 직업

Q 200~202. 사회생활 환경

- ①조국과의 왕래
- ②일상적인 교재 상대
- ③동포와의 교재 빈도

Q 300~302. 한국 문화와 이문화 적응

- ①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
- ②차세대에 대한 한국 문화의 전승도
- ③일본 문화에 대한 적응도

Q 400~402. 언어 지향 의식

- ①동포들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 태도
- ②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동포에 대한 언어 지향 의식
- ③차세대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향

Q 500~502. 자기 정체성

- ①한국식 성과 일본식 성(통명)의 사용 의식
- ②스포츠 경기 응원팀
- ③재일 한국인의 차세대 결혼관

Q 600~603. 한국어의 언어 4기능

한국어의 네 가지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Q 700~703. 일본어의 언어 4기능

일본어의 네 가지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Q 800~801. 상대와 장면에 따른 언어 선택

- ①가족 간의 사용 언어
- ②동포와의 장면별 사용 언어

Q 900~902. 한국어 교육

- ①한국어 학습 경험
- ②한국어 학습 희망
- ③앞으로의 한국어 교육

1.5. 조사 결과

여기에서는 오사카, 도쿄 지역에서 실시한 면접 조사의 결과를 분석한다.

1.5.1 한국어 사용 의식

한국어 사용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 지향 의식과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1) 한국어 지향 의식

한국어 지향 의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Q 400. 귀하는 동포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Q 401. 귀하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동포는 민족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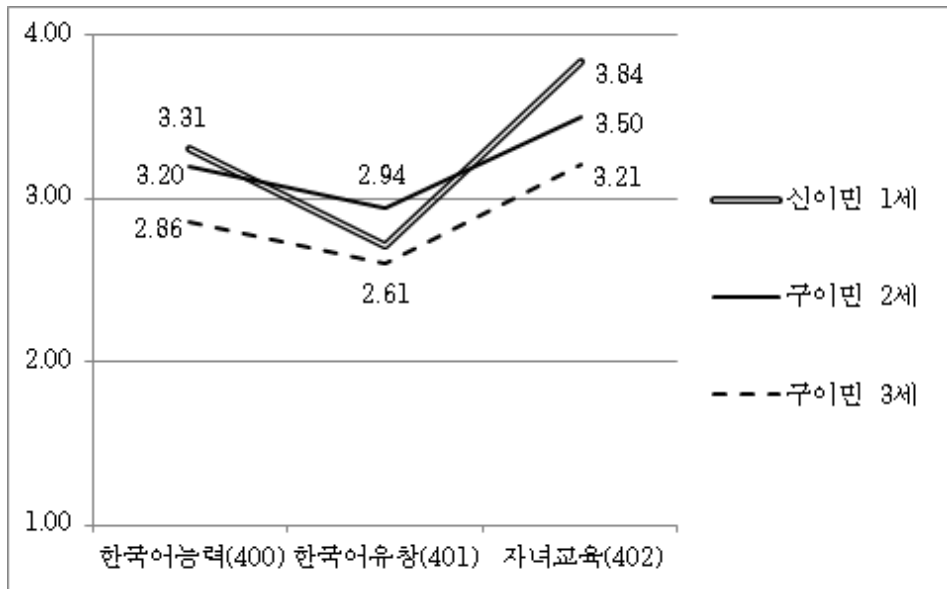
Q 402. 귀하는 자신의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한국어 지향 의식에 대한 세대별 결과는 그림1과 같다. 그림1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4단계 등간격 척도로 변환하였다. 즉 ①매우 그렇다=4점, ②약간 그렇다=3점, ③별로 그렇지 않다=2점, ④전혀 그렇지 않다=1점, ⑤모르겠다=0점과 같다. 또한 신이민 1세는 이중실선으로 나타내고, 구이민 2세는 가는 실선, 구이민 3세는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이하 모든 그림에서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그림1에서는, 한국어 지향 의식은 모든 항목에서 구이민 3세보다 구이민 2세와 신이민 1세에서 더 비율이 높다. 항목 402번의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구이민보다 신이민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한국어 지향 의식(세대별)



2) 한국어의 전승 의식

항목 402번의 질문에서는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SQ1. 그러면 가르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취직이나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 ②가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 ③한국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 ④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 ⑤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싶기 때문에
- ⑥기타(_____)

표2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

단위 : 실수(%)

	①	②	③	④	⑤	⑥	합계
구이민 2세	3(14.3)	-	-	5(23.8)	10(47.6)	3(14.3)	21(100)
구이민 3세	5(13.9)	1(2.8)	-	8(22.2)	13(36.1)	9(25.0)	36(100)
신이민 1세	6(6.7)	-	8(9.0)	37(41.6)	31(34.8)	7(7.9)	89(100)
합계	14(9.6)	1(0.7)	8(5.5)	50(34.2)	54(37.0)	19(13.0)	146(100)

(표 중의 -는 사용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하 동일)

다음 세대에 대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로는, 합계를 보면 ⑤‘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싶기 때문에’가 가장 높으며 ④‘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가 그 다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신·구이민 모두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자녀 세대에게도 물려주고 싶다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이민에서는 ③‘한국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을 보면, 한국에 1년에 1회 이상 간다고 대답한 사람이 59명 중 43명이나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과의 연계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통명 사용 의식

다음으로 한국어 지향 의식과 자기 정체성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먼저 통명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Q 500. 귀하는 한국식 성과 일본식 성(통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①한국식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②일본식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③양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④모르겠다

표3 통명 사용 의식

단위 : 실수(%)

	①	②	③	④	합계
구이민 2세	7(43.7)	-	9(56.3)	0	16(100)
구이민 3세	8(27.6)	2(6.9)	11(37.9)	8(27.6)	29(100)
신이민 1세	26(47.3)	-	22(40.0)	7(12.7)	55(100)
합계	41(41.0)	2(2.0)	42(42.0)	15(15.0)	100(100)

통명은 재일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일본식 성을 뜻하는 것으로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일상생활에서는 은행이나 학교에서 비즈니스 상에서도 많은 재일 한국인들이 통명을 사용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②‘일본식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구이민 3세에서 2명 있으나, ①‘한국식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대답과 ③‘양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구이민과 신이민 모두 높게 나타났다. ①과 ③을 비교해보면, 신이민은 ①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구이민은 ③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스포츠 응원팀

다음은 스포츠 경기에 대한 질문이다.

Q 501. 귀하는 조국 팀과 일본 팀이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어느 쪽 팀을 응원합니까?

- ①조국 팀을 응원한다 ②일본 팀을 응원한다
③양쪽 팀을 응원한다 ④모르겠다

표4 스포츠 응원

단위 : 실수(%)

	①	②	③	④	합계
구이민 2세	11(68.8)	1(6.2)	4(25.0)	-	16(100)
구이민 3세	9(31.0)	3(10.3)	12(41.4)	5(17.3)	29(100)
신이민 1세	49(89.1)	-	5(9.1)	1(1.8)	55(100)
합계	69(69.0)	4(4.0)	21(21.0)	6(6.0)	100(100)

구이민에서는 ②‘일본 팀을 응원한다’는 응답이 4명 있었으며, ①‘조국 팀 응원’과 ③‘양쪽 팀 응원’이 각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구이민 2세와 3세를 비교해 보면, 2세는 ①‘조국 팀 응원’의 비율이 높은 반면, 3세는 ③‘양쪽 팀 응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이민은 ③‘양쪽 팀 응원’이 9.1% ④‘모르겠다’의 1.8%를 제외하고는 89.1%가 ①‘조국 팀 응원’을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한국으로의 왕래가 잦은 신이민은 일본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구이민 2, 3세에 비해 한국이 조국이라는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5) 차세대의 결혼관

다음은 차세대 동포의 결혼관에 대한 질문이다.

Q 502. 귀하는 다음 세대 동포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동포끼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②일본인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③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④모르겠다

표5 차세대 동포의 결혼관

단위 : 실수(%)

	①	②	③	④	합계
구이민 2세	9(56.3)	-	7(43.7)	0	16(100)
구이민 3세	4(13.8)	-	21(72.4)	4(13.8)	29(100)
신이민 1세	14(25.5)	-	41(74.5)	-	55(100)
합계	27(27.0)	-	69(69.0)	4(4.0)	100(100)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구이민, 신이민 모두 ②‘일본인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구이민 2세는 ①‘동포끼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가 ③‘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3세는 ③‘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가 72.4%로 훨씬 높았다. 3세에 비해서 2세가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신이민에 있어서도 ③‘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이 74.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일본인과의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재일 한국인 사회의 한국어 지향 의식과 자기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 지향 의식에 있어서는 구이민보다 신이민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통명사용과 스포츠 응원에 있어서 구이민보다 신이민이 더 조국과의 연계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2. 한국어 사용 실태

한국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각 세대별로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언어의 4기능별로 난이도를 4단계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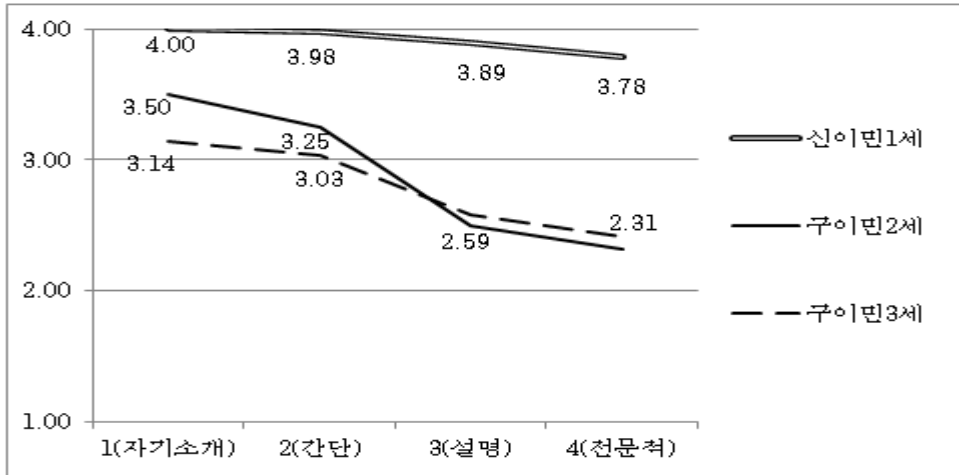
1) 한국어 능력

Q 600.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①잘 한다 ②조금 한다 ③잘 못한다 ④전혀 못 한다 ⑤모르겠다

(1)자기 소개하거나 물건사기 등과 같은 기초적인 대화	① ② ③ ④ ⑤
(2)자신의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	① ② ③ ④ ⑤
(4)연설, 토의, 통역 등 전문적인 대화	① ② ③ ④ ⑤

그림2 한국어 ‘말하기’ 능력(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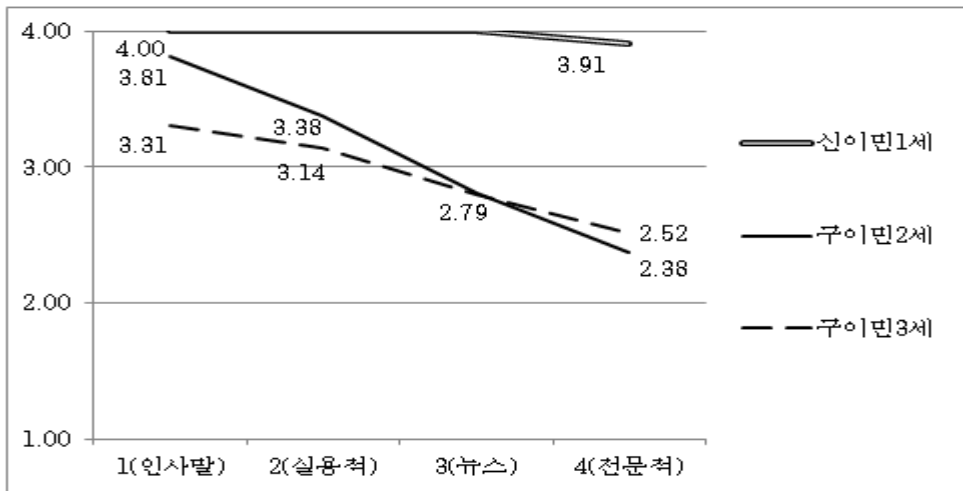


Q 601.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①잘 이해한다 ②조금 이해한다 ③잘 못 이해한다 ④전혀 이해 못 한다 ⑤모르겠다

(1)인사말 등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광고, 일기예보 등의 실용적 담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뉴스를 대체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적인 내용의 연설, 토의 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그림3 한국어 ‘듣기’ 능력(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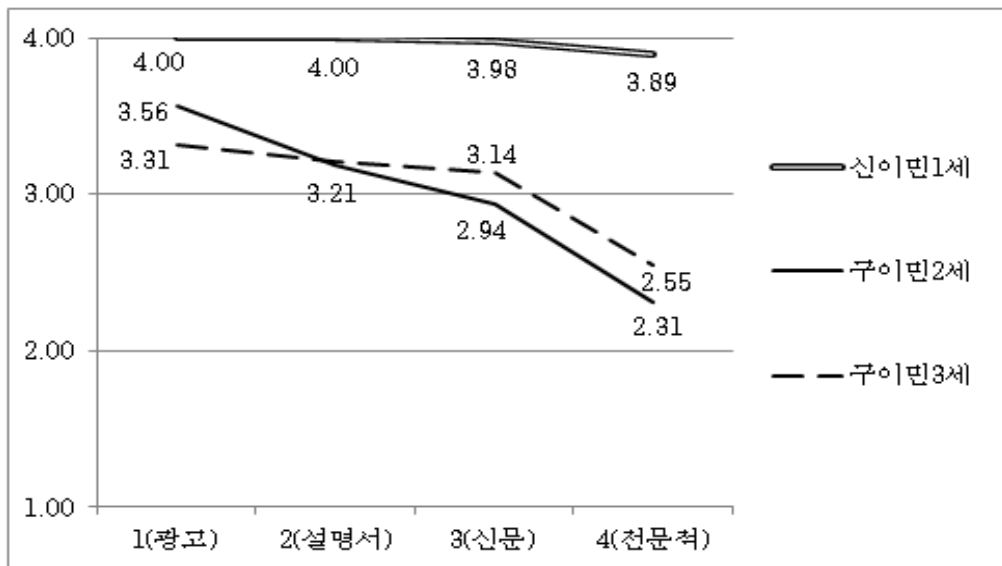


Q 602.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 ①잘 읽는다 ②조금 읽는다 ③잘 못 읽는다 ④전혀 못 읽는다 ⑤모르겠다

(1)간단한 광고나 간판 등의 안내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편지,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잡지, 신문 등 평이한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분야의 서적이거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그림4 한국어 '읽기' 능력(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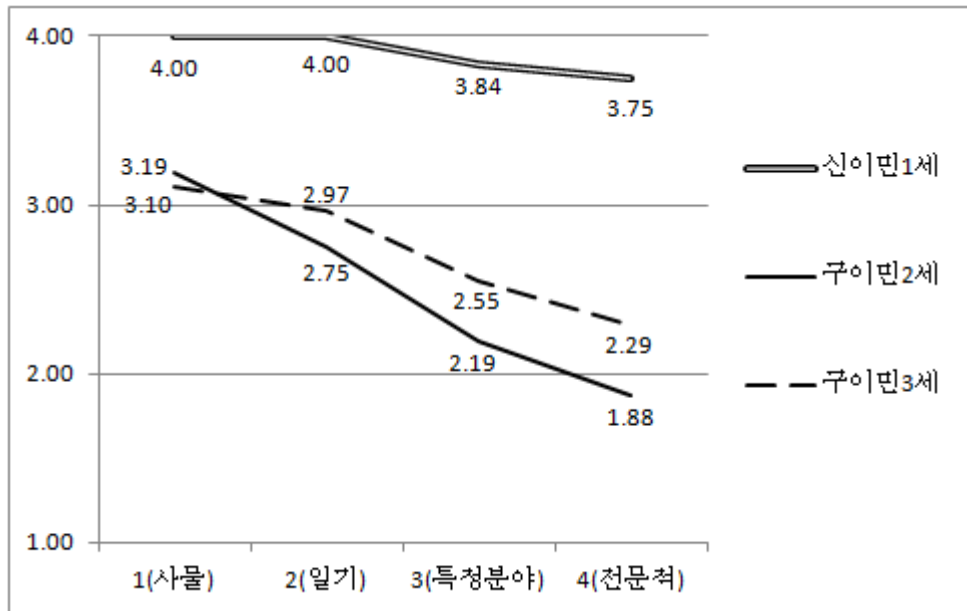


Q 603.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 ①잘 쓴다 ②조금 쓴다 ③잘 못 쓴다 ④전혀 못 쓴다 ⑤모르겠다

(1)간단한 사물 이름, 위치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그림5 한국어 ‘쓰기’ 능력(세대 별)



한국어 4기능 모두 신이민이 구이민보다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이민은 말하기와 듣기 능력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항목에서는 2세가 3세보다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난이도가 높아지면 2, 3세 모두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읽기와 쓰기 능력은 난이도가 낮을 때는 2세가 3세보다 능력이 높게 나타났지만,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반대로 3세가 2세보다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구이민 2세의 한국어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평가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구이민 세대의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가정에서 한국어를 배운 구이민 2세와 학교에서 외국어로써 한국어를 배운 구이민 3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2) 가족과의 사용 언어

다음으로 각 세대의 한국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과의 사용 언어, 동포와의 사용 언어를 조사하였다. 먼저 가족과의 사용 언어를 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Q 800. 귀하는 다음의 가족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귀하 →가족)

사용하는 언어를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보기>

- | | |
|--------------|----------------|
| ①대부분 한국어로 한다 | ②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많다 |
| ③반반씩이다 | ④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많다 |
| ⑤대부분 일본어로 한다 | ⑥모르겠다 |

SQL. 그러면 가족이 귀하와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가족→귀하)

위의 질문 800번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그림6 가족 간 사용 언어(조사 대상자→가족)(세대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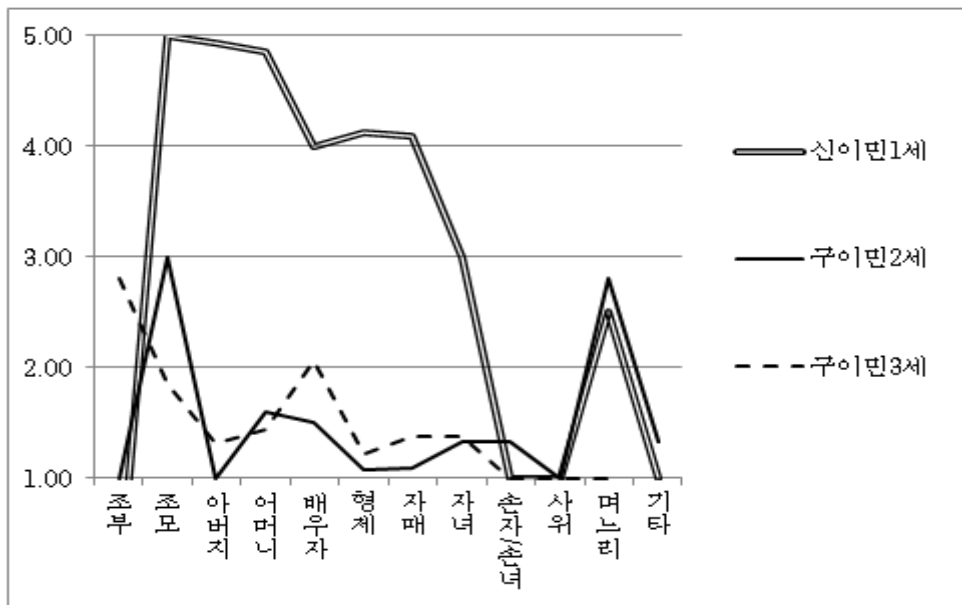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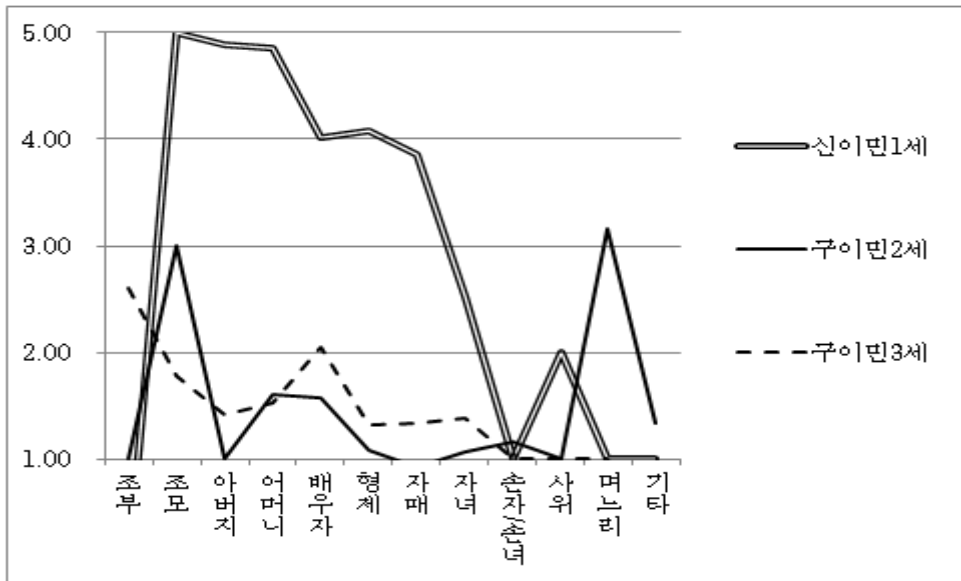


그림7 가족 간 사용 언어(가족→조사 대상자)(세대별)



가족 간의 사용 언어를 보면, 조사 대상자가 가족에게 사용하는 언어와 가족이 조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신이민, 구이민 모두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사 대상자와 가족 간의 사용 언어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조사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구이민보다 신이민이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손자, 손녀와의 사용 언어는 구이민 2세에 비하여 신이민의 일본어 사용이 더 많은데, 자녀와 손자 세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언어 지향 의식은 구이민보다 신이민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며느리와 사용 언어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는데, 이것은 며느리가 있다고 응답한 신이민 2명의 며느리가 구이민 3세, 4세이기 때문에 그들의 한국어 능력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구이민은 3세보다 2세의 한국어 사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앞서 한국어 지향 의식에 관한 항목에서 3세보다 2세의 의식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한국어 능력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낮은 항목에서는 2세의 능력이 3세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가족과의 사용 언어는 2세의 한국어 사용이 3세보다 높다는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예상된다.

3) 동포와의 사용 언어

다음으로 동포와의 사용 언어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Q 801. 귀하는 한국어가 가능한 동포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사용하는 언어를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보기>

- | | |
|--------------|----------------|
| ①대부분 한국어로 한다 | ②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많다 |
| ③반반씩이다 | ④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많다 |
| ⑤대부분 일본어로 한다 | ⑥모르겠다 |

그림8 동포와의 사용 언어(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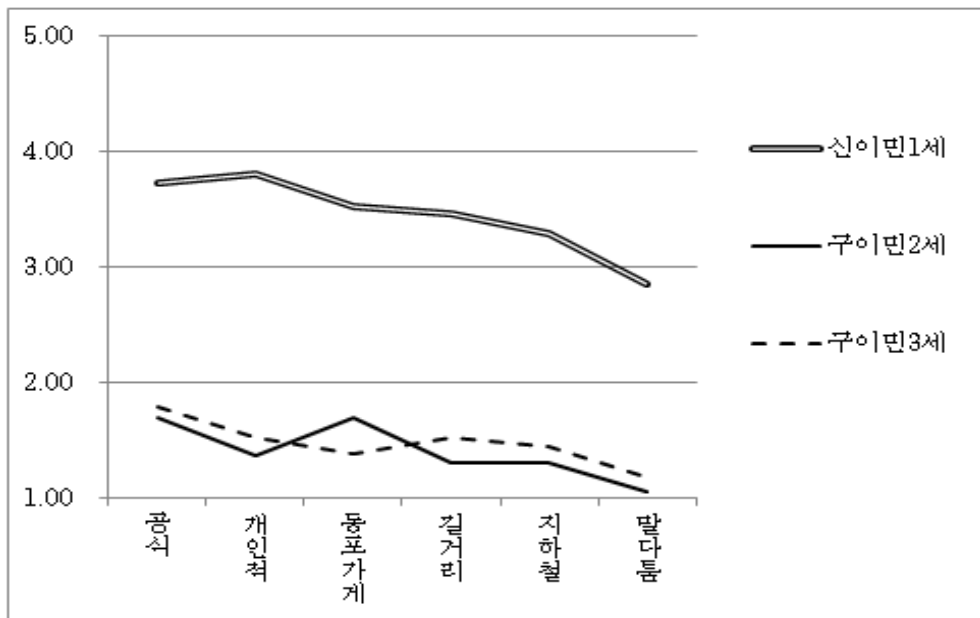


그림8에서는 ‘대부분 한국어로 한다’를 최고점(5점)으로 환산하여 5단계 척도로 나타내었다. 3점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반반씩이다’, 1점은 ‘대부분 일본어로 한다’를 나타낸다. 가족과의 사용 언어와 마찬가지로 구이민보다 신이민의 한국어 사용

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포 가게 장면을 제외하고는 구이민 2세보다 3세의 한국어 사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장면별로는 구이민은 개인적인 자리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한국어 사용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신이민은 수치상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자리보다 개인적인 자리에서의 한국어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길거리와 지하철 등 일본인이 많은 장소에서는 다른 장면에 비해서 신이민의 일본어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주위를 의식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말다툼에서는 구이민과 신이민 모두 다른 장면에 비해서 일본어 사용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말다툼이나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화자가 보다 더 익숙한 언어를 선택하기 때문에 구이민의 일본어 사용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제1언어(L1)로 하는 신이민이 동포와 말다툼을 할 때 한국어 사용을 적게 한다고 나타난 것은 ⑥‘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13명으로 평균 23.6%였기 때문에 수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내적 언어 사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암산을 비롯한 계산을 할 때, 혼자서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그리고 꿈을 꿀 때의 사용 언어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SQ1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암산이나 셈을 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2)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①	②	③	④	⑤	⑥
(3)꿈을 꿀 때	①	②	③	④	⑤	⑥

<보기>

- | | |
|--------------|----------------|
| ①대부분 한국어로 한다 | ②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많다 |
| ③반반씩이다 | ④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많다 |
| ⑤대부분 일본어로 한다 | ⑥모르겠다 |

그림9 내적 언어의 사용현황(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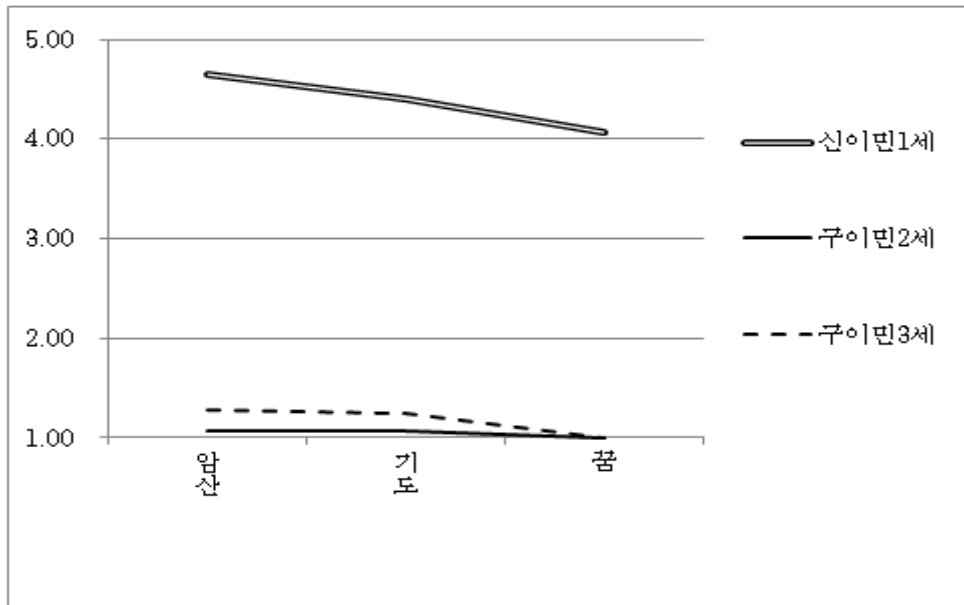


그림9에서도 ‘대부분 한국어로 한다’를 최고점(5점)으로 환산하여 5단계 척도로 나타내었다. 내적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구이민과 신이민의 한국어 사용률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구이민 2세와 3세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신이민이 구이민보다 한국어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구이민에게 일본어 사용이 높게 나온 이유는 숫자의 사용은 숫자를 어느 언어로 처음 습득하였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기도와 같은 혼잣말은 더 익숙한 언어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5.3. 한국어 교육에 관한 의식

여기서는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과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일본에 이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대상자로는 구이민은 2세와 3세가, 신이민은 일본에서 출생한 2세가 해당되지만 신이민 2세는 인원수가 4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앞서 1.5.1의 한국어 지향 의식에 관한 조사에서는 구이민 3세보다 2세의 한국어 지향 의식이 더 강하며, 자녀와 손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의향도 구이민 2세와 3세 모

구이민 2세는 87.5%, 3세는 89.7%가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학습 기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곳은 ①‘민족학교 등 정규학교’이다. 다음으로 ③‘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학습을 하였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2)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를 배운 기간은 다음과 같다.

SQ2 한국어를 배운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3개월 미만 ②3~6개월 ③1년 정도
④2~3년 정도 ⑤5년 이상 ⑥기타(_____)

표7 한국어 학습 기간

단위 : 실수(%)

	①	②	③	④	⑤	⑥	합계
구이민 2세	1(7.1)	1(7.1)	2(14.3)	2(14.3)	6(42.9)	2(14.3)	14(100)
구이민 3세	1(3.8)	2(7.7)	6(23.1)	2(7.7)	14(53.8)	1(3.8)	26(100)
합계	2(5.0)	3(7.5)	8(20.0)	4(10.0)	20(50.0)	3(7.5)	40(100)

학습 기간으로는 ⑤‘5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민족학교와 같은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사람의 수와 비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면접 조사의 조사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고 1년 이상 학습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심층 면접 조사에서는 2세와 3세 가운데 학습 경험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정규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단기간 학습을 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있다면 꾸준히 학습하고 싶다고 대답한 사례도 있었다.

3) 한국어 학습 동기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SQ3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취직이나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 ②지금하고 있는 일이나 전공에 필요하기 때문에
- ③한국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 ④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 ⑤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 ⑥외국어 습득의 하나로
- ⑦장래에 한국에서 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 ⑧조부모, 부모, 가족, 친척,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 ⑨기타(_____)

표8 한국어 학습 동기

단위 : 실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합계
구이민 2세	-	4(16.0)	1(4.0)	5(20.0)	3(12.0)	-	1(4.0)	5(20.0)	6(24.0)	25(100)
구이민 3세	1(2.6)	4(10.5)	-	8(21.1)	6(15.8)	3(7.9)	1(2.6)	8(21.1)	7(18.4)	38(100)
합계	1(1.6)	8(12.7)	1(1.6)	13(20.6)	9(14.3)	3(4.8)	2(3.2)	13(20.6)	13(20.6)	63(100)

한국어 학습 동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구이민의 경우 ④‘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⑤‘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⑧‘조부모, 부모, 가족, 친척,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상 세 가지 응답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④와 ⑤의 응답은 한국어 지향 의식에서 자녀나 손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를 물었을 때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⑧은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더 능숙한 가족이나 친척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어 사용을 하고자 하는 의식이 나타나 있는 것이며, ④, ⑤, ⑧은 모두 한국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연결되는 대담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의 학습 동기는 ‘자신의 뿌리를 찾을 필요가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응답도 역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한국어 학습 시의 어려운 점

한국어 학습 시의 힘들었던 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SQ4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통학의 어려움 ②교육시설의 부실
③수업료의 부담 ④교육 내용의 부실
⑤교사의 지도 능력 부족 ⑥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의 차이나 이질감
⑦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 ⑧기타(_____)

표9 한국어 학습의 힘들었던 점

단위 : 실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구이민 2세	1(6.7)	-	1(6.7)	2(13.3)	1(6.7)	1(6.7)	-	9(60.0)	15(100)
구이민 3세	2(7.4)	-	2(7.4)	4(14.8)	1(3.7)	4(14.8)	1(3.7)	13(48.1)	27(100)
합계	3(7.1)	-	3(7.1)	6(14.3)	2(4.8)	5(11.9)	1(2.4)	22(52.4)	42(100)

한국어 학습 시 힘들었던 점으로는 ④‘교육 내용의 부실’과 ⑥‘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의 차이나 이질감’이 많았다. ⑥‘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의 차이나 이질감’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 조사 결과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5) 한국어를 학습한 후 달라진 점

한국어를 배우고 난 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SQ5 한국어를 배우고 난 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②한국에 가 보고 싶어졌다.
③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다.
④취직이나 진학할 때 유리했다.

- ⑤가족이나 친척들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⑥장래에 한국에 가서 취업하거나 생활하고 싶어졌다.
 ⑦그다지 없다
 ⑧기타(_____)

표10 한국어를 배우고 난 후에 달라진 점

단위 : 실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구이민 2세	5(17.9)	5(17.9)	7(25.0)	-	8(28.6)	1(3.6)	1(3.6)	1(3.6)	28(100)
구이민 3세	8(17.0)	5(10.6)	6(12.8)	3(6.4)	14(29.8)	3(6.4)	6(12.8)	2(4.3)	47(100)
합계	13(17.3)	10(13.3)	13(17.3)	3(4.0)	22(29.3)	4(5.3)	7(9.3)	3(4.0)	75(100)

한국어를 배우고 난 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①‘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③‘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다’, ⑤‘가족이나 친척들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이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 동기와 부합하는 결과로 학습자가 처음 가지고 있던 학습 동기를 학습을 통하여 달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이후의 한국어 교육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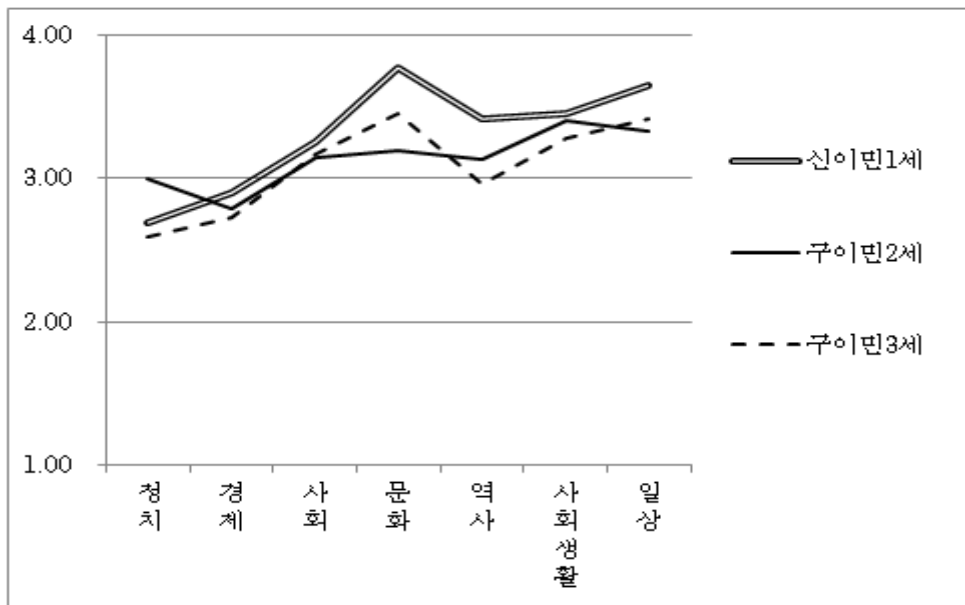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국어 학습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어떤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Q 902. 귀하는 이후 한국어 교육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보기> ①매우 중요하다 ②약간 중요하다 ③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④전혀 중요하지 않다 ⑤모르겠다		
--	--	--

(1)정치	①	②	③	④	⑤	(5)역사	①	②	③	④	⑤
(2)경제	①	②	③	④	⑤	(6)사회생활	①	②	③	④	⑤
(3)사회	①	②	③	④	⑤	(7)일상생활	①	②	③	④	⑤
(4)문화	①	②	③	④	⑤	(8)기타()	①	②	③	④	⑤

그림10 한국어 교육 시의 중요항목



이 질문에서는 구이민과 신이민이 모두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항목별로는 정치, 경제와 같이 전문적인 항목보다는 문화, 사회생활, 일상생활과 같이 실제 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11 일본의 한국어 교실 안내 포스터



2. 심층 면접 조사

2.1. 조사 개요

면접 조사 결과의 뒷받침이 되는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기간은 2011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이며, 오사카 지역에서 본 연구팀 2명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오사카 지역의 현지 조사원(key person)인 서운순(도시샤대학 교수), 임현수(간사이대학 강사) 및 목종균(긴키대학 교수)의 협력으로 심층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현지 조사원(key person)을 통하여 섭외한 조사 대상자는 10명이며, 오사카 이쿠노구의 코리야타운에서 사전 섭외 없이 인터뷰를 실시한 11명을 포함하여 합계 21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구이민 1세대:	남성 2명, 여성 3명
구이민 2세대:	남성 2명, 여성 7명
구이민 3세대:	남성 1명, 여성 1명
구이민 4세대:	- 여성 1명
신이민 1세대:	남성 2명, 여성 2명
	7명 14명
합계	21명

조사 시에는 먼저 조사 대상자의 기본 속성을 조사 항목 용지에 기입한 뒤, 녹음기를 사용하여 약 30분에서 40분간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세대 별로 한국어 사용 실태와 중간언어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2. 한국어 사용 실태와 중간언어의 양상

2.2.1. 구이민 1세의 한국어 사용 실태와 중간언어

구이민 1세는 언어 형성기를 한국 또는 북한에서 보내고 일본으로 건너간 세대이므로 한국어 능력은 전반적으로 높으며 한국어 능력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어는 출신 지방의 방언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일본어 능력도 상당히 높으며, 일상생활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인터뷰를 할 때의 사용 언어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어 사용에 있어서, 남녀 모두 동포를 만났을 때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병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2세인 자녀들과의 대화는 일본어를 사용한다는 여성 3명의 보고가 있었다. 자녀들을 모두 일본 학교에 다니게 한 결과 한국어의 듣기 능력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말하기 능력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3세인 손자들과도 역시 일본어로만 대화가 가능하다.

70대 남성의 경우, 평상시에 동포와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병용하지만 장난 섞인 말을 할 때는 주로 한국말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고령화와 더불어 재일 한국인 1

세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외에서 같은 고향 사람들을 만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조사자가 면접한 70대 여성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병용 예이다.

예) 조사자 : 아침에 인사말은 그러면?

F1 : おはようございます. (ohayogozaimasu) (조사 대상자, 여성 70대)

(안녕하십니까)

조사자 : 일본말로

F1 : 고향에서 오신 분들은 もう(mo) 알기 때문에 안녕하세요とか(toka) 안녕하십니까とか

(이미)

(라든지)

(라든지)

(toka),

そやけど日本(soyakedo nihon), 일본에서 나서 일본에서 자란 사람은

(하지만 일본)

必ずおはようございます.(kanarazu ohayogozaimasu)

(반드시 오하요고자이마스)

아침 인사는 어느 쪽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조사 대상자가 대답을 하는 내용의 담화이다. 조사 대상자의 두 번째 발화를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의 언어 전환(code-switching)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사(もう(mo)), 조사(とか(toka)), 접속사(そやけど(soyakedo),けれども(keredomo)의 간사이 지방 방언) 등의 일본어의 품사를 단위로 전환하는 것과, ‘일본에서 자란 사람은 必ずおはようございます(kanarazu ohayogozaimasu)(반드시 오하요고자이마스)’ 구문에서는 주어부를 한국어로 하지만 술어부를 일본어로 전환하여 문장 내 전환(intrasentential-switching)을 하고 있다. 문장 내 전환 외에도 조사자가 한국어로 질문하면 조사 대상자는 일본어로 응답하는 화자 간 전환, 조사 대상자의 발화 안에서의 문장 간 전환(intersentential-switching)도 관찰할 수 있었다.

2.2.2. 구이민 2세의 한국어 사용 실태와 중간언어

구이민 2세 중에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여성 2명이었다. 이들은 결혼 후에 시어머니가 사용하는 한국어를 귀에 익힌 상태에서 1명은 학원과 개인 교습으로, 다른 한 명은 교회에서의 설교와 찬송가를 통하여 독학으로 학습하였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평상시 동포와의 사용 언어는 일본어가 대부분이며 가족과도 일본어를 사용하지만, 습득한 한국어를 활용하여 각자 통번역과 교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 2명 모두 일본 학교에 다녔지만, 대학 졸업 후에는 한국어 습득을 위해 한국의 대학에 어학연수를 보낸 경험이 있다.

나머지 여성 5명은 한국어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말하기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인터뷰는 조사자가 한국어로 질문하고 조사 대상자는 일본어로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들 중 3명은 같은 한국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의 설교는 굳이 동시통역을 거치지 않고서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사용에 있어서는 ‘왠지 부끄러워서, 발음에 자신이 없어서 용기를 내어 말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발음과 악센트에 관해서 자신을 비롯한 재일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한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이질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출신지방 방언에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에서 접하는 표준어의 표현들이 낯설거나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한다. 재일 동포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중에서도 조총련계 민족학교 출신자의 발음과 악센트는 더욱 이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2세 남성에게 있어서 1명은 한국어로 질문하면 기본적으로는 일본어로 응답하지만, 한국어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면 능숙하지는 않지만 한국어를 병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남성 1명은 코리아타운 내에서 상업을 하며 부모 세대로부터 배운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이중 언어를 병용하고 있다고 했다.

1) 조사의 오용

두 남성의 한국어의 특징으로는 주격 조사 ‘가’의 첨가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 (1)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식이가 있었어요.
- (2) 한국 교포들이가 일본말을 많이 쓰니까.
- (3)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가 좋아요.

이는 일본어의 주격 조사 ‘가(ga)’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예문을 보면 한국어 조사 ‘이’ 다음에 일본어 조사 ‘가(ga)’가 첨가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2) 호칭

여성들의 인터뷰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한국어 사용을 질문한 결과, 가족과 친족 호칭, 주방 도구 등은 한국어 단어를 차용한다고 하였다.

- (4) 함매(할머니), 아버지, 엄마, 고모, 아제(아저씨, 삼촌) 등
- (5) 냄비, 젓가락, 숟가락 등

3) -する(suru)

그리고 제일 한국인 1세의 언어 사용을 조사한 김미선(2001a)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품사에 ‘-하다’에 해당하는 일본어의 ‘-する(suru)’가 결합한 복합 형식이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심층 면접 조사에서도 이러한 복합 형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

- (6) 짬아する(짜다), 시이する(음식이 쉬다)

2.2.3. 구이민 3세의 한국어 사용 실태와 중간언어

구이민 3세는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남성은 대학 졸업 후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았으며, 사업 상대와 대화를 할 정도의 한국어 능력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면접에서는 조사자가 한국어로 질문하면 조사 대상자는 일본어로 응답하였다. 상대가 한국어로만 대

화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좀처럼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에서 본인이 한국어로 대화했을 때 재일 한국인 특유의 발음과 악센트가 이상하다고 직접적으로 지적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한국에서 사용되는 표준 발음과 악센트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일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형태이더라도 훌륭한 한국어로서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1명은 한국어 능력이 거의 없으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학습 동기로는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다는 것과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는 것을 꼽았다. 그리고 시댁 식구와 어울릴 때는 한국어 단어가 가끔 섞여서 나온다고 한다. 다음과 같이 일본어 표현에 한국어 단어를 차용한 중간언어 형태를 사용한다고 한다.

(7) 눈치가きく.(눈치가 있다)

(8) 싱거비. (맛이 싱겁다는 뜻)

2.2.4. 신이민 1세의 한국어 사용 실태와 중간언어

이쿠노구의 코리아타운 내에서 상점을 경영하는 신이민 1세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일본에 건너간 지 평균 20년 정도 지난 사람들로, 일본에 정착하여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코리아타운 내에서의 사용 언어는 손님이 일본인이면 일본어로, 한국인이면 한국어와 일본어를 병용한다고 한다. 면접을 하면서 실제 손님을 맞은 상황에서 이중 언어 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코리아타운 내의 신이민 세대는 주로 한국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왕래가 잦기 때문에 한국어 사용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족과의 사용 언어는 자녀와는 대부분이 일본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들이 일본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정에서의 언어는 일본어가 중심이 되며, 부부 간에도 일본어 사용이 많다고 한다. 같은 신이민 세대와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3. 시범 조사의 성과 및 문제점

이번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 조사를 통하여 얻은 성과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3.1. 시범 조사의 성과

먼저 면접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재일 한국인 구이민과 신이민 세대별 언어 사용 의식과 한국어 사용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종래에 실시되었던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언어 사용 의식과 언어 사용 실태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지역별로 사회언어학적 지식이 있는 현지 조사원(key person)을 활용한 결과, 면접 조사표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팀의 조사자가 직접 일본 현지에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면접 조사의 분석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면접 조사와 담화를 녹음하여, 재일 한국인의 실질적인 언어 사용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후 녹음 자료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병용 및 중간언어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2.3.2. 시범 조사의 문제점

시범 조사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분포를 조사자가 조절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구 계획에서는 구이민을 세대별로 각 20명, 신이민을 20명으로 하여 합계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구이민보다 신이민 수가 많았다(구이민 53명, 신이민 59명).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언어학적 지식이 있는 현지 조사원(key person)의 협력을 받았으나, 실제로 연구 의도에 맞게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었다. 이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시에는 세대별, 성별, 지역별로 조사 대상자의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팀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의 국외 협력자에게 조사 목적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면접 조사의 방법론, 분석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 대상자 섭외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1:1 면접 조사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경비에 관한 점이다. 시범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100명 정도였기 때문에 현지 조사원(key person) 4명의 협력으로 약 1달 반에 걸쳐 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의 조사 대상자의 인원은 지역에 따라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1:1 면접 이외의 다른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사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사자가 동시에 다수의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집합면접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셋째 심층 면접 조사의 조사 대상자를 미리 섭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심층 면접 조사의 대상자는 면접 조사에 응해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자와의 직접적인 면담에 대한 부담감,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민감함 등이 작용하여 조사에 협력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사에 협력해 줄 의사가 있어도 약속 시간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면접 조사에 응해준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심층 면접 조사에서의 비격식적인 담화를 녹취하는 방법에 관한 점을 들 수 있다. 비격식적인 담화는 동포끼리의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을 관찰하고자 하는 것인데, 조사자가 담화 녹취 현장에 있는 경우 조사 대상자는 부담감을 느껴 보다 격식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형태의 발화를 할 수가 있다.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 녹음기를 조사 대상자에게 맡겨 조사자가 관찰하지 않는 상황에서 담화를 녹음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담화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 대상자 본인이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시범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후 조사 전반에 걸쳐 각 지역의 국외 협력자와의 긴밀한 연락과 상호 정보 제공, 문제점 발생 시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3.3. 24시간 조사

언어생활 조사 방법 중에 참고로 할 수 있을 만한 것 중 하나가 일본 국립국어연구소가 1949년에서 1955년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각 지역 당 1~3명씩 총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생활 24시간 조사(이하, 24시간 조사)’이다. 24시간 조사란 한 특정 개인의 하루 동안의 언어생활(언어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기록하는 조사를 말한다. 피조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의 언어행동을 연구자가 직접 동행 관찰하며 속기와 녹음을 통해 기록하는 방식이다.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실제 조사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루어졌으며, 초기 조사는 하루 안에 모든 조사가 끝나는 방식이었지만 후기의 조사는 다음 표 11과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2~3시간씩 각기 다른 시간대에 조사를 실시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11 24시간 조사 스케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월																								
화																								
수																								
목																								
금																								
토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하루 동안의 ‘읽기·쓰기·말하기·듣기’의 양과 사용 화제, 문장 수, 문절 수, 언어 행동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다. 24시간 조사의 이점으로는 우선 특정 개인이 하루 동안 말하는 언어의 양과 사용 어휘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밖에 대우 표현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지, 표준어와 방언은 또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복수의 화자와 청자에 의한 실제 회화 자료를 다수 얻을 수 있다는 것도 24시간 조사의 이점이다. 국외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원용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제5장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중장기 조사 계획

제3장 ‘조사 방법론’에 의해서 선정한 조사 대상 국가 및 조사 지역, 조사 대상자, 조사 방법 등을 기준하여, 이후 5년 동안 실시될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의 중장기 조사 계획을 연도별로 개관하기로 한다.

1. 연도별 조사 계획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 예정인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의 연도별 조사 수행 내용 및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1 연차별 추진 계획표

연 차	추진 계획	소요 예산 (백만 원)
1년차 (‘12년)	○ 재중국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 ○ 재중국 동포의 한국어 변종 조사 및 자료 구축 ○ 재중국 동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정책 제언	150
2년차 (‘13년)	○ 재독립국가연합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 ○ 재독립국가연합 동포의 한국어 변종 조사 및 자료 구축 ○ 재독립국가연합 동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정책 제언	200
3년차 (‘14년)	○ 재미국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 ○ 재미국 동포의 한국어 변종 조사 및 자료 구축 ○ 재미국 동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정책 제언	250
4년차 (‘15년)	○ 재브라질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 ○ 재브라질 동포의 한국어 변종 조사 및 자료 구축 ○ 재브라질 동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정책 제언	200
5년차 (‘16년)	○ 재일본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 ○ 재일본 동포의 한국어 변종 조사 및 자료 구축 ○ 재일본 동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정책 제언	200

1.1. 2012년 중국 조사

1.1.1. 조사 운영 · 조직

- 연구 책임자 1인(해당 지역 언어가 가능한 연구자)
- 연구원 2인(국어학 연구자 및 해당 지역 언어가 가능한 연구자)
- 연구 협력자 3인(중국 지역 거주 해당 분야 연구자)
- 연구 보조원 3인(통계학 전공자 1인을 포함한 대학원생)
- 보조원 3인

연구 책임자는 중국 조선족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으며 조사 대상 국가의 언어가 가능한 연구자가 바람직하다. 연구원 2인 중 1인은 국어학 연구자이고, 연구협력자 3인 중 1인은 현지 조사 대상 국가에 거주하는 연구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조사 대상자의 섭외는 물론 조사를 위한 준비와 안내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보조원 3인 중에서 1인은 통계에 능통한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바람직하다. 이하 다른 조사 대상 국가도 마찬가지다.

1.1.2. 조사 지역

2012년도 중국 지역 국외 동포의 구이민과 신이민의 한국어 사용 실태와 사용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지역 국외 동포 현황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래서 구이민 동포 사회가 확립된 지역과 신이민 동포 사회가 확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지역을 설정하였다.

표2 중국 지역 국외 동포 현황

순위	지역	인구수(명)
1	지린성	1,157,263
2	헤이룽장성	395,008
3	랴오닝성	274,961
4	베이징	197,600
5	칭다오	182,600

표2는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영사국재외동포과 자료 ‘재외동포현황’에 나타난 중국 지역의 국외 동포의 인구 수를 나타낸 것이다. 1위의 지린성과 2위의 헤이룽장성은 구이민 동포 사회가 형성된 지역이고, 4위의 베이징과 5위의 칭다오는 신이민 동포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중국 지역 조사 지역으로 지린성의 엔지, 헤이룽장성의 하얼빈, 베이징, 칭다오 4지역을 선정하였다.

2012년도 중국 조사 지역

엔지(지린성, 구이민), 헤이룽장(하얼빈, 구이민), 베이징(신이민), 칭다오 (신이민)

1.1.3.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구이민과 신이민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3과 같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표3 중국 지역 조사 대상 인원

	분 류			조사 대상자
면접 조사	구이민	1세	1945년 이전에 건너간 한국인 세대	100명
		2세	국외 동포 한국인 1세의 자녀 세대	100명
		3세	국외 동포 한국인 2세의 자녀 세대	100명
	신이민	1세	1980년대 이후에 건너간 한국인 세대	200명
심층 면접 조사	위의 각 세대별 면접 조사자 중에서 50명을 선정			50명
합계				550명

1.1.4. 조사 일정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4 중국 지역 조사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면접 조사표 검토 및 수정												
면접 조사 현지 조사원(key person) 섭외												
조사 대상자 선정												
면접 조사 실시 및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 선정												
심층 면접 조사 실시												
면접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심층 면접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비고												

1.1.5. 연구 용역 산출 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소계	64,067,603		42.7%
책임연구원	10,093,478	$(2,803,744 \times 30\%) \times 1 \text{인} \times 12 \text{개월} = 10,093,478$	
연구원(A)	13,415,200	$(2,149,872 \times 26\%) \times 2 \text{인} \times 12 \text{개월} = 13,415,200$	
연구원(B)	20,122,800	$(2,149,872 \times 26\%) \times 3 \text{인} \times 12 \text{개월} = 20,122,800$	
연구보조원	11,899,345	$(1,437,119 \times 23\%) \times 3 \text{인} \times 12 \text{개월} = 11,899,345$	
보조원	8,536,780	$(1,077,876 \times 22\%) \times 3 \text{인} \times 12 \text{개월} = 8,536,780$	
경비 소계	80,366,000		53.6%
조사비	14,500,000	(면접 조사) 4,500,000 - $5,000 \times 500 \text{명(피조사자)} = 2,500,000$ - $500,000 \times 4 \text{명(조사협력자)} = 2,000,000$ (심층 면접 조사) 10,000,000 - $200,000 \times 50 \text{명(피조사자)} = 10,000,000$	
자료망치 구축비	4,500,000	DataBase 구축 및 관리 - 문자화, 코드화: $10 \text{인} \times 30 \text{시간} \times 5 \text{천원} = 1,500,000$ - 코드화 작업: $10 \text{인} \times 30 \text{시간} \times 5 \text{천원} = 1,500,000$ - 자료분류 및 디지털화 작업보조: $10 \text{인} \times 200 \text{시간} \times 5 \text{천원} = 1,000,000$ - 보존 및 관리비: 500,000	

구 분 \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여비	57,336,000	(항공권)450,000×12인×1회=5,400,000 (숙식 및 일비) 51,936,000	
유인물비	1,750,000	-252달러×1200원×1인×20일=6,048,000 -188달러×1200원×5인×20일=22,560,000 -162달러×1200원×3인×20일=11,664,000 -162달러×1200원×3인×20일=11,664,000	
회의비	1,580,000	(보고서 인쇄비: 160부, 150p)1,680,000 -(표지)3천원×160부=480,000 -(본문)50원×150p×160부=1,200,000 (보존용 CD)1천원×10개=10,000 (중간 보고서 인쇄비: 10부, 60p)60,000 -(표지)3,000원×10부=30,000 -(본문)50원×60p×10부=30,000	
자문회의비	600,000	(회의 자료 복사)50원×1600p=80,000 (회의 진행비)15,000원×12인×5회=900,000	
전산처리비	100,000	(다과비)10,000원×12인×5회=600,000 (수당)200,000원×3인×1회=600,000 (불펜,클리어파일 등 문구류)100,000	
일반관리비 (5%)	5,566,397		3.7%
총용역비	150,000,000		100%

《2012년도 중국 지역 조사를 위한 참고 문헌》

- 강은국(2009)「중국 상해 지역 동포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 강희숙(2003)「중국 조선족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공시적 연구」『사회언어학』 11-2 pp.1-24
- 高永一(1990)「중국 朝鮮族 教育史의 서막을」『한국학연구』 2 pp.81-92
- 高永根(1990)「한반도 공통어의 성립과 분화」『이중언어학』 6 이중언어학회
- 곽승지(2008)『동북아시아 시대의 연변과 조선족』아이필드
- 권태환, 박광성(2004)「중국 조선족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한국인구학』 27-2 pp.61-89
- 김기창, 정상섭(2011)「조선족 소학교 국어 교육과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육의 비교연구(1)-교육과정을 중심으로-」『청람어문교육』 43 pp.339-370
- 김덕모(1994)「조선말 제칭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1)」『중국조선어문』 第2期
- 김동소, 이은규, 최희수(1994a)「중국 조선족 언어 연구 ; 제 1 편 중국 조선어 역사 개황」『한국전통문화 연구』 pp.155-207

- _____ (1994b) 「중국 조선족 언어 연구 ; 제 2 편 중국 조선어에 미친 중국어의 영향」 『한국전통문화연구』 pp.208-264
- 김두섭(2003) 「연변 조선족사회의 최근 변화: 사회 인구학적 접근」 『한국 인구학』 제26권 제2호.
- 김병운(2007) 「중국조선족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33호
- 김병호(2000) 「중국 조선족 농촌사회의 위기와 대책」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1 pp.27-59
- 김상원(1996) 「중국에서 쓰이는 조선말 계층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조선언어문학 논문집』 동북조선 민족교육출판사
- 김석현(2001) 「묵단강시 조선족 언어문자 교육 사용 상황연구」 『중국조선어문』 113 pp.4-8
- 김영수(2006) 「중국의 소수 민족정책과 중국 조선족의 실태」 『한국어의 미래를 위한 제1차 토론회 : 국의 동포 및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pp.16-25
- _____ (2009) 「중국 연변의 조선족 교육 현황과 해결책에 대한 소견」 『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 김원태(2003) 「중국 조선족의 언론현황과 언론관의 관한 조사 연구」 『在外韓人研究』 13-2 pp.5-48
- 김철성(1997)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전 중국 조선족의 민족자치운동」 『지역과 역사』 4 pp.245-289
- 렴광호(1989) 「연변의 이중언어현상 특점」 『중국조선어문』 第4期
- 리광일(2009) 「연변 조선족 중학교 조선말 교육의 실태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6-2 pp.101-113
- 리득춘(1997) 「중국에서의 조선어교육의 급속한 부상과 조선어의 위치」 『중국조선어문』 第4期
- 리운규(1994) 「건국 40 여년래 조선어문사업에 둘러진 민족어문정책을 논함」 『중국조선어문』 第4期
- 박경래(2002a) 「중국 연변 조선족의 모국어 사용」 『사회언어학』 제10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_____ (2002b)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제10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선영(2007)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역사적 정체성」 『고구려발해연구』 29 pp.477-501
- 박혜원, 구정숙(2004) 「중국 조선족, 한족 및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미디어환경과 이용실태 비교」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4-1 pp.121-122
- 배정호(1992) 「교제자와 교제령역에 의해 표현되는 언어 선택의 제약요소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第6期
- 신승용(2006) 「東北三省 朝鮮族 現況과 言語變化 樣相 및 朝鮮語文 敎育」 『동아인문학』 10 pp.235-263
- 예동근(2009) 「글로벌시대 중국의 체제 전환 과정하의 종족 공동체의 형성 -북경 왕징(望京)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성애(2010) 「청도 거주 조선족의 언어능력과 언어 태도」 『한국학연구』 제23집
- 윤의섭(2006a) 「중국 조선족 시 형성 과정의 탈식민주의적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18 pp.53-80
- _____ (2006b) 「1950-60년대 중국 조선족 시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 『現代文學理論研究』 27 pp.235-256

- 윤인진(2003) 「중국 조선족의 도시이주, 사회적응, 도시공동체」 『在外韓人研究(Studies of Koreans Abroad)』 13-2 pp.49-89
- _____(2004) 「중국 조선족의 인구이동과 도시공동체」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405-409
- 윤혜경, 박혜원, 권오식(2007) 「이중언어능력의 조선족 아동과 대학생의 한자와 한글 단어, 문장 음독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33 pp.120-140
- 염인호(2008) 「중국 연변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일고찰(1945.8-1950.말)」 『한국사연구』 140 pp.125-151
-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2003)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발달과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연구모형」 『社會科學研究』 19-2 pp.181-213
- 이귀옥(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가정 언어환경과 한국어 - 중국어 이중언어 수준 - 조선족자치주 연길과 집거촌 심양을 중심으로」 『한국지역 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10-211
- 이동진(2008) 「조선족의 자영업 활동」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 pp.507-520
- 이두원(2006) 「한중경제교류가 조선족 경제에 미친 역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8-1 pp.1-25
- 이장송, 신경식(2004) 「중국 조선족의 Code-switching에 관한 연구」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95-103
- 이주행(2003) 「남한과 중국 조선족 사회의 언어 비교 연구」 『언어과학연구』 26 pp.277-306
- 이현숙(2004) 「중국 조선족의 한국방송 시청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8-3 pp.521-553
- 이현정(2001)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2 pp.63-105
- 임형재(2006) 「중국 조선족 대화에서 나타난 표현(expression)형 코드전환」 『한민족문화연구』 19 pp.123-143
- 全永男(2005) 「중국연변조선족의 한국어 사용 현황에 관하여」 『제 7차 코리아 국제학술토론회 발표논문/논문집Ⅱ』 國際高麗學會
- 정미량(2010) 「중국 조선족 민족교육, 그 지속과 변화(길림성 장춘시 관성구 조선족 소학교(1945-2009)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2-1 pp.127-158
- 정천구(2006) 「조선족, 탈북자 그리고 한중관계」 『통일전략』 6-1 pp.189-214
- 최경남(2001) 「중국에서의 조선어어휘사용 현황과 전망」 『중국조선어문』 第1期
- 최영근(2005) 「조선족의 미래」 『역사문화연구(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23 pp.253-274
- 최우길(2003) 「한·중관계와 조선족 문제」 『在外韓人研究』 13-1 pp.77-110
- 최윤갑(1994) 『중국 조선 한국에서의 조선어 차이에 대한 연구』 延辺人民出版社
- _____(1995) 「중국에서의 조선어교육과 사용으로부터 본 조선어 통일의 필요성」 『중국조선어문』 第5期
- 홍만호(1998) 「우리 언어생활에 대한 서울말의 영향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第5期

황기우(2004)「중국 조선족의 민족교육 실태 분석」『教育問題研究(A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21 pp.95-118

全永男(2004)「中国延辺朝鮮族方言話者のスタイル切換え」『大阪社会言語学研究ノート』第6号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言語学研究室

_____(2005b)「延辺の朝鮮語は韓国語に変容するのか」『日本研究』第20輯 中央大学 日本研究所

_____(2007a)「対韓国人接客場面における延辺朝鮮族の言語行動」『大阪産業大学論集』人文科学編 121号

_____(2007b)「対韓国人談話場面における延辺朝鮮族の言語行動」『社会言語科学』第9巻 第2号 社会言語学

1.2. 2013년 독립국가연합 조사

1.2.1. 조사 운영 · 조직

연구 책임자 1인(해당 지역 언어가 가능한 연구원)

연구원 2인(국어학 연구자 및 해당 지역 언어가 가능한 연구원)

연구 협력자 3인(독립국가연합 지역 거주 해당 분야 연구자)

연구 보조원 3인(통계학 전공자 1인을 포함한 대학원생)

보조원 3인

1.2.2. 조사 지역

2013년도 독립국가연합 지역은 주로 구이민이 동포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이민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3개 지역을 설정하였다.

표5 독립국가연합 지역 국외 동포 현황

순위	지역	인구수(명)
1	우즈벡-타슈켄트주	72,007
2	우즈벡-타슈켄트시	62,057
3	카자흐스탄-알마티	44,498
4	러시아-모스크바	33,027
5	러시아-사할린주	27,103

표5는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영사국재외동포과 자료 ‘재외동포현황’에 나타난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국외 동포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가운데 1위와 2위인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주와 타슈켄트시, 3위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13년도 독립국가연합 조사 지역

타슈켄트주 (우즈베키스탄, 구이민), 타슈켄트시 (우즈베키스탄, 구이민),
알마티 (카자흐스탄, 구이민)

1.2.3.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6 독립국가연합 조사 대상 인원

	분 류			조사 대상자
면접 조사	구이민	1세	1945년 이전에 건너간 한국인 세대	100명
		2세	국외 동포 한국인 1세의 자녀 세대	150명
		3세	국외 동포 한국인 2세의 자녀 세대	150명
심층 면접 조사	위의 각 세대별 면접 조사자 중에서 50명을 선정			50명
합계				450명

1.2.4. 조사 일정

표7 독립국가연합 조사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면접 조사표 검토 및 수정												
면접 조사 현지 조사원 (key person) 섭외												
조사 대상자 선정												
면접 조사 실시 및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 선정												
심층 면접 조사 실시												
면접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심층 면접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비고												

1.2.5. 연구 용역 산출 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인건비 소계	89,100,444		44.6%
책임연구원	12,785,072	(2,803,744×38%)×1인×12개월=12,785,072	
연구원(A)	18,574,893	(2,149,872×36%)×2인×12개월=18,574,893	
연구원(B)	27,862,340	(2,149,872×36%)×3인×12개월=27,862,340	
연구 보조원	17,072,973	(1,437,119×33%)×3인×12개월=17,072,973	
보조원	12,805,166	(1,077,876×33%)×3인×12개월=12,805,166	
경비 소계	101,742,000		50.9%
조사비	14,000,000	(면접 조사)4,000,000 -5,000원×400명(피조사자)=2,000,000 -500,000원×4명(조사협력자)=2,000,000	
자료문치 구축비	7,500,000	(심층 면접 조사)10,000,000 -200,000원×50명(피조사자)=10,000,000	
여비	75,912,000	DataBase구축 및 관리 -문자화,코드화:10인×50시간×5천원=2,500,000 -코드화 작업: 10인×50시간×5천원=2,500,000 -자료분류 및 디지털화 작업보조: 10인×300시간×5천원=1,500,000 -보존 및 관리비: 1,000,000	
유인물비	1,750,000	(항공권)1,200,000원×12인×1회=10,800,000 (숙식 및 일비) 65,112,000 -315달러×1200원×1인×20일=7,560,000 -236달러×1200원×5인×20일=28,320,000 -203달러×1200원×3인×20일=14,616,000 -203달러×1200원×3인×20일=14,616,000	
회의비	1,880,000	(보고서 인쇄비: 160부, 150p)1,680,000 -(표지)3천원×160부=480,000 -(본문)50원×150p×160부=1,200,000 (보존용 CD)1천원×10개=10,000 (중간 보고서 인쇄비: 10부, 60p)60,000 -(표지)3,000원×10부=30,000 -(본문)50원×60p×10부=30,000	
자문회의비	600,000	(회의 자료 복사)50원×1600p=80,000	
전산처리비	100,000	(회의 진행비)20,000원×12인×5회=1,200,000 (다과비)10,000원×12인×5회=600,000 (수당)200,000원×3인×1회=600,000 (불펜, 클리어파일 등 문구류)100,000	
일반관리비 (5%)	9,157,556		4.6%
총용역비	200,000,000		100%

《2013년도 독립국가연합 지역 조사를 위한 참고 문헌》

- 고송무(1990)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 _____(1991) 「핀란드와 카작스탄에서의 한국말 및 고려말 교육」 『교육한글』 제4권 한글학회 pp.241-262
- 고재남(1993) 『독립국가연합내 고려인 사회에 대한 연구』 외교안보연구원
- 곽충구(2004)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역사와 그 언어적 성격」 『관악어문연구』 제29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pp.127-168
- _____(2009a)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해외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2-2』 국립국어원
- _____(2009b) 「중앙아시아 고려말 소멸 과정의 한 양상」 『방언학』 제10호 한국방언학회 pp.57-92.
- 국사편찬위원회(2008)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 상.하』 국사편찬위원회
- 기광서(2001) 「구소련 한인의 민족 정체성 상실과 회복: 역사와 현재」 『재외한인연구』 제10호 재외한인학회 pp.133-176
- 김계르만(2005)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와 정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2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137-159
- 김승화(1989) 『소련韓族史』 대한교과서
- 김영식(2004) 「새로운 한·러 관계와 러시아 한인들의 경제·사회 연구: 연해주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19권 제2호 한국슬라브학회 pp.591-609
- 김을가(2001)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언어문제 연구: 1990년대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재기·이복철(2006)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볼고그라드 재이주 현상」 『한국동북아논총』 제11권 제3호 통권40집 한국동북아학회 pp.237-265
- Nam Victor(2006)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육 -타슈켄트 국립 니자미 사범대 한국어문학과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34 중앙어문학회 pp.63-77
- 박보리스(1997) 「러시아의 한인, 19세기 중반-1930년대 말」 『교민논총』 제1권 경북대학교한국교민연구소 pp.135-147
- 반병률(2003) 「[연구논문]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 地新墟」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6집 한국근현대사학회 pp.223-255
- _____(2008) 「러시아 한인(고려인)사회와 정체성의 변화 :러시아 원동 시기(1863~1937)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140호 한국사연구회 pp.99-124
- 신연자(1988) 『중앙아시아의 한국인 탐방: 소련의 고려 사람들』, 동아일보사
- 심현용(1999) 「동연해주에서의 러시아한인 민족자치주: 역사적 사실 및 전망」 『한국시베리아학보』 창간호 한국시베리아학회 pp.1-65

- _____(2000)「뿌전 시대의 러시아 민족정책과 한인사회 전망」『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3권 제1호 전
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pp.123-153
- Alexander I. PETROV(2002)「러시아 극동에서의 한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1905~1910년)」『한국민족운
동사연구』 제30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529-543
- 양원식(1998)「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高麗人들의 社會問題」『재외한인연구』 제7호 재외한인학회 pp.45-56
- 유 일리아(1991)「소비에트 한인들의 민족어 발전과정」『이중언어학』 제8호
- 윤인진(1998)「중앙아시아 韓人의 言語와 民族正體性」『재외한인연구』 제7호 재외한인학회 pp.63-120
- 이광규(1995)「러시아 極東地域 韓人社會의 諸問題」『재외한인연구』 제5호 재외한인학회 pp.5-95
- _____(1998a)「러시아 僑胞 強制移住 60周年의 意味」『재외한인연구』 제7호 재외한인학회 pp.5-16
- _____(1998b)『러시아 沿海州의 韓人社會』 집문당
- _____(1998c)「中央아시아 移住 韓民族의 正體性 維持와 土着文化와의 融合問題」『중앙대학교 민족발전
연구 2』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pp.157-165
- 이경숙(2009)「러시아 한인의 정착과 마을학교」『교육철학』 제39권, 한국교육철학회 pp.159-191
- 이계희(1993)「소련속의 韓國人」『교수아카데미총서』 제3권 일년 pp.153-161
- 이기갑·김주원·최동주·연규동·이현중(2000),「중앙아시아 한인들의 한국어 연구」『한글』 247 pp.5-72.
- 이원봉(2001)「중앙아시아 고려인 강제이주에 관한 연구」『아태연구』 제8권 제1호 경희대학교 아태지역
연구원 pp.75-104
- 이재혁(2010)「러시아 사할린 한인 이주의 특성과 인구발달」『국토지리학회지』 제44권 제2호 국토지리학회
pp.181-198.
- 이정희(1997)「러시아 사할린주 한인의 실태 연구」『영남정치학회보』 제7권 영남정치학회 pp.257-314
- 이종훈(1995)「중앙아시아 한인의 연해주 재이주 현황과 정책과제」『한민족공영체 3』 pp.75-105
- _____(1998)「중앙아시아 高麗人의 沿海州 再移住가 갖는 政治經濟的 意味」『재외한인연구』 제7권 재외
한인학회 pp.121-130
- 이채문(2000)「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대한 연구: 비농업직(非農業職)을 중심으로」『한국
인구학』 제23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pp.39-77
- _____(2002)「러시아/소련 극동지역 한인이주민문제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고찰(1860-1937)」『슬라브학보』
제17권 제1호 한국슬라브학회 pp.323-353
- 이채문·박규태(2003)「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극동 지역 귀환 이주」『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9권
제4호 한국지역지리학회 pp.559-575
- 이철우(2006)「시베리아철도와 고려인들의 이주과정 -스탈린시대의 강제이주를 중심으로-」『재외한인연구』
제16권 재외한인학회 pp.45-80

- 임채환(1999),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적 정체성과 민족의식」 『국제정치논총』 제39권제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pp.317-338.
- 전신옥(2007) 「연해주 한인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와 정착 그리고 사회·경제적 현황」 『통일문제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47호 평화문제연구소 pp.207-246
- _____(2007)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 요인과 정착현황 :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회보』 제11권 제3호 한국정책과학학회 pp.77-107
- 조윤희(2001)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언어상황과 한국어의 지위」 『재외한인연구』 제10호 재외한인학회 pp.275-312
- 킹·러쓰, 연재훈(1992) 「중앙 아시아 한인들의 언어-고려말」 『한글』 217 pp.83-134.
- 허승철(1996) 「구소련 지역 한인의 언어 동화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1959, 1970, 1979, 1989년 인구센서스 언어 자료 분석」 『재외한인연구』 제6호 재외한인학회 pp.40-65

1.3. 2014년 미국 조사

1.3.1 조사 운영·조직

- 연구 책임자 1인(해당 지역 언어가 가능한 연구원)
- 연구원 2인(국어학 연구자 및 해당 지역 언어가 가능한 연구원)
- 연구 협력자 3인(미주 지역 거주 연구자)
- 연구 보조원 3인(통계학 전공자 1인을 포함한 대학원생)
- 보조원 3인

1.3.2. 조사 지역

2014년도 미국 지역은 구이민과 신이민이 공존하는 동포 사회이기는 하지만, 신이민의 동포 사회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이러한 구이민과 신이민의 동포 사회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3개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표8 미국 지역 국외 동포 현황

순위	지역	인구수(명)
1	캘리포니아	643,641
2	뉴욕	170,700
3	텍사스	153,000
4	워싱턴주	134,000
5	뉴저지	112,500

표8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재외동포과 자료 ‘재외동포현황’에 나타난 미국 지역의 국외 동포의 인구수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 지역은 1위인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지역과, 2위인 뉴욕, 3위인 텍사스를 선정하였다. 이는 미국의 서부 지역, 동부 지역,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도 미국 조사 지역

로스앤젤레스 (구이민, 신이민), 뉴욕 (구이민, 신이민), 텍사스 (구이민, 신이민)

1.3.3. 조사 대상자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9 미국 지역 조사 대상 인원

	분 류			조사 대상자
면접 조사	구이민		1960년대 이전에 건너간 한국인 세대	100명
	신이민	1세	1960년대 이후에 건너간 한국인 세대	100명
		1.5세	1세 부모와 같이 건너간 자녀 세대	100명
		2세	국외 동포 한국인 1세의 자녀 세대	200명
심층 면접 조사	위의 각 세대별 면접 조사자 중에서 50명을 선정			50명
합계				550명

1.3.4. 조사 일정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10 미국 지역 조사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면접 조사표 검토 및 수정												
면접 조사 현지 조사원(key person) 섭외												
조사 대상자 선정												
면접 조사 실시 및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 선정												
심층 면접 조사 실시												
면접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심층 면접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비고												

1.3.5. 연구 용역 산출 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인건비 소계	64,067,603		25.6%
책임연구원	10,093,478	(2,803,744×30%)×1인×12개월=10,093,478	
연구원(A)	13,415,200	(2,149,872×26%)×2인×12개월=13,415,200	
연구원(B)	20,122,800	(2,149,872×26%)×3인×12개월=20,122,800	
연구 보조원	11,899,345	(1,437,119×23%)×3인×12개월=11,899,345	
보조원	8,536,780	(1,077,876×22%)×3인×12개월=8,536,780	
경비 소계	176,482,000		70.6%
조사비	64,500,000	(면접 조사)50,000,000 -20,000원×500명(피조사자)=10,000,000 -5,000,000원×8명(조사협력자)=40,000,000	
자료몽치 구축비	7,500,000	(심층 면접 조사)10,000,000 -290,000원×50명(피조사자)=14,500,000 DataBase구축 및 관리 -문자화,코드화:10인×50시간×5천원=2,500,000	

구 분 \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여비	100,152,000	-코드화 작업: 10인×50시간×5천원=2,500,000 -자료분류 및 디지털화 작업보조: 10인×300시간×5천원=1,500,000 -보존 및 관리비: 1,000,000 (항공권)1,200,000원×12인×1회=14,400,000 (숙식 및 일비) 85,752,000	
유인물비	1,750,000	-415달러×1200원×1인×20일=9,960,000 -310달러×1200원×5인×20일=37,200,000 -268달러×1200원×3인×20일=19,296,000 -268달러×1200원×3인×20일=19,296,000 (보고서 인쇄비: 160부, 150p)1,680,000 -(표지)3천원×160부=480,000 -(본문)50원×150p×160부=1,200,000 (보존용 CD)1천원×10개=10,000 (중간 보고서 인쇄비: 10부, 60p)60,000 -(표지)3,000원×10부=30,000 -(본문)50원×60p×10부=30,000	
회의비	1,880,000	(회의 자료 복사)50원×1600p=80,000 (회의 진행비)20,000원×12인×5회=1,200,000 (다과비)10,000원×12인×5회=600,000 (수당)200,000원×3인×1회=600,000 (볼펜, 클리어파일 등 문구류)100,000	
자문회의비 전산처리비	600,000 100,000		
일반관리비 (5%)	9,450,397		3.8%
총용역비	250,000,000		100%

《2014년도 미주 지역 조사를 위한 참고 문헌》

- 강남옥(2009)「영어권 교포 화자의 한국어 어휘 인식 유형화 연구 -한국방송(KBS) <눈높이를 맞춰요 2> 자료를 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 24 pp.269-308
- 강승혜(2002)「재미교포 성인 학습자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분석연구」『한국어 교육』 13-1 pp.1-25
- 김경근(2005)「미주 한인의 민족교육관 연구」『비교교육연구』 15-3 pp.29-55
- 김정령(2008)「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한국어와 문화』 3 pp.237-255
- 김남길(1994)「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제문제 - 지역 사회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5 pp.261-269

- 김광해(2002) 「LA 지역의 한국어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선청어문』 제30집 서울대학교 pp.55-94.
- 김왕배(2003) 「미주 한인 후예들의 민족주의-민족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27-1 pp.55-75
- 김영기(1988)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연구와 그의 적용 1」 『한글』 201,202 pp.209-239
- 김중희(2004) 「한민족 문화권의 새 범주와 방향성」 『국제한인문학연구』 1 pp.5-42
- 김태진(2011) 「재미 한글학교 교육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육주체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국
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갑(1995) 「재미교포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정신문화연구』 18-3 pp.119-136
- 민현식(2010) 「미국의 한국어 학습자 의식 조사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7-1 pp.145-171
- 박노면(2000) 「미주 한국인 사회의 문화구조」 『교육학연구』 38-2 pp.65-77
- 박준규(2002) 「‘미주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아이덴티티」 『역사비평』 58 pp.300-321
- 박채형(2011) 「재외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미국의 한글학교·한국학교·한국교육원
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제25권 제1호 pp.73-94.
- 박혜숙(2005) 「미국 소재 주말 한글학교에서의 학습과 그 후 10년」 『教育問題研究(A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3 pp.163-185
- 방혜숙(2011) 「미국 내 비정규 한국어 수업 과정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 『언어와 문화』 7-1 pp.119-147
- 손호민(1990)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 6-1 pp.19-79
- _____(1999)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1 pp.109-142
- _____(2001)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미래 조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1 pp.79-135
- 서효자, 오성삼(1994) 「미주 한인학교의 운영실태와 한국정부의 해외동포 교육지원사업의 발전방향」 『論
文集(THE JOURNAL OF WEDUCATION RESEARCH)』 18 pp.133-168
- 안한나(2008) 「한국어 교육이 정체성 영향에 미치는 영향 - 재미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 『언어와 문화』
Vol.4 No.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139-167
- 양진운(2011) 「미국 한인이민자 초기 이민 적응과정 연구 -LA 한인타운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국가족
복지학』 31 pp.133-142
- 옥선화(2000) 『재미동포 가족의 자녀교육 및 가족생활 실태조사 : 로스앤젤레스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재단,
- 원영준(1994) 「미국 한인사회의 변화와 한인청소년의 생활과 문제」 『한국청소년연구』 19 pp.160-182
- 원진숙, 박나리(2002) 「영어권 교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이중언어학』 20 pp.193-212
- 유해현(2010) 「재미 동포 아동의 코드 스위칭(Code Switching) 연구 : 구어 담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 윤병석(1990) 「國外 韓國人の 歴史와 文化, 社會에 관한 基礎的 研究(1) - 美洲 韓人社會의 成立과 民族
運動」 『한국학연구』 2 pp.1-186
- 윤인진(2000) 「미국으로의 한인 이주와 이민가족의 세대갈등(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nd

- Intergenerational Conflicts in Korean Immigrant Families)』『재외한인연구』9-1 pp.5-44
- _____(2005)「재외동포 차세대 현황과 한민족공동체로의 포용방안」『고조선단국학』13 pp.191-243
- _____(2007a)「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2007b)「재미동포 사회의 현안과 정책적 과제」『재외한인연구』18 pp.31-63
- _____, 임창규(2008)「재미한인 차세대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세대별 및 민족집단별 비교」『世界地域研究論叢』26-3 pp.409-438
- _____(2010)「재외한인연구의 동향과 과제」『재외한인연구』21 pp.326-356
- 윤종문(2007)「하와이 한인중앙학원의 설립과 운영」『사학연구』88 pp.981-1021
- 이광규(2008)「미주 동포와 한국어 교육」『언어와 문화』4-2 pp.1-30
- 이광정(1998)「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발전적 개선안」『이중언어학』15-1 pp.349-384
- 이남근(2003)「미국에서 한국어의 언어지위 향상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Language Status in the United States)」『새국어교육』No.66
- 이대원(2000)「미국 한인 2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Living in Two Different Worlds)」『陸士 論文集』56 pp.73-96
- 이명화(2005)「클래어몬트 한인학생양성소 운영과 국어교육」『한국독립운동사연구』25 pp.63-107
- _____(2008)「도사의 교육관과 초기 미주 한인사회의 교육」『한국독립운동사연구』31 pp.37-86
- 이선근(2007)「재미동포의 한국어 교육」『이중언어학』33 pp.447-468
- 이신행(1985)「미주 한인사회를 통해서 본 공동체화와 자율성」『延世論叢』21-2 pp.321-337
- 이지영(2006)「중급 재미동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 형태적 정확성 향상을 목적으로」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ang Edward(2004)「재미동포 2세 교육의 방향과 미래상」『국제학술대회』1 pp.53-69
- 전택수(2002)「지구촌 한민족경제공동체의 이상과 현실」『재외한인연구』12-2 pp.107-140
- 정성호(2008)「코리안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네트워크로」『한국인구학』31-3 pp.107-130
- 조영미(2010)「북미 지역 내 한국어 마을의 한국어 교육 사례 연구: 미국 콘코디아 언어 마을의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韓國文化人類學』43-2 pp.45-90
- 조현미, 최영동(2000)「海外同胞社會의 變質과 民族意識의 變化」『論文集(THESES COLLECTION)』33-3 pp.497-519
- 조혜영(2000)「재미 한인 2세와 민족 정체성」『在外韓人研究(Studies of Koreans Abroad)』9-1 pp.45-93
- _____(2001)「외국어로서의 “모국어” 학습과 민족 정체성 - 재미한인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 참여 과정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韓國文化人類學』34-2 pp.181-209
- 진제희(2005)「한국어 수업을 위한 내용 중심 교수 방안 -고급 수준 재미 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한국어 교육』16-3 pp.353-377

- 최낙복(2008)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조사 연구」 『우리말연구』 22 pp.211-245
- 최윤선, 김유승(2010) 「Acculturation and the Family: Core vs. Peripheral Changes among Korean Americans(문화 변화와 가족: 미국 한인가정 내에서의 핵심적 변화와 주변적 변화)」 『재외한인연구』 21 pp.135-190
- 한주성(1998) 「재중, 재미, 재일동포의 거주지 분포와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4-2 pp.219-234
- 한형구(2008) 「二重 言語 社會와 交換 可能性(The Bi-lingual Society and a Trans-Possibility for Communication -A Study on the Method of Bi-lingual Education by Way of Research on the Korean-American Society-)」 『어문연구』 36-1 pp.45-485
- 홍애란(2006)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任榮哲(1989) 「在米韓国人の言語生活—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から—」 『計量国語学』 17-1 計量国語学会
- _____(2003) 『在米韓国人および中国朝鮮族の言語生活』 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1.4. 2015년 브라질 조사

1.4.1. 조사 운영 · 조직

- 연구 책임자 1인(해당 지역 언어가 가능한 연구원)
- 연구원 2인(국어학 연구자 및 해당 지역 언어가 가능한 연구원)
- 연구 협력자 2인(브라질 지역 거주 해당 분야 연구자)
- 연구 보조원 2인(통계학 전공자 1인을 포함한 대학원생)
- 보조원 2인

1.4.2. 조사 지역

표11 브라질 지역 국외 동포 현황

순위	지역	인구수
1	상파울루주	48,855
2	빠라나주	604
3	마나우스	595
4	브라질리아	150
5	리오그란지두술주	139

2015년도 조사 지역인 브라질의 국외 동포는 상파울루 지역에 약 48,8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1000명이 되지 않는다. 이에 브라질의 조사 지역은 상파울루 인근 지역 1곳으로 한정하였다.

2015년도 브라질 조사 지역
상파울루 (신이민)

1.4.3.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12 브라질 지역 조사 대상 인원

	분 류			조사 대상자
면접 조사	신이민	1세	1960년대 이후에 건너간 한국인 세대	200명
		2세	국외 동포 한국인 1세의 자녀 세대	200명
심층 면접 조사	위의 각 세대별 면접 조사자 중에서 50명을 선정			50명
합계				450명

1.4.4. 조사 일정

표13 브라질 지역 조사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면접 조사표 검토 및 수정												
면접 조사 현지 조사원 (key person) 섭외												
조사 대상자 선정												
면접 조사 실시 및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 선정												
심층 면접 조사 실시												
면접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심층 면접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비고												

1.4.5. 연구 용역 산출 내역서

(단위 : 원)

구분 \ 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소계	95,222,055		47.7%
책임연구원	14,467,319	(2,803,744×43%)×1인×12개월=14,467,319	
연구원(A)	24,250,556	(2,149,872×47%)×2인×12개월=24,250,556	
연구원(B)	22,702,648	(2,149,872×44%)×2인×12개월=22,702,648	
연구 보조원	19,314,879	(1,437,119×56%)×2인×12개월=19,314,879	
보조원	14,486,653	(1,077,876×56%)×2인×12개월=14,486,653	
경비 소계	96,684,000		48.3%
조사비	14,000,000	(면접 조사)4,000,000 -5,000원×400명(피조사자)=2,000,000 -500,000원×4명(조사협력자)=2,000,000 (심층 면접 조사)10,000,000 -200,000원×50명(피조사자)=10,000,000	
자료망치 구축비	7,500,000	DataBase구축 및 관리 -문자화, 코드화:10인×50시간×5천원=2,500,000 -코드화 작업: 10인×50시간×5천원=2,500,000 -자료분류 및 디지털화 작업보조: 10인×300시간×5천원=1,500,000 -보존 및 관리비: 1,000,000	
여비	71,304,000	(항공권)2,400,000원×9인×1회=21,600,000 (숙식 및 일비)49,704,000 -315달러×1200원×1인×20일=7,560,000 -236달러×1200원×4인×20일=22,656,000 -203달러×1200원×2인×20일=9,744,000 -203달러×1200원×2인×20일=9,744,000	
유인물비	1,750,000	(보고서 인쇄비: 160부, 150p)1,680,000 -(표지)3천원×160부=480,000 -(본문)50원×150p×160부=1,200,000 (보존용 CD)1천원×10개=10,000 (중간 보고서 인쇄비: 10부, 60p)60,000 -(표지)3,000원×10부=30,000 -(본문)50원×60p×10부=30,000 (회의 자료 복사)50원×1600p=80,000 (회의 진행비)20,000원×9인×5회=900,000 (다과비)10,000원×9인×5회=450,000 (수당)200,000원×3인×1회=600,000 (볼펜, 클리어파일 등 문구류)100,000	
회의비	1,430,000		
자문회의비	600,000		
전산처리비	100,000		
일반관리비 (5%)	8,093,945		4.0%
총용역비	200,000,000		100%

《2015년도 브라질 지역 조사를 위한 참고 문헌》

- 김한철(2010) 「브라질 한인동포사회의 실태와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중남미연구』 제28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pp.245-268.
- 서성철·최금좌 외(2007) 『중남미 한인의 역사(재외동포사 총서 06)』 국사편찬위원회
- 윤혜영(2008) 「재남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남섭(2001) 「남미의 아시아 소수 민족과 멕시코 초기 한인사회의 비교연구」 『재외한인연구』 제 10호
- 이재학(2006) 「중남미 한인사회에서의 한국어 상실과 보존: 미국 한인사회와의 비교연구」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pp.161-187.
- 전경수(1989) 「브라질 한국이민의 문화화과정과 자녀교육」 『라틴아메리카연구』 제2권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pp.128-153
- _____(1991) 『브라질의 한국이민』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1992) 「브라질 韓國移民社會 民族觀 문제」 『재외한인연구』 제2호 재외한인학회 pp.45-52.
- 최금좌(2007) 「재브라질 한국이민사회: 세계화 시대 도전과 성취 그리고 전망」 『중남미 연구』 제25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pp.267-305.
- 工藤真由美・森幸一・山東功・李吉鎔・中東靖恵(2009) 『ブラジル日系・沖縄系移民社会における言語接触』 ひつじ書房

1.5. 2016년 일본 조사

1.5.1. 조사 운영 · 조직

- 연구 책임자 1인(해당 지역 언어가 가능 연구원)
- 연구원 2인(국어학 연구자 및 해당 지역 언어가 가능한 연구원)
- 연구 협력자 3인(일본 지역 거주 해당 분야 연구자)
- 연구 보조원 3인(통계학 전공자 1인을 포함한 대학원생)
- 보조원 3인

1.5.2. 조사 지역

2016년 일본 지역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곳의 조사 지역을 설정하였다.

표14 일본 지역 국외 동포 현황

순위	지역	인구수
1	오사카부	129,992
2	도쿄도	114,273
3	효고현	53,142
4	아이치현	40,643
5	가나가와현	34,233

조사 지역은 국외 동포가 가장 많은 1위인 오사카부, 2위인 도쿄도와 4위인 아이치현의 나고야시를 선정하였다. 3위인 효고현은 1위인 오사카부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제일 동포 사회의 지역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부 지방의 아이치현(愛知県) 나고야시(名古屋市)를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16년도 일본 조사 지역

오사카(구이민, 신이민), 도쿄(구이민, 신이민), 나고야(구이민, 신이민)

1.5.3.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15 일본 지역 조사 대상 인원

	분 류			조사 대상자
면접 조사	구이민	1세	1945년 이전에 건너간 한국인 세대	100명
		2세	국외 동포 한국인 1세의 자녀 세대	100명
		3세	국외 동포 한국인 2세의 자녀 세대	100명
	신이민	1세	1980년대 이후에 건너간 한국인	200명
심층 면접 조사	위의 각 세대별 면접 조사자 중에서 50명을 선정			50명
합계				550명

1.5.4. 조사 일정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16 일본 지역 조사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면접 조사표 검토 및 수정												
면접 조사 현지 조사원(key person) 섭외												
조사 대상자 선정												
면접 조사 실시 및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 선정												
심층 면접 조사 실시												
면접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심층 면접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비고												

1.5.5. 연구 용역 산출 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소계		94,163,990		47.1%
책임연구원		13,457,971	$(2,803,744 \times 40\%) \times 1\text{인} \times 12\text{개월} = 13,457,971$	
연구원(A)		19,606,833	$(2,149,872 \times 38\%) \times 2\text{인} \times 12\text{개월} = 19,606,833$	
연구원(B)		29,410,249	$(2,149,872 \times 38\%) \times 3\text{인} \times 12\text{개월} = 29,410,249$	
연구 보조원		18,107,699	$(1,437,119 \times 35\%) \times 3\text{인} \times 12\text{개월} = 18,107,699$	
보조원		13,581,238	$(1,077,876 \times 35\%) \times 3\text{인} \times 12\text{개월} = 13,581,238$	
경비 소계		97,442,000		48.7%
조사비		14,500,000	(면접 조사)4,500,000 -5,000원×500명(피조사자)=2,500,000 -500,000원×4명(조사협력자)=2,000,000	
자료봉치 구축비		7,500,000	(심층 면접 조사)10,000,000 -200,000원×50명(피조사자)=10,000,000 DataBase구축 및 관리 -문자화, 코드화:10인×50시간×5천원=2,500,000 -코드화 작업: 10인×50시간×5천원=2,500,000	

구 분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여비		71,112,000	-자료분류 및 디지털화 작업보조: 10인×300시간×5천원=1,500,000 -보존 및 관리비: 1,000,000 (항공권)500,000원×12인×1회=6,000,000 (숙식 및 일비) 65,112,000	
유인물비		1,750,000	-315달러×1200원×1인×20일=7,560,000 -236달러×1200원×5인×20일=28,320,000 -203달러×1200원×3인×20일=14,616,000 -203달러×1200원×3인×20일=14,616,000 (보고서 인쇄비: 160부, 150p)1,680,000 -(표지)3천원×160부=480,000 -(본문)50원×150p×160부=1,200,000 (보존용 CD)1천원×10개=10,000 (중간 보고서 인쇄비: 10부, 60p)60,000	
회의비		1,880,000	-(표지)3,000원×10부=30,000 -(본문)50원×60p×10부=30,000 (회의 자료 복사)50원×1600p=80,000 (회의 진행비)20,000원×12인×5회=1,200,000	
자문회의비		600,000	(다과비)10,000원×12인×5회=600,000	
전산처리비		100,000	(수당)200,000원×3인×1회=600,000 (볼펜, 클리어파일 등 문구류)100,000	
일반관리비 (5%)		8,394,010		4.2%
총용역비		200,000,000		100%

《2016년도 일본 지역 조사를 위한 참고 문헌》

- 김기태(2007)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송이(1993) 「재일자녀를 위한 총련의 민족교육 현장에서—오사카 조선고급학교에서의 〈국어〉 수업과 〈세계문학〉수업을 두고—」 『二重言語学会誌』 10 二重言語学会(韓国)
- 金静子(1994) 「일본내의 한·일 2 언어 병용화자(한국인)의 Code-Switching에 대하여 (‘-하다’와 ‘-する’를 중심으로)」 『二重言語学会誌(11) 국제화 시대의 이중언어교육』 二重言語学会(韓国)
- _____(2002) 『재일 한국인 1세의 한국어 일본어 혼용실태에 대한 연구—오사카지역을 중심으로—』 태학사(韓国)
- 塚本勲・金静子(1992) 「在日韓国・朝鮮人の 言語—一世・二世・三世를 통하여—」 『国語学研究百年史Ⅲ』 一方言論・応用論・北韓의 国語学・海外의 韓国語学-』 (高永根他編) 一潮閣(韓国)

- 정병표(1993)「우리말 지도의 현장과 과제 -백두학원 건국학교를 중심으로-」『二重言語学会誌』10 二重言語学会(韓国)
- 洪錫華(1993)「모국어 교육의 현장, 민족학교-金剛學園을 중심으로-」『二重言語学会誌』10 二重言語学会(韓国)
- 井上史雄(1989)「在日韓国人の言語調査最終報告」『日本の多言語使用についての実態調査』(私家版)
- 伊藤英人(1989)「在日朝鮮人によって使用される朝鮮語の研究の必要性について」『日本の多言語使用についての実態調査』(私家版)
- イリーナ・キム(1994)「朝鮮総聯の朝鮮語教育コミュニティ再生産のテクノロジー」『新しい日本観・世界観に向って』(ジョン・C・マーハ, 本名信行編著)国際書院
- 任榮哲(1992a)「二言語併用の社会言語学的研究一在日・在米韓国人の実態調査の結果から一」『日本語学』11-13 明治書院
- _____(1992b)「在日韓国人の意識構造及び言語意識」『計量国語学』18-5 計量国語学会
- _____(1993)『在日・在米韓国人および韓国人の言語生活の実態』くろしお出版
- 植岡晃次(2001)「『総聯朝鮮語』の基礎的研究一そのイデオロギーと実際の重層性」『「正しさ」への問い一批判的社会言語学の試み一』(野呂香代子・山下仁編著)三元社
- 生越直樹(1982)「在日韓国・朝鮮人のペリカリズム一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から」『待兼山論叢日本学篇』16 大阪大学文学部
- _____(1983)「在日朝鮮人の言語生活」『言語生活』376 筑摩書房
- _____(1991)「在日韓国・朝鮮人の言語生活」『月刊言語』1991-8 大修館書店
- _____(2002)「在日コリアンの言語使用状況とその推移一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から一」第192回朝鮮語研究会発表資料
- _____(2003)「使用者の属性から見る言語の使い分け一在日コリアンの場合一」『月刊言語』2003-6 大修館書店
- _____(2005)「在日コリアンの言語使用意識とその変化一ある民族学校でのアンケート調査結果から一」『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和泉書院
- 吳恵卿・植田晃次(2005)「韓国系民族学校における「共生」一実践的な取り組みを中心として一」『言語の接触と混交・共生を生きる日本社会』大阪大学21世紀COEプログラム「インターフェイスの人文科学」報告書
- 康貞姫(2002)「言語接触と言語変化一大阪居住の済州方言話者社会の方言保存に対する調査一」『国語学』40 国語学会(韓国)
- _____(2003)「言語接触と言語変化一大阪居住の済州方言話者集団における日本語との接触現象について一」『東アジア研究』37 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
- _____(2005)「在日韓国人の韓国語に対する言語選択調査一大阪地域社会を中心に一」『東アジア研究』42 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
- 岸田由美(1997)「異文化共生教育としての在日韓国・朝鮮人教育一民族講師と日本人教師との関係を中心に一」『異文化間教育』11, 異文化間教育学会
- 金智英(2004)「在日コリアン一世の指示詞の運用」『世界の日本語教育』14 国際交流基金(『日本語研究の前衛』(2005)に再録)

- _____(2005)「在日コリアン1世の否定表現の運用」『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和泉書院
- _____(2006)「在日コリアン一世の言語運用の一実態」『韓国人による日本社会言語学研究』おうふう
- 金徳竜(1991)「在日朝鮮人子女のバイリンガリズム」『日本のバイリンガリズム』(ジョン・C'マーハ, 八代京子編)研究社出版
- 金美善(1998)「在日コリアン一世の日本語一大阪市生野区に居住する一世の事例一」『日本学報』17 大阪大学文学部日本語学研究室
- _____(2000)『在日コリアンの言語接触に関する社会言語学的研究一大阪市生野区周辺をフィールドとして一』平成12年度博士学位申請論文
- _____(2001a)「在日コリアンの混用コードについて一大阪市生野区周辺における言語接触の観点から」『青丘学術論集』19 財団法人韓国文化研究振興財団『日本語研究の前衛』(2005) に再録
- _____(2001b)「在日コリアン1世の接触変異音の生起と定着過程について一異なる社会的属性を有する1世を事例として-」『阪大日本語研究』13 大阪大学
- _____(2001c)「大阪市生野区周辺在日コリアン一世の混用コード(チャンボンマル)」第8回社会言語科学会研究大会ワークショップ配布資料
- _____(2002)「在日コリアンの言語接触現象:大阪市生野区の事例を通して」『第1回世界韓国学/朝鮮学/コリア学大会論文集Ⅲ』韓国精神文化研究院
- _____(2003a)「混じり合う言葉一在日コリアン一世の混用コードについて一」『言語』Vol.32-No.6 大修館書店
- _____(2003b)「言語景観からみた日本の多民族化看板に現れた新来韓国人コミュニティを事例に」『国際移民の自存戦略とトランスナショナル・ネットワークの文化人類学的研究』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 _____(2005)「言語景観にみえる在日コリアンの言語使用一新来者の登場がもたらしたもの一」『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和泉書院
- _____(2005)「残存韓国語語彙の様相一ある在日2・3世の場合一」『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和泉書院
- 熊谷明泰(1983)「在日朝鮮人の言語生活一南北朝鮮の言語政策との関連において一」『在日朝鮮人史研究』12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会
- 郭銀心(2002)「韓国の帰国子女の言語生活-日本語と韓国語間のコード・スイッチングを中心に-」『言語情報科学研究』7 東京大学言語情報科学研究会
- _____(2005)「帰国子女のコード・スイッチングの特徴」『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和泉書院
- 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2005)『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和泉書院
- 真田信治監修・任榮哲編(2006)『韓国人による日本社会言語学研究』おうふう
- 渋谷勝己・金美善(1999)「在日コリアン一世の日本語中間言語における動詞文」『第2言語としての日本語の習得に関する総合研究』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

- 申昌朱(2005)「民族教育の歴史と朝鮮学校における朝鮮語教育」『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和泉書院
- Sonia, Ryang. (1997)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Westview Press.
- ソニア・リャン著・中西恭子訳(2005)『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 在日朝鮮人とアイデンティティ』明石書店
- 朱見淑(2003)「日本語を母語としない児童の母語力と家庭における母語保持」『言語文化と日本語教育』26 お茶の水女子大学日本言語文化学会
- 鄭喜恵・八島智子(2004)「在日韓国人の言語使用とアイデンティティ」『第25回大会発表抄録』異文化間教育学会
- 竹口智之(1999)「日本における民族学校での二言語教育に隠する一考察—韓国系民族学校を中心に—」『教育学研究紀要』45-2 中国四国教育学会
- 都思珍(2001)「事例研究:日本語—韓国語混合文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のコード切り替え—」『日本文化学報』10 韓国日本文化学会
- 朴校熙(2002)「日本定住外国人の国語教育の実態とその考察—在日韓国・朝鮮学校におけるバイリンガル教育をめぐる一—」『学校教育学研究論集』6 東京学芸大学大学院連合学校教育学研究科
- 朴成虎(2003)「在中朝鮮族の母語能力の低下」『日本研究』中央大学 日本研究所
- 朴良順(2003a)「滞日韓国人中高生における日韓両言語による敬語行動」『2003(平成15)年度日本語教育学会春季大会予稿集』日本語教育学会
- _____(2003b)「滞日韓国人年少者における交友ネットワーク」『第11回社会言語科学大会予稿集』社会言語科学会
- _____(2005)「日本語・韓国語間のバイリンガリズムとコード・スイッチング」『日本語研究』25 東京都立大学国語学研究室(『韓国人による日本社会言語学研究』(2006)に再録)
- _____(2006)「日韓バイリンガル中高生における二言語による敬語行動—母語話者との対照を中心に—」『計量国語学』25 巻6号 計量国語学会
- 藤井幸之助(1999a)「在日朝鮮人の言語状況と民族語使用权」「ことばへの権利言語権とはなにか」言語権研究会編 三元社
- _____(1999b)「在日朝鮮人の言語生活と朝鮮語教育—朝鮮語を知らない世代がふえる中で—」『世界の言語問題』4 新プロ「日本語」研究班+言語政策研究会
- 黄鎮杰(1994)「在日韓国人の言語行動—コード切り替えにみられる言語体系と言語運用—」『日本学報』13 大阪大学文学部日本語学研究室
- マーハ, ジョン・C(1997a)「日本におけるコミュニティ言語:現状と政策」『多言語・多文化コミュニティのための言語管理—差異を生きる個人とコミュニティ』国立国語研究所
- _____(1997b)「日本のコリアン・バイリンガリズム」『多言語・多文化コミュニティのための言語管理差異を生きる個人とコミュニティ』国立国語研究所
- マーハ, ジョン・C, 川西由美子(1994)「日本におけるコリアン維持状況」『新しい日本観・世界観に向かつて』国際書院
- 前田達朗(1999)「誰を『在日』と呼ぶか—言語調査の結果より—」『SUDIUM』26 大阪外国語大学

- _____ (2002) 「『在日』とニューカマーの接触の一事例－出稼ぎ労働者と『在日』労働者についての参与観察」
『研究大会年報』多言語社会研究会 三元社
- _____ (2005) 「『在日の言語意識－エスニシティと言語－』『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真田信治・生越直樹・任栄
哲編) 和泉書院
- 前田理佳子(1999) 「在日コリアン一世の談話におけるスタイル切り替えスピーチレベルシフトの様式に着目して」『待兼山
論叢日本学篇』33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 文春琴(1997) 「在日韓国・朝鮮人一世の言語運用の特徴－バイリンガリズムに見られる言語的特性を中心に－」『日
本語教育論文集－小出詞子先生退職記念－』凡人社
- 湯川笑子(2003) 「L1教育からイマージョンへ－朝鮮学園の継承語保持努力の事例から－」母語・継承語・バイリンガ
ル教育研究会
- 吉田さち(2003) 「韓国系民族学校における二言語併用の規定要因」『第四回社会言語科学会大会予稿集』社会言
語科学会
- _____ (2005) 「二言語の能力とコード・スイッチング－韓国系民族学校の高校生を対象として」『社会言語科学』
8-1 社会言語科学会
- _____ (2007) 「韓国系民族学校における社会的バイリンガリズム」『言語情報科学』5 東京大学総合文化研究科
言語情報科学専攻

제6장 외국의 사례

본 장에서는 외국의 사례 중 하나로, ‘브라질 일본계 사회 언어의 종합적 연구 및 기록·보존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장의 내용은 구도편(工藤編, 2003·2004) 및 이길용(李吉鎔, 2006a)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²³⁾

1.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언어 실태 조사

브라질 일본계 사회 언어의 종합적 연구 및 기록·보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정치·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원래 일본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와 제2언어로서 일본어를 습득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원래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들이 국외로 나가 현지 언어와 일본어의 이중 언어 화자가 되거나, 혹은 현지 언어 능력이 월등히 높아져 일본어를 잊어버리게 되는 일도 종종 관찰된다. 현재 일본의 각 지역에는 30만 명이 넘는 재일 브라질인이 소수 언어 이민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들은 점차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추세이다.(그 대부분이 일본계이다.) 한편 브라질 일본계 사회는 2008년에 일본인 브라질 이민 백주년을 맞이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과 브라질의 관계는 이후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의 일본계 브라질인 이민 사회의 언어 문제나,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언어 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인식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사나다 편(真田編, 2006). 브라질 일본계 사회 언어의 연구 흐름을 개관하고 앞으로의 연구 전망에 대하여 고찰한 산토(山東, 2003)는 브라질 일본계 사회를 대상

23) 제6장은 외국의 사례에 관한 선행 연구를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해당 논문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하기로 한다.

으로 한 체계적인 언어학적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언어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브라질 이민 1세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 지금이,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한 1세의 일본어를 비롯한 브라질 일본계 사회 내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으며, 그 기록과 보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민 1세가 사용하는 일본어와 포르투갈어가 접촉·혼화하여 변용된 ‘콜로니아어(Colonia語)’와, 나아가 일본어의 계승과 동시에 세대가 내려감에 따라 포르투갈어로 점점 전환되고 있는 브라질 일본계 사회 언어의 실태를 밝히는 것은 학문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큰 의의가 있는 일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오사카대학 21세기COE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인문학’ <언어의 접촉과 혼화> 연구팀에서는 일본어와 포르투갈어라는 계통이 다른 두 언어가 브라질 일본계 사회에서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그 접촉 상황을 포괄적이며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브라질 일본계 사회 언어의 종합적 연구 및 기록·보존 사업’(이하, ‘일본계 사회 언어 조사’라 약칭)을 실시하였다. 일본계 사회 언어 조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일본과 브라질 양국의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종합적인 언어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점
- (2) 언어 조사와 병행하여, 문화인류학과 지역연구라는 학술적 견지에서 브라질 이민에 대한 문헌 자료 조사도 실시하는 점
- (3) 일본과 브라질, 연구자와 현지인을 잇는 연구 사업이 조직된 점

일본계 사회 언어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축적된 선행 연구를 세밀히 파악함과 동시에 일본과 브라질 연구자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 작업으로 포괄적인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과 브라질의 우호에 대한 공헌을 이념으로 하여 종합적인 학술 교류의 지속과 일본계 사회의 사회 문화적 배경, 더 나아가서는 역사, 정치 상황 등 언어 외적 상황 또한 시야에 넣은 복수 문화의 접촉면에 대한 동태적인 관찰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일본계 사회 언어 조사는 단순히 언어 자료의 수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현지인을 잇는다는 점에서 인문과학계에 대단히 바람직한 자세를 선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계 사회의 언어 조사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문학의 각 학문이 각각의 경계를 허물고 복수 문화의 격렬한 접촉 속에 있는 브라질 일본계 사회에 영역 횡단적으로 접근하여, 일본과 브라질, 연구자와 현지인을 잇는 임상적인 시점을 취하는 종합적 언어 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계 사회 언어 조사의 흐름과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회 연구회를 2002년 12월 15일에 오사카대학에서 실시하였다. 이후 일본에서는 2003년 1월 18일 및 2월 17일에 각각 연구회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조사 준비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쿄에 거주 중인 브라질 일본계 가족에 대한 예비 조사를 1월에 실시하고(나카토 야스에, 레오날도·멜로 담당), 브라질 연구자 측에서 수집한 담화 자료의 문자화 작업을 시행하면서 문자화의 원칙에 관한 방법론을 검토하였다(나카토, 이길용 담당). 이어서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격적인 언어생활 조사표를 고안하였다(엘렌·나카미즈, 이길용 담당). 한편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일본어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문헌 자료의 조사를 실시하여(산토 이사오 담당) 약 100건의 연구 논문을 수집하였다. 같은 기간 중, 브라질 측에서도 Elza Taeko Doi(브라질 측 연구자 대표)의 지휘 아래 브라질 내 연구자의 공동연구회가 4회 조직되어 언어 조사에 관한 구체적 순서 및 방법론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다. 토의 결과,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조사에 관해서는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사업과 언어생활 조사, 문헌 조사의 세 가지가 중점 항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른바 콜로니아 문학이라고 불리는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문학 작품 및 일본계 일본어 신문, 일본계 이민 1세의 자서전과 전기 등 문헌에 대한 예비 조사도 브라질에서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모리 고이치 담당). 그리하여 2003년 3월 10일에는 일본 측 연구자와 브라질 측 연구자의 합동 연구회를 실시하여, 다음 날인 3월 11일에는 전국 규모의 학술심포지엄을 오사카대학에서 개최하였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실시된 일본계 사회 언어 조사 연구는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언어에 관한 문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진다.

- (1) 브라질에서의 일본어 연구 실적 소개 및 일본에서의 일본계인의 언어 연구 실적 소개
- (2) 브라질 연소자(年少者)에 대한 다언어 상황 하의 일본어 교육의 개발적 연구

(1)에 관해서는 브라질에 일본어 연구 문헌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포르투갈어로 쓰인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이 사업은 세계 속의 일본어라는 관점에서 외국에서의 일본어 연구의 의미를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가는 데 있어서도 공헌하는 것이다.

(2)에 대해서 본격적인 실시를 2004년도 이후로 예정하고 있지만 ‘브라질 연소자에 대한 일본어 교육에 관한 예비 조사는 이미 2003년 1월에 실시되었다.

여기에서는 일본계 사회 언어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소개하기로 한다.

- 1.1. 연구의 목적 및 한계
- 1.2.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특징
- 1.3. 조사 지역 선정 및 특징
- 1.4. 연구 방법론 개발
- 1.5. 언어 실태 조사의 개요
- 1.6. 언어 실태 조사의 결과 소개

1.1. 연구의 목적 및 한계

일본계 사회 언어 조사는 ‘브라질 일본계 사회 언어의 기록·보존’을 제1목적으로 하며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언어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제2목적으로 한다.

먼저 ‘언어의 기록·보존’은 곧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는 1세의 일본어와 포르투갈어가 접촉·혼화하여 변용된 ‘콜로니아어’를 충실히 기록하고 나아가 일본어를 계승하면서도 세대가 내려감에 따라 포르투갈어로 전환되고 있는 브라질 일본계 사회 언어의 현 실태를 기록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일본어는 일본의 각 지역 방언이 접촉하여 생겨난 ‘혼화 일본어’이며, 잠재적(潛在的)으로 포르투갈어의 영향도 받고 있다. 위세어인 포르투갈어의 현재적(顯在的) 영향을 받은 콜로니아어는 물론이고, 혼화 일본어의 실체를 밝혀내 그 운용 실태를 기술하는 것이 ‘언어의 종합적 연구’의 목표이다.

지금까지 브라질 일본계인의 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크게 이민자 본인에 의한 연구와 언어학 분야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민자 본인에

의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때 콜로니아어에 관한 연구가 전개되기도 했지만(半田, 1952, 1972, 1980a, 1980b, 1980c, アンドウ, 1956, 1958, 1966, アンドウ 他, 1951, 佐藤, 1956, 半田他, 1970, 前山, 1972) 당초부터 일관되게 일본어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사회언어학 영역에서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언어를 대상으로 한 전문 연구와 그에 대한 언급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비교적 많은 양이 축적되어 있다. 나카토(中東) 및 MELO(2003:70~72)의 정리에 따르면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언어학적 연구의 주요 대상은 콜로니아어라는 일종의 독특한 일본계인들의 일본어로, 주요 연구 과제로는 콜로니아어의 포르투갈어 어휘 차용 연구(太田, 1959, 比嘉, 1982, 久山, 2000a, 2000b 등), 콜로니아어의 기능(比嘉, 1982), 일본계인의 언어 방언적 특징(馬瀬, 1986 등) 또는 경어 행동(鈴木, 1994) 등이 있다.

그러나 산토(山東, 2003)는 브라질 일본계 사회에서 실시되어 온 언어학적 연구에는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언어학적 연구 중에는 일본계 사회의 언어학적 실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체계적으로 기술·분석한 것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적 문제와 일본계인과 일본계 사회가 경험해온 역사,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분석 및 해석의 경시 내지는 부족에 대한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언어학이라는 학문 영역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브라질의 언어학적 연구는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인식(예를 들어 사례의 대표성(representividade)과 전체적인 파악(totalidade)이라는 시점 등), 또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는 기존 브라질 일본계인의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브라질 일본계인의 언어 연구의 새로운 전개와 가능성을 추구하고자 계획되었다. 기존의 언어학적 영역에서의 브라질 일본계인의 언어 연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그 속에 내재된 방법론적 문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관련 제반 과학과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종합적·학제적·체계적으로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언어에 접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식에 기초하여 브라질의 대표적인 일본계 사회에 대한 기초 사회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생활 조사 및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조사 연구의 큰 특징은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에 입각한 ‘언어 생활 조사’와, 다시 그에 입각한 ‘언어 사용 실태 조사’라는 계통성을 통하여 미시적인 언어 구조 측면에서의 분석이 그 배경에 있는 언어생활은 물론이고 거시적인 사회생활 측면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을 만한 포괄성과 계통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이 이 연구는 다양한 한계와 이후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먼저 본 일본계 사회 언어 조사에서 채집한 자료는 브라질 일본계 사회 전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2세의 경우 1세에 가까운 유형에서부터 3세에 가까운 유형까지 다양성이 풍부함에 유의해야 한다. 또 1, 2세의 담화 녹음 내용이 녹음 기자재를 눈앞에 두고 수록된 것이므로 조사자가 녹음 현장에 없었다고는 하나 그를 현실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도 조사가 끝나고서야 일본어와 포르투갈어가 혼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발화 형태가 출현하는 등 관찰자의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연구팀에서 실시한 조사는 약 14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일본계 인구의 극히 일부, 더욱이 농촌 거주자로 제한되어 있어 언어 환경이 크게 다른 도시 거주 일본계 언어 사용 실태는 미조사 상태이다. 또한 농촌부 일본계 집단지 중에서도 상파울루 주에 위치한 두 지역에 불과하다. 브라질 국내 일본계 집단지는 농촌에서만 100개 이상 존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언어생활 실태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집단지는 북부 아마존 지역에서 남부, 또한 동북 브라질 지역, 중서부 지역 등 다양한 기후·지리적·역사적·사회적 환경의 차이가 큰 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며, 일본계인의 언어생활과 언어의 지역적 편차 등에 관한 연구는 이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브라질 일본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다른 본토계 일본계인과는 이질적인 역사 과정을 쌓아온 오키나와계 일본인의 언어생활에 관한 실태 파악도 이후의 과제가 된다.

그리고 이번 언어생활 조사 및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는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언어 중, 일본어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소멸하고 있는 언어’의 기록·보존의 긴급성과도 관련된다.) 물론 브라질 측과의 연구 분담으로 브라질 측 연구팀은 포르투갈어에 의한 언어 자료의 채집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후 일본계인을 둘러싼 언어 연구는 일본계인이 말하는 일본어와 포르투갈어의 상호

관련성을 염두에 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고찰, 모델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특이한 언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계인의 새로운 이동(일본으로의 이주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디아스포라적 일본계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도 이후 더욱 중요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후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언어학적 연구의 전개와 심화에, 그리고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이후 더욱 증가할 일본어와 다른 언어와의 언어접촉을 비롯한 언어학적 연구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자부한다.

마지막으로 일본계 사회의 언어 조사의 사회적 사명에 대하여 언급하여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현지조사형 연구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현지인과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자 간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일본과 브라질의 우호에 대한 공헌을 이념으로 설정한 일본계 사회의 언어 조사 연구에서는 임상성·횡단성이란 시점에서 언어 조사 시의 연구자와 현지인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이길용, 2006b). 이길용(2006b)은 연구자와 현지인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고 호혜적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구자와 현지인이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행동 계획을 책정하는 ‘참가형 액션 리서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언어 조사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 (1) ‘현지인과의 대화의 임상성’이라는 시점에서 연구자는 (언어) 조사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 (2) 연구자 및 학문 영역의 횡단성이라는 시점에서 필드를 공유하는 연구자와 학문 간에 자료의 공유를 포함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지금까지의 조사 연구에서는 조사 디자인과 자료 수집, 보고서 간행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현지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연구자와 현지인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검토를 거쳐 일본계 사회의 언어 조사 연구에서는 보고서뿐만 아니라 영상 자료를 현지에 환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에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저작권, 자료 유용 등의 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1차 자료(무수정 데이터 원본)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현지에 환원하였

다. 이는 현지인을 단순한 조사 대상자가 아닌 연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와 현지인이 협력하여 계속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 시도였다. 조사는 현지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며 조사에 대한 협력은 현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상 중의 비일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현지인의 생활 리듬에 맞추어 조사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사에 대한 협력이 현지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거나, 혹은 현지인이 스스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연구자가 적극 도움을 주는 것이 연구자의 사명 중 하나라고 하겠다.

1.2.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특징

브라질로의 일본 이민은 1908년 제1회 카사토마루호 이민을 시작으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총 약 18만 8천명이 브라질에 입국하였다(브라질 노동 상공성 이민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戰後)에는 1953년에 이주가 재개되어 90년대 초까지 약 5만 4천명이 브라질로 도향하였지만(이 수치는 93년까지의 국제협력사업단 취급 이주자수), 80년대에 이주자수가 급감하여 실질적으로 ‘이주의 시대’가 끝나게 된다. 그리하여 약 24만 명의 일본인이 브라질에 도향하였다.

다음 표1은 브라질로의 일본 이민 입국수를 4개 시기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를 1924년으로 구분한 것은 1924년에 상파울루주 정부의 도향비 지급 폐지로 인하여 일본 정부에 의한 도향비 지급이 결정되어 국책 이민으로 그 성격에 큰 변화가 있었던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해 브라질로의 일본 이민은 제2기에 전체의 약 60%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의 일본 이민의 특징은 (1)그 대부분이 다민족적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파울루 주 내의 커피 농장(Cafezal)에서의 계약 노동 이민인 점(브라질인이나 다른 민족 집단과의 집단적 지속적인 접촉), (2)상파울루 주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서 12세 이상의 노동력 3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이민이 원칙이었던 점(여성, 아이, 노인 등의 존재), (3)그 대부분이 객지별이가 목적이었던 점, (4)이민자의 출신지별 구성에서 서일본 지역 출신자가 현저히 많았던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1 브라질로의 일본 이민 입국자 수 (1908~1963)

시대구분	입국자 수	비율
제1기 (1908~1923)	32,266	13.3%
제2기 (1924~1941)	156,349	64.6%
제3기 (1942~1951)	151	0.06%
제4기 (1952~1963)	53,405	22.1%
전 체	242,171	100%

출전: 마에야마(前山, 2001)

이러한 특징은 브라질 일본계인의 언어적 양상을 크게 규제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이민의 경우, 농업 계약 노동자(콜로노·Colono)로서 커피 농장에 취업했는데 이 콜로노 제도는 실상 노예제로 간주되는 노동 제도로서, 콜로노로서 저축을 하여 일본에 금의환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상파울루 주 오지에서 대토지 소유제가 붕괴되고 상파울루시가 공업화됨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보다 중·장기적인 객지별이 전술이 자영농 전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전술은 식민지나 콜로니아로 불리는 일본계 지역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졌으며, 1910년대부터 이미 이러한 에스닉 공동체가 만들어져 그 최성기(最盛期)인 1930년대에는 500개~600개로 추정되는 지역 공동체가 상파울루 주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브라질로의 일본 이민의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가족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객지별이 이민이었기 때문에 노동력 면에서 유리한 젊은 가족 구성이 많았던 점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여성, 아이 등을 포함한 가족 구성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민자들 사이에서 큰 문제의 하나로 대두된 것은 일본에 귀국하였을 때 브라질에서 성장한 어린이들의 일본 사회로의 재적응 문제였다. 이 염려로 인하여 콜로니아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에는 일본(어) 학교가 창립되어 그곳에서 일본어 교육과 일본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일본 이민의 경제적 안정(상승)과 콜로니아로의 거주화가 진행되는 1920년대부터는 수많은 일본어 신문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계 미디어가 출현하며 ‘에스닉 일본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갔다. 지역 공동체의 형성은 이민의 다양한 인간관계-동향, 친족 등-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초

기에는 보다 유리한 돈벌이를 목표로 하여 활발한 지역적 이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민의 출신지 구성의 권력 관계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일본어를 형성하여 왔을 가능성이 높다.

1920년대 후반부터 패전 직후까지 이러한 지역 공동체는 두 개의 국가 내셔널리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일본어 교육은 보다 국어 교육적 양상을 강화하여, 국어 교육과 천황 숭배 의례를 통해 일본 신민을 구성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한편, 1930년대의 일련의 내셔널리즘 정책은 외국인 이민의 브라질로의 동화나 자녀의 브라질 국민화를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콜로니아에 형성된 일본(어) 학교는 브라질 교육 제도에 기반한 브라질 학교로 바뀌었으며, 일본어 교육은 위법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외국어 출판물들이 폐간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그 이후에 이민자들이 새로운 생활 전술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몇 개의 중요한 상황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는 브라질이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특히 일본계인이 종사하는 농업 부문이 경기가 호전되어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점이며, 일본 패전에 의하여 귀환하여야 할 조국을 상실한 점, 그리고 브라질 국민으로 자라나는 2세의 존재 등이 브라질 영주라는 새로운 생활 전술과 그것과 교착하는 새로운 자기관(=콜로니아인)이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다. 콜로니아·아이덴티티의 창출 과정은 스스로 포르투갈어가 섞인 일본어라고 말하는 언어에 새롭게 콜로니아어라는 상표를 붙여, 그 언어를 일본의 일본어로부터 독립시켜 브라질의 일본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독자성(특수성)을 주장해간다는 것이었다.

1950년대부터는 한때 활동을 정지하고 있던 지역 일본인회가 문화협회라는 명칭으로 재조직되어 에스닉 중앙 조직으로서 거듭났다. 일본어 교육도 1950년대 초에 공식적으로 재개되어 1950년대 후반부터는 에스닉 일본어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과서 제작 운동도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계 에스닉 조직은 1980년대를 경계로 주요 구성 주체인 1세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그 구심점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조직 활동의 저하 및 조직의 소멸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1970년대 이후에는 브라질-일본 간의 초국경적인 교사 양성 제도와 연수·유학 제도가 구축되어 일본어 교육 패러다임(paradigm)이 계승어에서 외국어로서의 일본어 교육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브라질로의 영주 지향은 자녀의 고학력 취득으로 인한 계층 상승 전술과 교차하면서, 상파울루시를 중심으로 한 일본계인의 도시 이동 추세를 가속화시켰다. 1958년 기준으로 당초 대부분이 농촌부에 들어가 있던 일본계인 인구 가운데 농촌부 거주 비율은 전체의 55.1%로 감소하였으며, 상파울루시 등의 도시 거주 비율은 44.9%에 달했다. 1988년에는 일본계인 인구의 도시 거주 비율은 90% 정도까지 증가하여 대부분의 일본계인에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일본계인의 사회경제적 상승 전술(고학력 취득)과 관련되어 있으며, 1958년 기준 농목 수산업 등 제1차 산업 종사 인구 비율이 56%로 상당히 높았던 것에 비해 1988년에는 12%까지 감소하며 전문 기술직(16%), 관리 사무직(28%) 등 자유업이나 샐러리맨 등의 전문 직종이 증가하게 되었다.

30년 후인 1988년의 일본계인의 인구는 약 128만 8천명으로 추정되며, 지역적 분포로는 상파울루 주 거주자가 70%를 넘고, 그 중에서도 상파울루시에 총 인구의 27%가 집중되어 있었다. 상파울루 주 다음으로 일본계인의 인구가 많은 지역은 파라나 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으로, 전체의 12%가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본계인의 인구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이민 1세 인구는 전체의 13%로 전체의 80% 이상이 브라질 태생 일본계인이다. 2세는 31%, 3세는 41%, 4세는 13%, 5세 이하는 0.3%로, 3세가 인구 구조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일본계인의 이민족 결혼(inter marriage)도 30년간 계속 증가하여, 1988년에는 전체의 약 46%가 일본계인과 비일본계인 간의 결혼이었다.

브라질로의 일본 이민이 실질적으로 끝난 1980년대에는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단순 노동력이 급격하게 부족해졌고, 브라질 경제는 ‘사라진 80년대’라고 불릴 정도로 추락하게 되어 중간 계층의 주체였던 일본계인의 생활이 파폐해져 갔다. 이러한 양 국가의 상황이 주요한 요인이 되어,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이민 및 이중 국적을 취득한 2세를 중심으로 일본 취업 현상, 이른바 객지별이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현상은 그 후 1990년 6월의 입국 관리·난민 구제법 개정 등에 의하여 일본계 2, 3세 및 그 배우자에게 취업이 가능한 사증(비자)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더욱 확대되었다.

현재 약 30만 명 정도의 브라질 국적자(일본계·비일본계를 포함하지만 일본 국적을 보유한 1세 및 이중 국적자는 제외)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객지별이 현상

의 발생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현상은 꽤 큰 변용을 이루어 현재는 객지별이의 거주화(장기체류화)나 반복화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관련된 문제도 사회생활적 문제(자녀의 교육 문제, 지역 사회와의 공존 문제, 자기 정체성의 문제 등)로 바뀌어 가고 있다.

1.3. 조사 지역 선정 및 특징

1.3.1. 조사 지역 선정 이유

일본계 사회 언어 조사에서는 먼저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를 일본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상파울루 주를 중심으로 한 남동부와 파라나 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에 흩어져 있는 일본계 지역 집단지를 대도시, 지방 도시, 근교 농촌, 오지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각각의 입지 환경에 설립된 일본계 집단을 각각 한 지역씩 선정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상파울루시 비라카론(Vila Carrão)지역(대도시), 파라나 주 마린가시(Maringa)(지방도시), 상파울루 주 스자노시(Suzano) 후쿠하쿠 마을(Vila Ipelândia)(근교 농촌), 그리고 같은 주 미란드폴리스시(Mirandópolis) 아리안사 이주지(오지 농촌)이다. 각 조사 지역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 표2이다.

표2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 조사지 개요

입지 조건	조사 대상 지역	특 징
대도시	상파울루시 동부 비라카론 지구(일본계인 세대 약 1천 세대, 오키나와계 약 1천 가구)	해당 지역의 일본계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본토계 일본인회와 오키나와 현인회 지부의 두 일본계 에스닉 조직이 병존하고 있다. 조직 가입 비율은 양쪽 모두 약 50%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상파울루 시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민족 조직이다.
지방 도시	파라나 주 마린가시(지역에 거주하는 일본계 세대수는 미상. 현지의 일본계 회원 세대수 약 1천 세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 상파울루 주 오지에서 옮겨온 이민자들이 만든 이민 사회로, 현재는 2세 및 3세가 주체가 되고 있다. 이곳에는 핵심적인 에스닉 조직으로 스포츠클럽 형식의 일본계 조직이 있다. 도시 행정과 연계된 ‘일본계 문화’ 실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입지 조건	조사 대상 지역	특 징
근교 농촌	상파울루 주 스자노시 후쿠하쿠 마을 (134 가구)	1930년대 초반, 상파울루 주 오지에서 전입한 이민자들이 정착한 후, 점차 정착민이 증가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콜로니아. 마을 모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10년마다 독자적인 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마을의 역사적 추이 파악이 가능하다.
오지 농촌	상파울루 주 미란드폴 리스시 아리안사 이주 지 (187세대)	1920년대에 국외이주협회에 의하여 창설된 이주지로 제1, 제2, 제3이주지가 있다. 각각 나가노 마을, 돗토리 마을, 도야마 마을이라고 불린다. 브라질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형 일본계 농촌 집단지 중 하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민은 적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이민자와 그 자녀가 주요 구성원이다.

다음으로 언어생활 조사는 앞에서 개관한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에 의거하여 입안되었다. 언어생활 조사는 브라질 일본계인·일본계 사회의 언어 사용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목적에 따라 특정 일본계 집단지를 조사지로 정하여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조사지는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에서 조사지가 된 일본계 집단 지역 중 하나를 선정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 집단 지역의 조사 대상 세대(개인)에 대한 정보가 이미 존재하여 포괄적·체계적 조사 설계가 가능하고 공동 연구자가 조사지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관련 문서나 자료 등이 존재하여 집단 지역의 역사와 현황을 파악하기에 유리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가 훨씬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언어생활 조사의 조사지로서 4개의 집단 지역 중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본과 브라질 사이에 이메일 교환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2003년 3월 오사카 대학에서 개최된 국제 학술 심포지엄 ‘경계를 넘은 일본어’ 등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 논의에서는 4지점 비교, 한 지점에서의 집중적인 조사, 도시부-농촌부라는 언어 환경이 크게 다른 집단 지역에서의 비교, 농촌 두 지점의 비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이유로 인하여 이번 언어생활 조사의 조사 지역은 농

촌 지역에 위치한 두 집단지, 즉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과 아리안사 이주지로 결정되었다.

- (1)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의 조사 대상 세대의 선정은 농촌부(전체 조사법)와 도시부(무작위 추출법)가 서로 다르고, 또한 도시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일본계 단체에 소속된 회원 목록을 사용한 추출법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 모집단이 해당 지역의 일본계인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비교 고찰은 곤란하다.
- (2) 상파울루시 비라카론 지역의 경우에는 본토계 일본계인과 오키나와계 일본계인이 함께 살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계승 일본어와 더불어 오키나와 방언(우치나구치)이라는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초기 연구에서 이러한 응용 문제에 착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 (3) 상파울루시와 파라나주 마린가시라는 도시부의 경우, 조사 대상 선정의 편중뿐만 아니라, 치안 문제와 도시적인 생활방식 등을 감안하면 조사 실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파라나주 마린가시의 경우 조사는 조사원을 상파울루시에서 파견하게 되어 있어 조사 자금이 매우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마린가시의 경우, 2, 3세층 중심의 인구 구성으로 되어 있어 본 프로젝트의 과제인 ‘언어(일본어)의 기록·보존 사업’실시에 적합하지 않다. 이 시점에서 언어 환경이 매우 다른 도시부에서의 조사 및 도시와 농촌부의 비교 연구는 포기하고, 도시를 포함한 비교 고찰은 이후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이 두 집단지의 일본계 세대수·인구수 등은 스자노시 후쿠하쿠 마을이 총 세대수 134세대, 일본계 가구 총수는 512명, 평균 세대원수는 3.82명이고, 아리안사 이주지는 총 세대수 185가구, 일본계 세대원수 644명, 평균 세대원수는 3.76명이다.

이 두 집단지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에 걸쳐 창설된 콜로니아로 내셔널리즘 정책 등의 영향을 비슷하게 받아왔다는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두 집단 지역 사이에 입지 조건과 관련된 생업 형태, 생활방식 등의 이질성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이질성도 인정된다.

- (1) 아리안사 이주지는 일본 국외협회가 처음부터 이주형 이주지 건설을 목표로 한 이른바 자영농 계획이주였던 반면,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은 일단 커피 농장에 콜로노(농업 계약 노동자)로 들어간 이민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찾아 이동, 정착한 자연발생적인 집단지였다.
- (2) 아리안사 이주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이민자와 그 자녀가 중심이 되어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민자들은 대부분 정착하지 않았는데 반하여,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이민자와 더불어 비교적 많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민자 및 그 자녀로 구성된 집단지이다.
- (3) 이 두 집단지에 정착한 이민자의 출신지별 구성을 보면, 아리안사 이주지의 경우에는 그 설립에 시나노 국외협회, 돗토리 국외협회, 도야마 국외협회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점과 관련하여 그들의 현 출신자들이 당초 월등히 많았던 반면,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동현(同縣)·동향(同鄉) 등 사회 관계를 이용한 이동과 관련하여 후쿠오카현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정착해 있다.
- (4) 양자의 창설 과정 차이는 일본어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아리안사 이주지는 나가노현, 도야마현, 돗토리현이 이주 지역의 일본어 교육에 대하여 금전적인 투자, 교사 파견, 교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에는 이러한 이민자 모현(母県)의 지원이 거의 없다.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이 두 집단 지역의 세대 간 비교 고찰을 통해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언어생활 조사와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몇 가지 수행 과제를 설정하였다.

- (a) 두 집단 지역의 언어생활 실태를 세대 간 비교를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로 파악하여 언어생활에 어떤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찰한다.
- (b) 두 집단 지역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와 포르투갈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한다.

- (c) (a), (b)의 개별적 고찰 결과를 비교적으로 고찰하면서, 언어생활과 언어 그 자체의 지역적·세대적 변화와 그 내용, 또 그것을 규정하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제반 요소를 밝혀 농촌부의 일본계인의 언어생활과 언어에 대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할 것. 또한 혼효 일본어라고 할 만한 공통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1.3.2. 조사 지역의 민족지적·역사적 배경

1)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특징

후쿠하쿠 마을은 상파울루시에서 동쪽으로 약 30km의 거리에 위치한 스자노시 남부의 근교 농촌형 일본계 지역 공동체이다. 이 지역에는 약 140호의 일본계 세대, 대략 510명의 일본계인이 거주한다. 그들의 생업은 반농반상형을 특징으로 하며 스자노시나 상파울루시의 도시 지역으로 통근하는 도시 산업 종사자도 적지 않다.

후쿠하쿠 마을의 역사는 1931년 일본인 이민 가족의 이주에서부터 시작된다. 초기의 주요 농산물은 채소류가 대부분이었으며 소규모의 가족 노동형 농업 경영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는 정확히 세계 공황과 브라질의 커피 불황 등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커피 대농장의 계약 노동자인 일본인 이민이 지금까지의 단기 객지별이형에서 자영농이 되어 ‘콜로니아(일본인 이민의 집단지)’를 형성하는 장기 객지별이형으로 생활 전략을 전환하였던 시기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1935년에 ‘후쿠하쿠 일본인회’가 창설되어, 일본인회가 중심이 되어 토지 개척이나 도로 정비, 자제 교육을 위한 학교 건설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해당 지역에서도 이른바 콜로니아가 형성되어 일본인 입식자(入植者)가 증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인회나 일본어 학교는 일단 해산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쿠하쿠 일본인회’는 ‘후쿠하쿠 촌의회’로 개칭하여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걸쳐 일본어 학교 교사(校舍)와 청년회관 등의 건설, 후쿠하쿠 마을의 실태 조사와 이주 기념 위령제 등을 통하여서 에스닉 지역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굳힐 수 있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주요 산업이 양계업으로 이행하여 브라질 유수의 양계 마을로 성장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주변 지역으로 일본계 농가가 집단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후쿠하쿠 마을의 일본계인 인구는 약 200세대·1500명으로

급증하여 지역 공동체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는 과소화(過疎化)가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과 객지별이 현상으로 인한 젊은 층의 인구 유출, 일본계 세대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상파울루시 근교 지역의 치안의 악화 등이 그 주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도자들은 후쿠하쿠 마을이라는 개념을 ‘마을 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으로의 유출자와의 관계도 포함한 공동체’로 확장시켜, 각종 행사 개최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전출자의 ‘고향’으로서의 마을 또는 마을 내 거주자와 전출자와의 연대적 상징으로서의 마을로 그 방향을 재설정하였다. 이는 일본계 지역 공동체의 재활성화의 계기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아리안사 이주지의 특징

아리안사 이주지는 상파울루 주 최서단 지역인 미란드포르스군의 대규모 일본계 지역 공동체이다. 상파울루시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일본계 세대 약 180호, 일본계인 약 64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의 일본계 세대의 약 80%는 농·목 축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아리안사는 총 3개의 이주지로 구성되며 총 면적은 9000알케일 정도(1alqueire=2.42ha)이다. 각 이주지에는 제1아리안사 문화체육협회, 제2아리안사 돗토리마을자치회, 제3아리안사 도야마무라문화협회라는 에스닉 단체가 존재하며 그들을 통괄하는 전체 아리안사 문화협회연합회도 존재한다. 이들 일본계 문화협회는 각각 회관과 운동 시설, 일본어 학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령제 혹은 운동회나 스포츠 대회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여 이주지 사회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완수하고 있다. 또 연령·성별 조직인 청년회·부인회·노인회도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아리안사 이주지는 각 문화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본어 학교가 이주지 창설 시에 모현(母県)으로부터 자금 조성 및 교사 파견 관련 지원을 받고 있어 일본과의 국제적인 관계성 면에서 다른 일본계 지역 공동체에 비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아리안사 이주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에 걸쳐 농촌부의 경제 파폐의 타개책으로서 국외로의 국책 이

민을 개시하였다. 브라질에서도 정부 주도형의 콜로니아가 건설되었는데, 1921년 발족한 시나노 국외협회는 종래의 객지별이 이민형에서 이주자의 자치 협동 운영에 의한 정착형 이주지 건설 운동에 나섰다. 1924년 시나노 국외협회는 당시의 브라질 정부가 오지 진흥책의 하나로 매각하기 시작한 상파울루 주 내륙부의 토지를 구입하여 제1아리안사 이주지를 건설하고 다음해에 일본 내 분양을 개시하였다. 또한 이 시나노 국외협회와 아리안사 이주지 건설은 청년의 국외 이주를 촉진시킨 개신교계의 고학생 지원 단체·일본 역행회(力行會)가 깊이 관련되어 있었기에 이 이주지에서는 ‘커피보다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이념을 내걸 수 있었다. 1926년 시나노 국외협회는 돗토리 국외협회와 협력하여 제2아리안사를 개설하고 구마모토 국외협회가 비라·노바 이주지를 개설한 다음해인 1927년에는 시나노 국외협회와 도야마 국외협회가 공동으로 제3아리안사를 개설하였다. 다만 이들 이주지는 도로나 학교, 산업 시설 등의 인프라가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었고 자치 경영도 곤란했기 때문에 후에 국책 이주의 현지 기관 ‘브라질 척식회사’에 그 경영권을 이관하게 된다. 또한 초기 아리안사 이주지의 주요 농산물은 커피·쌀·잡곡 등이었는데, 이후에는 아리안사 산업조합의 주도에 의하여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무렵에는 주로 면직이나 양잠을 하여 해당 지역은 경제적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양잠업의 쇠퇴와 면화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양계업으로 전업하였으며, 현재는 과수 및 채소류의 생산, 목축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아리안사 이주지는 하이쿠·이단가 등 ‘이민 문예’의 발상지로서도 알려져 있고 ‘유바농장’이라고 하는 특이한 일본계 공동 농장의 존재로도 유명하다. 1934년 유바 이사오를 지도자로 하여 기독교 청년들이 ‘기도하고 경작하고 예술을 사랑한다’는 이념을 내걸고 농장을 창설하였는데, 현재는 80명 정도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노동하며 모든 재산을 공유하며 생활하고 있다. 농장 사람들에 의한 ‘유바 발레단’ 무대 공연은 그곳의 문화 창조 운동을 대표하는 활동 중 하나이며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개최되는 발레와 합창과 연극 공연은 먼 곳에서부터 많은 손님이 방문하는 이 지역 최대의 이벤트이다.

1.4. 연구 방법론 개발

여기에서는 언어생활 조사 계획의 근간이 된 기초 사회 조사를 간략히 설명하고, 언어생활 조사 및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연구 방법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는 일본계 세대와 그곳에 동거하는 세대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세대의 선정은 도시의 경우(앞의 2곳)에는 각 지역에 조직된 핵심적인 에스닉 조직인 문화(체육)협회의 회원 세대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선정하였고, 농촌부의 경우(뒤의 2곳)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일본계 세대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전자의 경우 표본 수는 사회학적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량을 고려하여 각 에스닉 기관 회원 세대의 4분의 1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조사표 조사와 현지 코디네이터에 의한 면접 조사를 주된 방법으로 하여 각 지역에서 10일 내지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실시하였다.

1.4.1. 언어생활 조사

1) 피조사자 선정 -표본 추출 방법 · 표본의 특징-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512명)과 아리안사 이주지(644명)에 거주하는 일본계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 조사는 조사지의 언어생활 실태와 언어 사용 실태를 고찰한다는 목적을 생각해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조사 자금과 조사 기간, 조사 인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전수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표본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표본 추출 시 ‘포괄적인 관점을 통한 전체적 파악’이란 목적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었다.

연구팀에서 표본 추출의 기준으로 채용한 것은 나이(15세 이상)와 세대였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세대와 언어 능력 의식 및 언어생활 실태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세대는 공시적·통시적으로 집단지의 언어생활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데 유효한 지표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연구팀에서는 우선 세대라는 지표에 따라 두 집단지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일본계인을 1세, 2세, 3세 이후라는 하위 그룹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이 때 일본계 세대에 포함된 비일본계 세대원은 제외하고 4세, 5세 세대 귀속자와 혼혈 일본계인은 3세 이후라는 하위 그룹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하위 그룹을 언어생활 조사의 세대 표본 추출을 위한 모집단으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이 세 모집단에서 어느 정도 표본을 추출할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첫째 두 집단의 언어생활 실태의 세대 간 비교고찰을 통하여 포괄적인 파악에 유의미한 수량일 것, 둘째 이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언어의 기록·보존 사업’과의 관련성이었다. 두 조사 지역의 15세 이상 세대 인구 구성(1세, 2세, 3세 이하, 비 일본계, 기타, 무응답이라는 범주에 의한)을 나타낸 것이 다음 표3이다.

표3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과 아리안사 이주지의 15세 이상 세대별 인구 구성

세대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아리안사 이주지
1세	100(21.4%)	103(17.7%)
2세	217(46.5%)	299(51.4%)
3세 이하[이후]	120(25.7%)	170(29.2%)
비일본계인	22(5.0%)	10(2.0%)
기타·무응답	8(2.0%)	-
합계	467(100.0%)	582(100.0%)

출처: 상파울루 인문과학연구소 편(2002:55)

이 표를 보면 두 조사지 모두 1세 인구는 20% 미만이며, 2세 및 3세 이하의 일본계인을 중심으로 인구 구성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포괄적·전체적인 파악을 목적으로 하면 이 세대별 인구 구성비에 대응하여 세대 간 비교 고찰이 가능한 수량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의 기록·보존’을 염두에 둘 경우, 고령화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1세를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소멸하고 있는’ 언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기록·보존의 두 번째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세대 간의 비교 고

찰을 토대로 한 전체적인 파악과, 긴급을 요하는 언어의 기록·보존이란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중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사 자금과 기간, 조사 인구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조사지별로 각 세대 당 40명의 표본 수를 설정하였다. 이 조사지별 각 세대 당 40명이란 수량은 각각의 집단지 내 및 집단지 간의 세대별 비교 고찰 시 분석의 유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이 40명이라는 표본은, 세대 구성 비율이 낮은 1세 세대에서는 반수 정도가 언어생활 조사에 협력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며 기록·보존 사업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수량이라고 할 수 있다.

표본 추출은 세대별 개인 목록을 만들어 그 목록에서 40명을 기준으로 등간격 추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실제로는 부재, 사망·질병, 조사 거부 등의 사유가 예상되어 40명보다 약간 여유를 둔 형태로 표본 추출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추출된 표본은 표4와 같으며, 1세의 표본 수가 세대 인구 구성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게 되어 각 인구수의 40% 이상이었다. 한편 2세, 3세 이하는 세대별 인구수는 15%에서 25% 정도가 되었다. 또한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아리안사 이주지의 총 인구에 대한 표본 수의 비율은 각각 37.6%, 21.9%가 되었다.

표4 추출된 세대별 표본 수

세대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아리안사 이주지	전체
1세	46(46.0%)	45(43.7%)	91
2세	43(19.8%)	46(15.3%)	89
3세	42(25.5%)	49(20.9%)	91
합계	131(37.6%)	140(21.9%)	270

주: () 안은 각 세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표본 수의 비율
다음으로 조사지별로 추출된 표본의 연령 구성을 살펴보자.(표 5, 6)

표5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언어생활 조사 표본의 연령 구성

세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총계
1세	-	-	-	1	10	4	21	10	46
2세	-	5	3	8	17	9	1	-	43
3세 이하	4	20	10	7	1	-	-	-	42
합계	4	25	13	16	28	13	22	10	131

표6 아리안사 이주지의 언어생활 조사 표본의 연령 구성

세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총계
1세	-	-	1	1	3	9	16	15	45
2세	2	2	4	5	17	14	2	-	46
3세 이하	14	15	18	2	-	-	-	-	49
합계	16	17	23	8	20	23	18	15	140

이 연령별 세대별 인구 구성에 따르면,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아리안사 이주지의 언어생활 조사 표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세의 경우 연령층이 70대와 80대에 집중되어 있다.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민자도 있기 때문에 50대도 많다.) 2세의 경우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은 40대부터 60대에 집중되어 있고, 아리안사 이주지의 경우 50대와 60대가 많으며, 3세의 경우 양쪽 모두 대부분 30대 이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세대별 연령 분포를 가족 내 지위 관계로 살펴보면, 1세=할아버지·할머니 세대, 2세=부모 세대, 3세=아이 세대라고 하는 ‘3세대’를 대표하게 된다.

2) 조사 항목의 결정 과정

언어생활 조사에서는 조사표를 이용한 구조적인 면접법과 면접 조사의 녹음(기록·보존)을 주요 조사법으로 활용하였다. 언어생활 조사에 이용한 조사표의 조사 항목 선정 및 결정 과정은, 우선 일본 측에서 사회언어학을 전문 영역으로 하는 공동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해당 학문 영역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설문 항목을 선정하고, 브라질 측에서는 문화인류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고 브라질 일본계 사회에서 많은 조사 연구 경험을 가진 공동연구자가 일본 측이 마련한 설문 항목에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조사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질문 문장, 선택지 범주의 선정 등)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작업은 국제적·학제적인 공동 연구라는 이 프로젝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조사 항목(설문)은 기본적으로 ①언어행동면, ②언어의식·의견면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언어생활 조사표는 일본계인의 언어생활 실태

를 행동과 의식의 두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 조사표는 이러한 목적 외에도 2003년 7월 하순부터 예정되어 있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조사 항목에 ‘언어를 중심으로 한 생활사’ 범주로 분류되는 설문이 마련되었다. 이 범주에 포함된 설문문은 수량 분석과 함께 반구조화 면접 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조사원이 피조사자의 격식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대화를 녹음하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조사표에는 조사원의 관찰에 의한 피조사자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언어생활 조사는 그 자체가 완결적인 조사이자,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예비 조사를 겸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언어생활 조사표에 포함된 설문 항목의 대분류 항목을 표7에 일람표로 제시한다.

표7 언어생활 조사표의 구성 설문 항목 (대분류) 및 대상자

설문의 범주	설문 번호와 내용	대상자
①사회적 특성	1.성별, 2.생년월일, 3.세대, 4.국적, 5.출생지, 6.혼인 상의 지위, 7.배우자의 국적, 8.학력(일본), 9.학력(브라질)	모든 피조사자
②언어를 중심으로 한 생활사 (1)	10.이주연도, 11.이주 시 가족 구성, 12.당초 브라질 체류 기간(예정), 13.최초 정착 지역, 14.최초 정착지의 일본인, 15.외국인과의 접촉, 16.이주 이전의 포르투갈어 지식, 17.이주 직후의 포르투갈어 사용 18.성인이 된 후의 포르투갈어 학습 경력, 19.일본으로의 이주, 20.일본어 학교 통학 경험	1세만
③언어를 중심으로 한 생활사 (2)	21.출생지-농촌/도시, 22.어린 시절의 가정 내 사용 언어, 23.취학기 이전의 친구와의 대화, 24.일본 학교 통학, 25.성년 이후의 일본어 학습 경력 26.이주 경험	2세 이하

설문의 범주	설문 번호와 내용	대상자
④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27.동거 세대원, 28.가족에게 사용하는 언어 29.가족이 자신에게 사용하는 언어, 30.가족 모임 시 언어, 31.NHK 국외 시청 장치, 32.일본 친척과의 교류, 33.집에서 구독 중인 신문·잡지	모든 피조사자
⑤언어 사용: 미디어·오락 도메인	34.NHK 국외 방송, 35.일본의 비디오, 36.브라질의 TV 프로그램, 37.브라질의 일본계 TV 프로그램, 38.NHK 단파 방송이나 일본계 라디오, 39.일본어 신문, 40.포르투갈어 신문, 41.일본 노래, 42.가라오케	모든 피조사자
⑥언어 사용: 직장·지역 사회 도메인	43.직장 내 일본어 사용, 44.직장 내 포르투갈어 사용, 45.해당 지역의 일본계 단체 회의 및 활동 참여와 사용 언어, 46.친구 구성 및 사용 언어, 47.종교 귀속, 48.종교 활동 참여 상황 및 사용 언어	모든 피조사자
⑦일본어 능력 의식	49.일본어 회화, 50.일본어 청해, 51.일본어 독해, 52.일본어 쓰기	모든 피조사자
⑧포르투갈어 능력 의식	53.포르투갈어 회화, 54.포르투갈어 청해, 55.포르투갈어 독해, 56.포르투갈어 쓰기	모든 피조사자
⑨일본어 교육 의식	57.일본어 학습 희망, 58.아이·손자에게 일본어 교육을 시키고 싶은가, 59.젊은 일본계인의 일본어 학습 필요성, 60.해당 지역의 일본어 학습 관련 문제, 61.일본계인이 일본어를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모든 피조사자
⑩방일(訪日) 경험과 언어 의식	62.방일(訪日) 경험, 63.방일(訪日) 목적, 64.일본어가 통하였는가, 65.브라질의 일본어와 일본의 일본어의 차이, 66.일본에서의 거주·이유·일본어 학습 희망, 일본어 능숙, 일본의 이미지	모든 피조사자
⑪콜로니아어에 대한 의식	67.일본어와 포르투갈어 혼합하는가, 68.일본어와 포르투갈어 혼합에 대한 의견	모든 피조사자

3) 언어생활 조사 준비 작업

언어생활 조사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은 2003년 3월 말부터 시작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표 인쇄 제본 및 조사 관련 서류의 작성: 조사표는 오프셋 인쇄. 조사 관련 서류에는 조사 협력 의뢰서, 조사 기록 승낙서, 조사 대상 명단, 조사 실시 매뉴얼, 조사표 답변 카드, 조사원의 신분증명서(사진 첨부 명찰, 조사원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를 기입한 소개 문서), 조사 협력 감사 편지 등이 있다. 조사 설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포르투갈어와 일본어의 두 언어로 작성되었다.
- (2) 조사 지역과의 협의: 공동 연구자가 현지에 출장을 가서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경우 마을의 지도자인 오우라 후미오 씨를 중심으로 한 후쿠하쿠 촌의회 회원, 아리안사 이주지의 경우 아리안사 문화협회연합회 및 각 이주지의 문화협회 임원에게 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실시함과 동시에 협력 방법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 일정 조정 및 결정, 조사원의 집단 지역 내에서의 이동에 관한 교통 수단 확보, 숙박 장소의 확보, 식사 준비, 조사 협력 의뢰서 배포 의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두 집단지 모두 본 조사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면적으로 협력해 주었다.
- (3) 조사원의 모집 및 조사 실시 매뉴얼에 의한 교육: 언어생활 조사 시기는 일본 측 연구자가 참여하는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한 다양한 준비 작업 등을 감안하면 4월부터 5월 초 중에 실시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브라질 측은 대학에서 1학기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웠다. 따라서 언어생활 조사는 기본적으로 비전문 조사원을 채용하여 교육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조사원 모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캄피나스대학의 유학생, 일본계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일본어 교사), 상파울루 시내의 일본인 대학생, 일본어 신문기자 등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청년들을 채용하게 되었다. 조사원들은 조사에 앞서 전부 4, 5시간에 걸친 훈련을 받았다. 교육은 조사 실시 매뉴얼에 따라 본

조사 연구의 개요, 언어생활 조사의 목적, 조사표의 응용 방법, 녹음 장비의 조작 방법, 녹음 승낙서, 조사 지역의 개요, 조사 휴대품 등에 대하여 공동연구자 및 연구 협력자가 자세히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조사원의 현장 조사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1.4.2. 언어 사용 실태 조사

1) 조사법과 수록 담화

언어 사용 실태 조사는 언어생활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상파울루주 미란드폴리스 시 아리안사 이주지와 상파울루주 스자노시 후쿠하쿠 마을 두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조사 형태로는 반구조화 면접 조사(Semi Structured Interview)를 채용하여, 기본적으로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녹음·(일부)녹화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녹음·(일부)녹화는 ‘언어 조사 실시에 관한 합의 사항(현지 조사 매뉴얼)’에 따라 수행되었다. 수록 담화는 다음 두 종류이다.

① 격식적인 담화: 조사자와의 대화

② 비격식적인 담화: 지역 내 동세대 동성 친구·지인(현지 조사원)과의 대화
이하에서 (1), (2)의 담화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① 수록 담화의 성질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는 격식적인 담화와 비격식적인 담화를 수록하였다. 포르투갈어로부터의 다량의 어휘 차용 등, 일본계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으로 브라질 공용어인 포르투갈어와의 접촉·혼효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은 이미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나카토(中東)·MELO(2003), 구야마(久山2000a ; 2000b)의 지적처럼, 1세의 포르투갈어의 차용에는 대화 상대의 포르투갈어 능력이 아닌 언어 공동체의 성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따라서 콜로니아어는 ‘콜로니아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어(일종의 레지스터)’가 아닌, ‘지역(콜로니아) 간에 공통적인 스타일이 낮은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화자 내 스타일 전환의 요인군에 관한 선행 연구 가운데, 자신의 말에 대한 주의도(Labov1968), 청자(청중 일반)의 말에 대한 배려: Accommodation (Giles1984),

Audience design(Bell1984), 사회적으로 고정화된 안정된 틀: 예의적 방식의 경어 행동(井出, 1992), Domain(Fishman, 1972) 등의 이론을 검토한 결과, 브라질 일본계 사회에서의 콜로니아어의 사용은 ①도메인-청자(addressee)·장소(setting)·화제(topic)로 구성되는 영역(domain)마다 관찰되는 비교적 안정된 관습적인 언어 사용-, ②상황-예의적 방식의 경어 행동-에 의한 것으로 화자의 의도적인 사용이라기보다도 청자(청중)와의 관계에서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비격식적인 담화의 수록이 결정되었다.

- (i) 콜로니아어는 지역 공통어, 혹은 스타일이 낮은 생활어이기 때문에 조사자와의 격식적인 담화에서는 사용이 회피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②친구·지인과의 비격식적인 담화를 수록할 필요가 있다. 현지 조사원(지역 내 동세대 동성 친구·지인)에 대해서는 (3)에서 자세하게 검토한다.

다음으로 비격식적인 담화와의 비교를 목적으로 초면인 조사자와의 대화, 즉 격식적인 담화를 수록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 (ii) Dorian(1977)은 쇠퇴하여 가는 언어에는 문체 선택 가능성이 없을 수 있으며, Synthetic 구조를 Analytic 구조로 치환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문체 선택 가능성의 축소는 청자 대우를 나타내는 정중 형식이 의무적인 일본어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브라질의 일본계 사회에서의 격식적인 일본어 운용 실태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

⑥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시의 유의점

담화의 한 종류로서 ‘대화’를 수록하였는데, 이번 조사의 경우 조사 기간에 제한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독백 스타일보다는 대화의 경우가 더 자연스러운 담화를 수록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독백이 아닌 대화 형식의 담화를 수록하였다.

화제는 일상적이며 구체적인 것(예를 들어 1세의 경우, 이주 당시의 상황이나 본인의 자녀 및 손자 등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2, 3세의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

나 가족, 어릴 적에 하던 놀이, 일본어 학습 장소 등)에서부터 정치, 경제, 교육 등의 추상적인 화제의 순으로 전개하여 나갔으며, 조사 시의 분위기나 조사 대상자의 개성에 맞추어 자유로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의 지역 내 친구·지인(현지 조사원(key person))과의 대화에서는 특별히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조사자와의 대화 시, 조사자는 원칙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본어로 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②의 지역 내 친구·지인과의 대화의 경우에는 가능한 일본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도록 하였지만, 예를 들어 화제 자체가 일본어로 이야기하기 곤란한 경우처럼 일상적인 대화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포르투갈어의 사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각의 상황에서 40분~1시간 동안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최대 2시간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모두에 활용될 수 있을 만한 담화의 양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사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비격식적인 담화의 경우 동세대·동성 간의 담화를 수록하였는데, 1세 대 2세, 1세 대 3세, 2세 대 3세의 편성과 같은 세대 간, 이성 간 대화는 이후의 과제로 남는다.

2) 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선정 기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언어생활 조사의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언어생활 조사 대상자(아리안사: 111명,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108명) 중에서 언어 사용 실태 대상자 각 24명, 합계 48명을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 (i) 1세: a. 도항 시기: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도항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항인가
- b.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도항의 경우의 연령: 언어형성기를 일본에서

- 지낸 사람인가, 브라질에서 지낸 사람인가
- c. 출신 지역: 동일본 지역 출신자인가, 서일본 지역 출신자인가
- d. 상기 3개 조건을 충족시키는 남녀(합계 12명)
- (ii) 2세: a. 유아기 사용 언어: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일본어를 사용하였는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였는가
- b. 학력: 브라질에서의 학력이 고학력인가 아닌가 (고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함.)
- c. 상기 2개 조건을 충족시키는 남녀(합계 8명)
- (iii) 3세: a. 일본어 학습 경험의 많고 적음: 일본어 학교에서 공부한 경험이 많은가 적은가 (많은 5년을 기준으로 함.)
- b. 상기 1개 조건을 충족시키는 남녀(합계 4명)

1세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이주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주이나에 따라 일본어 능력 의식에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서 태어나 언어형성기를 보냈는가, 언어형성기 이전에 이주하여 이주지에서 언어형성기를 보냈는가에 따라서는 언어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다. 그와 같은 이유로 (1)을 a, b로 나누어 그 검증을 시도하였다. 또한 종래의 많은 연구들은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혼혈 일본어에서 동일본 지역 출신자가 서일본 지역 방언의 형식(예를 들면, オル(oru), ~シトル(sitoru) 등)의 사용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의 c기준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성인으로 이주한 사람은 그 수가 적어 이번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2세는 유아기에 가정과 근처 지역 사회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일본어 능력 의식에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그 검증을 위하여 (2)의 a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언어생활 조사 결과를 통하여 유아기에 가정과 지역 사회 내에서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였던 사람은 연령적으로는 50대 후반~60대이며 비교적 저학력(중학교 졸업 이하)층이 많고, 이와는 반대로 유아기에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포르투갈어를 많이 사용하였던 사람은 연령적으로 20대~50대 전반이며 비교적 고학력(고등학교·대학 졸업)층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브라질에서의

학력차에 따라 일본어 능력 의식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2)의 b기준을 세워 검증할 시도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일본계인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조사 대상자도 배우자가 일본계인인 사람 중에서 선정하였다. 마찬가지로 객지별이 경험자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로서 객지별이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3세의 일본어 능력 의식은 일본어 학습 경험의 많고 적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3)의 a기준을 세움으로서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2세·3세의 경우 일본어로의 객지별이 경험과 일본어 능력 의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객지별이 경험의 유무는 선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⑥ 조사 대상자 선정 작업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조사 대상자 선정 작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선정의 제1단계로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언어생활 조사 시 녹음한 음성 자료를 청취하기로 하였다. 청취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가며 듣도록 하였고, 모든 자료의 각 항목에 그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여 나갔다. 또 이하의 항목 외에도 느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 (ㄱ) 소리의 명료함
- (ㄴ) 적극성·화제의 풍부함
- (ㄷ) 일본어의 방언적 요소 유무
- (ㄹ) 포르투갈어의 유무
- (ㅁ) 면접 시의 언어

1세·2세·3세의 각 세대에 있어서의 언어적 특징이 현저하게 나타나며, 음성 자료로서 미래적 가치가 있는 유용한 담화를 수록하고자 하였다. 시간적 제약이 있었기에 가능한 한 단시간 내에 그러한 자료를 얻을 필요가 있었다. (ㄱ)소리의 명료함이나 (ㄴ)적극성·화제의 풍부함을 여기서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브라질 일본계 사회 내 일본어의 특징으로 서일본 지역 방언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역 방언이 서로 혼합된 일본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포르투갈어

로부터의 대량의 어휘 차용이 인정되는 점이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지적되고 있기에 (ㄷ)일본어의 방언적 요소의 유무, (ㄹ)포르투갈어의 유무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계 사회에서의 일본어 실태와 그것이 포르투갈어와의 접촉에 의하여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본어로 언어 사용 실태가 가능한 조사 대상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ㄱ)면접 시의 언어를 고려한 것은 그 때문이다.

녹음 자료를 다 청취한 뒤에는 각 항목에 대하여 기록된 코멘트와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사회적 속성, 언어생활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적합한 조사 대상자의 선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㉟ 언어생활 조사의 표본과의 관계

언어생활 조사 시 표본 추출은 1세, 2세, 3세 이하라는 세대적 지표와 연령으로 주민을 분류하여, 각각 40명씩을 기준으로 등간격 추출법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언어생활 조사 피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세는 70대·80대, 2세 50·60대, 3세 20대가 가장 많다.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도 언어생활 조사의 표본이 많은 연령대에서 주로 선출하였다.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경우에 남녀 모두 합쳐 1세는 70대·80대가 10/12명, 2세는 50·60대가 6/8명, 3세는 20대가 4/4명이다.

3) 현지 조사원(key person)

각 화자의 가장 일상적인 말씨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친구와의 대화 장면’ 조사를 설계하였다. 가장 자연스럽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같은 이민 사회 내의 친한 친구를 조사 대상자에게 소개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자동차 없이는 자유롭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치안 등이 문제가 되었고 인가도 서로 몇 km씩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1지역 당 3.5일이라는 빠른 조사 일정 등의 이유로 인하여 친한 친구와의 대화 장면의 세팅(사전 승낙이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사회 경제적·시간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일 지역 내 친구·지인을 현지 조사원(key person)으로 채용하여 비격식적

인 담화를 수록하기로 하였다. 여기서의 현지 조사원(key person)이란 조사 대상자로부터 자연스러운 담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요한 인물(key가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명명한 것이다.

아리안사 이주지,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에서 이하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현지 조사원(key person)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였다.

- (i) 조사 대상자와 (친한) 친구 관계에 있으며, 조사 대상자와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할 것
- (ii) 조사 대상자와 동년배 혹은 연하이며 동세대일 것
- (iii) 아리안사 이주지와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 (iv) 현지 조사원(key person)은 언어생활 조사의 피조사자여도 좋음
- (v) 혼효 일본어에 서일본 지역 방언 형식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1세의 현지 조사원(key person)은 동일본 지역 출신자 중에서 선출하여, 현지 조사원(key person)에 대한 Accommodation으로 인하여 언어 형식에 서일본 지역 방언 형식이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본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목적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담화를 수집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가 연상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는 상대와 친하다 하더라도, 공손한 말씨로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지 조사원(key person)은 (ii)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와 동년배이거나 연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로 현지 조사원(key person)은 조사 대상자와 동세대인 사람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현지 조사원(key person)은 본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목적에 따라 조사 대상자와의 대화를 수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또 조사 대상자와의 조사 일정 조정, 조사 장소 확보, 조사 장소까지의 이동 등 실제 조사를 실시할 경우,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iii)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다.

1.5. 언어 실태 조사의 개요

1.5.1. 기초 사회 조사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는 국제협력사업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일본계인의 생활실태와 일본계 지역 집단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실시된 조사이다. 이 조사의 목적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입지 조건이 다른 여러 일본계 지역 사회의 실태 조사를 통해 일본계 인구의 특징, 일본계 개인 및 세대의 생활 현황,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일본계인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일본계인 개인과 일본계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예를 들어 이주 문제, 고령자 문제, 일본어 교육 문제, 치안 문제 등)를 지역 사회 수준에서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입지 조건이 다른 여러 지역 사회들을 비교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일본계 사회 실태 조사는 브라질에서도 특히 일본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상파울루 주를 중심으로 한 남동부와 파라나 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에 흩어져 있는 일본계 지역 집단을,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대도시, 지방 도시, 근교 농촌, 오지 농촌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입지 환경에 설립된 일본계 집단을 각 한 지역씩 선정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상파울루시 비라카론(Vila Carrão)지역(대도시), 파라나 주 마린가시(Maringá)(지방도시), 상파울루 주 스자노시(Suzano) 후쿠하쿠 마을(Vila Ipelândia) (근교 농촌) 그리고 같은 주 미란드폴리스시(Mirandópolis) 아리안사 이주지(오지 농촌)였다.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조사표 조사와 코디네이터에 의한 면접 조사를 주요 방법으로 하여 각 지역에서 10일 내지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실시하였다. 조사원은 기본적으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을 고용하고 조사 설명서 등을 통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 지역에 파견하였다. 조사 담당자는 조사 전반을 지휘하고 조사 기간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외에도 해당 지역의 일본계인의 역사와 일본계 단체의 종류와 활동 등에 관한 청취 조사, 자료 수집을 담당하였다. 조사는 ‘일본계인·세대’ 생활 실태의 종합적인 파악이

주목적이었으므로 조사표 유형도 ①세대 조사표, ②세대 조사표 보완표, ③이주 귀국자 재적응 조사표, ④고령자용 조사표의 4종류가 사용되었다. 이 4종류의 조사표에 포함된 주요 설문 항목(대분류)은 표8와 같다.

표8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 항목 (대분류)

조사 대상	조사 항목 (대분류)
일본계 세대	세대원수, 가족 유형, 거주 환경, 세대의 이주 경험자·고령자 유무, 세대 소득, 가정 내 사용 언어, 일본계 단체 가입 상황, 정기 구독물, 일본계 미디어, 일본의 친척과의 교류, 일본·브라질 기호의 존재, 내구 소비재의 소유 상황, 스포츠 활동, 일본적인 행사 습관 등의 실시 상황 등
일본계 세대원 (개인)	이름, 세대, 연령, 성별, 국적, 학력, 종교, 이주 경험, 방일(訪日) 경험, 일본어 능력 의식, 일본어 학교에 통학 경험, 의료 보험 및 연금 제도의 가입 상황 등
일본계 고령자 (65세 이상)	거주 환경, 자녀와 동거, 경제 상태, 의료·연금 제도의 가입 상황, 의료·사회복지 단체의 이용 상황, 건강상태, 불안 문제점, 일상생활의 실태 등
이주 귀국자	이주 회수, 기간, 목적, 성과, 목적 달성도, 이주 이전의 취업 상황, 귀국 후 재적응, 이주의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의견), 재이주 예정 등

현지 조사는 현지 일본계 지도자와 조사 대상자의 전폭적인 협력을 얻어 원활하게 실시되었으며, 조사 지역별 최종 조사표 수는 표9와 같다. 각 조사 지역에서의 조사 완수율을 세대 조사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파울루시 비라카론 지역은 조사 대상 세대 목록의 83%(235세대),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은 100%(전체 134세대), 마린가시는 90%(271가구), 아리안사 이주지는 98%(185가구)였다.

표9 조사지별 조사표 총수

조사표	비라카론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마린가	알리안사	전체
세대 조사표	235표	134표	271표	185표	825표
세대 조사표 보완표	236표	134표	271표	185표	826표
일본계 고령자 조사표	124표	78표	98표	139표	439표
이주 귀국자 재적응 조사표	54표	44표	89표	61표	248표

1.5.2. 언어생활 조사

언어생활 조사는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에서는 2003년 4월 중순, 아리안사 이주 지에서는 4월 하순부터 5월 초에 걸쳐 각각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실시되었다. 조사자에게는 기간 동안 하루에 2~3건의 면접 조사가 할당되었는데 조사지의 지도자, 협력자, 피조사자들의 전면적인 협력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언어생활 조사를 종료할 수 있었다.

언어생활 조사는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131명, 아리안사 이주지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두 지역에서 사망, 질병·요양 중, 전출, 이주, 조사 기간 동안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언어생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경우는 24명, 아리안사 이주지의 경우에는 38명이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언어생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107명(82%), 아리안사 이주지역 101명(73%)이었다.

언어생활 조사 실시 상황을 세대별로 보면 두 조사 지역 모두 1세, 2세의 조사 완수율은 80%를 넘었지만, 3세층에서는 전출, 부재, 이주 등의 사유에서 조사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조사 완수율은 60% 정도에 머물렀다. 언어생활 조사는 조사 예정자의 82%, 73%로 실시율을 보여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생각되었지만, 사례 수를 늘리기 위하여 조사 기간 중에 새롭게 조사 대상자를 추출하여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3세 1명) 및 아리안사 이주지(1세 4명, 2세 5명)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108명, 아리안사 이주지 110명의 언어생활 조사를 완수하였다. 이 언어생활 조사 실시자의 세대별 인수는 표10에 나타낸 것과 같다.

표10 언어생활 조사 실시의 세대별·조사지별 인원

세대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아리안사 이주지	전체
1세	39	41	80
2세	41	41	82
3세	28	28	56
합계	108	110	218

일본 측에서는 언어생활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조사표)와 언어생활 조사 시 녹음된 음성 자료를 청취하고, 또한 조사표에 포함된 담화 조사 적성 항목 등을 참조하여 7월에 실시된 담화 수록 조사의 조사 대상자의 선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브라질 측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조사 대상자 선정 작업도 일본 측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1.5.3.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개요는 이하와 같다.

(1) 조사기간: 아리안사 이주지: 2003년 7월 23일~26일(오전)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2003년 7월 28일(오후)~31일

(2) 조사 대상자: 각 지역 24명(1세 12명, 2세 8명, 3세 4명)을 선정. 표11은 아리안사 이주지, 표12는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대상자의 선정 조건 및 인원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대상자의 기호 'BA1M60-17'은, 'Brazil(브라질) Aliansa(아리안사 이주지) 1(세대) Male(남성) 60(연령) 17(일련 번호)'를 나타내며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S'는 'Suzano'를 의미함.

표11 담화 수록 대상자와 조건: 아리안사 이주지

1세		언어생활 조사자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대상자		
도항 시기	도항 연령	출신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제2차 세계대전 이전	7세 이하	동일본	7	3	BA1M68-17	BA1F76-30
		서일본	1	2	BA1M67-02	BA1F76-07
제2차 세계대전 이전	9-14세	동일본	3	4	BA1M83-107	BA1F81-72
		서일본	1	1*1	BA1M82-101	BA1F83-36*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5세 이상	동일본	9*2	6	BA1M71-04	BA1F67-82
		서일본	3	1	BA1M65-64	BA1M87-63*3
			24인	17인	7인	5인

1세		언어생활 조사자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대상자	
2세		남성		여성	
유아기에 주로	고학력	4	2	BA2M60-16	BA2F67-25
일본어 사용	저학력	14	14	BA2M71-102	BA2F66-103
유아기에 주로	고학력	2	2	BA2M55-66	BA2F63-37
포르투갈어 사용	저학력	1	3	BA2M33-58	BA2F48-111*4
		21인	21인	4인	4인
3세		남성		여성	
일어학교	많다 (5년 이상)	8	4	BA3M29-19	BA3F30-93
통학 경험	적다 (5년 미만)	8	8	BA3M27-28	BA3F35-43
		16인	12인	2인	2인

(주) *1 조선반도 출신 화자 *2 대만 출신자 1명이 포함

*3 동일본 지역 출신 남성 (1934년: 19세에 도항)

*4 유아기에 일본어를 사용한 화자

표12 담화 수록 대상자와 조건: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1세			언어생활 조사자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대상자		
도항 시기	도항 연령	출신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제2차	7세 이하	동일본	2	1	BS1M73-98	BS1F74-80*1	
세계대전 이전		서일본	3	2	BS1M71-48	BS1F79-43	
제2차	9-14세	동일본	3	6	BS1M79-40	BS1F80-15	
세계대전 이전		서일본	7	5	BS1M81-22	BS1F76-20	
제2차	15세 이상	동일본	2	1	BS1M60-63	BS1F83-01	
세계대전 이후		서일본	4	3	BS1M73-73	BS1F64-82	
				21인	18인	6인	6인
2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유아기에 주로		고학력	5	5	BS2M50-67	BS2F40-54	
일본어 사용		저학력	9*2	7	BS2M64-55	BS2F66-56	
유아기에 주로		고학력	3	3	BS2M41-49*3	BS2F54-65	
포르투갈어 사용		저학력	2	7	BS2M63-70	BS2F54-88	
			19인	22인	4인	4인	
3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일어학교통학 경험	많다 (5년 이상)		5	9	BS3M22-35	BS3F28-34	
	적다 (5년 미만)		9	5	BS3M27-31*4	BS3F24-41	
			14인	14인	2인	2인	

(주) *1 서일본 지역(이시카와현) 출신자 *2 학력이 불분명한 1인 포함

*3 가정에서는 일본어 사용이 많고 지역 사회에서는 포르투갈어 사용이 많음

*4 BS3M27-31 은 사정에 의하여 현지 조사원(key person)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3) 현지 조사원(key person):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따라 1세부터 3세까지 남녀 각 1명씩 총 6명(실제로는 현지 조사원의 사정에 의하여 각 세대별로 복수의 현지 조사원이 필요하였다)의 현지 조사원을 채용하였다. 표13, 표14에 지역별 현지 조사원 정보를 제시한다.

표13 현지 조사원(key person)의 상세 정보: 아리안사 이주지

기호	세대	성별	출생 년도	국적	직업	학력	(일본의) 출신지	도향 년도
1OK	1	남	1924	일본	무직	초등학교 4년	사이타마	1927
1TK	1	남	1933	일본	농업	초등학교 1년	미야기	1940
1MT	1	여	1918	일본	주부(Y농장 생활부)	중학교 졸업	나가노	1936
1MS	1	여	1928	귀화	주부(축산업)	초등학교 5년	나가노	1940
2YT	2	남	1933	브라질	농업(Y농장)	초등학교 3년	-	-
2IM	2	여	1954	브라질	주부(Y농장 생활부)	초등학교 졸업	-	-
2MM	2	여	1952	브라질	주부(Y농장 가사부)	초등학교 4년	-	-
3NE	3	남	1964	브라질	목축업(양계)	고등학교 졸업	-	-
3SL	3	여	1968	브라질	주부	대학 졸업	-	-

기호	거주력
1OK	0-3: 사이타마현 3-79: 제2아리안사
1TK	0-7: 미야기현 7-70: 제2아리안사
1MT	0-18: 나가노현 18-85: 제1아리안사(Y농장)
1MS	0-12: 나가노현 12-74: 제2아리안사
2YT	0-70: 제1아리안사(Y농장)
2IM	0-48: 제1아리안사(Y농장)
2MM	0-50: 제1아리안사(Y농장)
3NE	0-20: 미란도 폴리스 20-22: 캄피나스 22-38: 제2아리안사
3SL	0-21: 미란도 폴리스 21-31: 모지 31-34: 제1아리안사

표 14 현지 조사원(key person)의 상세 정보: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기호	세대	성별	출생 년도	국적	직업	학력	(일본의) 출신지	도향 년도
1SS	1	남	1944	일본	농업	대학 졸업(일본)	만주	1969
1IK	1	남	1942	일본	목축업(양계)	고등학교 2년	이바라키	1960
1ST	1	여	1928	일본	무직	-	미야기	1937
2IJ	2	남	1942	브라질	상업(식수)	중학교 2년	-	-
2DA	2	여	1946	브라질	농업	-	-	-
3IH	3	남	1984	브라질	임업	대학 중퇴	-	-
3IP	3	여	1982	브라질	학생	대학 재학	-	-

기호	거주력
1SS	0-2만주 2-12: 시마네현 12-24: 도쿄 24-28: 아리안사 28-59: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1IK	0-18: 이바라키현 18-60: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1ST	0-9: 미야기현 9-12: 두아르치나 12-17: 모지 17-75: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2IJ	0-61: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2DA	0-57: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3IH	0-19: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3IP	0-21: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

- (4) 조사자: 구도 마유미(총괄: 오사카대학 대학원 교수), 나카토 야스에(조사 담당: 오카야마대학 전임강사), 이길용(기재·데이터 담당: 오사카대학 특임연구원, 현 중앙대학교 부교수), 레오날도 멜로(연락 담당: 오사카대학 대학원생), 나가타 유코(개인 참가: NHK 소속), 후카사와 마사코(개인 참가: 전 신문기자, 상파울루 거주). 이 중 1세 조사 대상자 조사는 이길용·후카사와팀과 나가타가 담당하였고, 2세 조사 대상자 조사는 나카토, 3세 조사 대상자 조사는 멜로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참고로 이길용은 한국어 모어화자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일본어 모어화자인 후카사와와 팀을 짜서 조사에 임하였다.

(5) 수록 기자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시, 기자재는 녹음기로 DAT와 디지털 스테레오 마이크를 사용하였으며 상황 녹음은 MD와 디지털 스테레오 마이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비디오 촬영 협조에 동의한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였다. 그 외 디지털카메라로 사진 촬영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기재 일람을 이하에 기재하여 둔다.

* DAT: SONY TCD-D100 (2대), SONY TCD-D8 (2대)

* MD: SONY MZ-B100 (4대)

* 디지털 스테레오 마이크: DAT용 SONY ECM-MS907 (4개)
MD용 SONY ECM-719 (4개)

* 비디오 카메라: SONY 핸디캠 DCR-PC120 (2대), DCR-PC9 (1대)

* 디지털 카메라: SONY DSC-P5(1대), DSC-P9(1대)

1.6. 언어 실태 조사의 결과 소개

1.6.1. 기초 사회 조사 결과

기초 사회 조사에서 얻은 개인 및 세대에 대한 자료는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여기에서는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 결과 중에서 일본계인의 언어생활에 대한 일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가정 내 사용 언어, (2)정기 구독물, (3)일본계 미디어, (4)일본어 능력 의식, (5)일본어 학교 통학 경험 등이 포함된다.

(1) 가정 내 사용 언어

표15 가정 내 사용 언어 -부모와 자식 사이(세대주와 자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용 언어	비라카론	스자노 후쿠 하쿠마을	마린가	아리안사	전체
포르투갈어	86(40.4%)	31(28.7%)	187(71.4%)	39(24.7%)	343(46.3%)
일본어	26(12.2%)	31(28.7%)	14(5.3%)	47(29.7%)	118(15.9%)
일본어와 포르투갈어 병용	70(32.9%)	46(42.6%)	61(23.3%)	72(45.6%)	249(33.6%)
기타	25(11.7%)	-	-	-	25(3.4%)
불명	6(2.8%)	-	-	-	6(0.8%)
합계	213	108	262	158	741

표16 가정 내 사용 언어 -부부 간(세대주 부부) -

부부 간의 사용 언어	비라카론	스자노 후쿠 하쿠마을	마린가	아리안사	전체
포르투갈어	53(29.4%)	36(31.3%)	152(63.3%)	38(25.3%)	279(40.7%)
일본어	48(26.7%)	43(37.4%)	24(10.0%)	66(44.0%)	181(26.4%)
일본어와 포르투갈어 병용	41(22.8%)	35(30.4%)	63(26.3%)	46(30.7%)	185(27.0%)
기타	34(18.9%)	-	-	-	34(5.0%)
불명	4(2.2%)	1(0.9%)	1(0.4%)	-	6(0.9%)
합계	180	115	240	150	685

표17 가정 내 사용 언어 -아이 간 (세대주의 아이)-

아이 간의 사용 언어	비라카론	스자노 후쿠 하쿠마을	마린가	아리안사	전체
포르투갈어	152(83.1%)	82(74.4%)	242(84.7%)	34(55.2%)	492(76.8%)
일본어	6(3.3%)	4(4.9%)	4(1.7%)	8(6.0%)	22(3.4%)
일본어와 포르투갈어 병용	17(9.3%)	17(20.7%)	31(12.8%)	52(38.8%)	117(18.3%)
기타	3(1.6%)	-	1(0.4%)	-	4(0.6%)
불명	5(2.7%)	-	1(0.4%)	-	6(0.9%)
합계	183	82	242	134	641

(2) 정기 구독물 (신문·잡지)

표18 정기 구독물 -신문-

신 문	비라카론	스자노 후쿠 하쿠마을	마린가	아리안사	전체
포르투갈어	73(39.7%)	41(43.2%)	203(82.5%)	45(39.5%)	362(56.7%)
일본어	53(28.8%)	30(31.6%)	16(6.5%)	52(45.6%)	151(23.6%)
일본어와 포르투갈어 병용	53(28.8%)	24(25.3%)	15(6.1%)	13(11.4%)	105(16.4%)
기타	5(2.7%)	-	6(2.4%)	1(0.9%)	12(1.9%)
불명	-	-	6(2.4%)	3(2.6%)	9(1.4%)
합계	184	95	246	114	639

표19 정기 구독물 -잡지-

잡지	비라카론	스자노 후쿠 하쿠마을	마린가	아리안사	전체
포르투갈어	91(67.4%)	31(48.4%)	189(84.4%)	39(37.5%)	350(66.4%)
일본어	26(19.3%)	24(37.5%)	12(5.4%)	42(40.4%)	104(19.7%)
일본어와 포르투갈어 병용	16(11.9%)	9(14.1%)	9(4.0%)	19(18.3%)	53(10.1%)
기타	2(1.5%)	-	8(3.6%)	4(3.8%)	14(2.7%)
불명	-	-	6(2.7%)	-	6(1.1%)
합계	135	64	224	104	527

(3) 일본계 미디어 (NHK와 일본계 라디오)

표20 일본계 미디어 -NHK-

NHK	비라카론	스자노 후쿠 하쿠마을	마린가	아리안사	전체
본다	84(35.6%)	49(36.6%)	85(31.4%)	68(36.8%)	286(34.6%)
안 본다	150(63%)	84(62.7%)	186(68.6%)	117(63.2%)	537(65.0%)
불명	2(0.8%)	1(0.7%)	-	-	3(0.4%)
합계	236	134	271	185	826

표21 일본계 미디어 -일본계 라디오-

일본계 라디오	비라카론	스자노 후쿠 하쿠마을	마린가	아리안사	전체
듣는다	65(28.0%)	15(11.4%)	17(6.3%)	12(10.1%)	109(14.5%)
안 듣는다	164(70.7%)	116(87.9%)	250(93.3%)	107(89.9%)	637(84.8%)
불명	3(1.3%)	1(0.8%)	1(0.4%)	-	5(0.7%)
합계	232	132	268	119	751

(4) 일본어 능력 의식 (자기 평가)

표22 일본어 능력 의식 -읽기·쓰기-

일본어 능력	비라카론	스자노 후쿠 하쿠마을	마린가	아리안사	전체
잘한다	229(24.5%)	202(39.5%)	160(15.8%)	260(40.4%)	851(27.4%)
그저그렇다	299(31.9%)	141(27.5%)	308(30.3%)	266(41.3%)	1,014(32.6%)
못한다	371(39.6%)	154(30.1%)	542(53.4%)	106(16.5%)	1,173(37.8%)
불명	37(4.0%)	15(2.9%)	5(0.5%)	12(1.9%)	69(2.2%)
합계	936	512	1015	644	3107

표23 일본어 능력 의식 -말하기·듣기-

일본어 능력	비라카론	스자노 후쿠 하쿠마을	마린가	아리안사	전체
잘한다	432(46.2%)	322(62.9%)	286(28.2%)	414(64.3%)	1454(46.8%)
그저그렇다	277(29.6%)	95(18.6%)	302(29.8%)	171(26.6%)	845(27.2%)
못한다	200(21.4%)	81(15.8%)	419(41.3%)	51(7.9%)	751(24.2%)
불명	27(2.9%)	14(2.7%)	8(0.8%)	8(1.2%)	57(18.3%)
합계	936	512	1015	644	3107

(5) 일본어 학교 통학 경험

표24 일본어 학교 통학 경험별 인구

일본어 학교 통학 경험	비라카론	스자노 후쿠 하쿠마을	마린가	아리안사	전체
다녔다	438(46.8%)	321(62.3%)	525(51.7%)	398(61.8%)	1,682(54.1%)
다니지 않았다	416(44.4%)	164(32.0%)	469(46.2%)	233(36.2%)	1,282(41.3%)
무응답	82(8.8%)	27(5.3%)	21(2.1%)	13(2.0%)	143(4.6%)
합계	936	512	1015	644	3107

1.6.2. 언어생활 조사 결과

여기에서는 ‘브라질 일본계인의 언어생활 조사’에서 두 곳의 조사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218명(상파울루 근교 농촌 스자노시 후쿠하쿠 마을: 108명, 상파울루주 오지 농촌 아리안사 이주지: 110명)으로부터 수집한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조사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조사 대상자의 개인 특성부터 개관한 뒤, 이어 언어에 관한 조사 항목 중에서도 특히 언어 능력과 언어 사용 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결과를 언급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자의 개인 속성에 대하여는 (i)세대 연령층의 특징, (ii)사회경제적 측면 및 일본과의 관계성 측면, 언어 항목에 대하여는 (iii)가정 및 지역 일본계 단체 도메인에서의 언어 사용, 각 도메인에서의 언어 유지와 언어 전파의 실태, (iv)콜로니아어(일본어와 포르투갈어가 혼합된 것) 관련 실태와 의식, 이상의 네 가지 항목을 통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1) 조사 대상자의 개인 속성 1 -세대와 연령-

현재 일본계 지역공동체의 세대별 인구 구성은 전반적으로 보면 2세의 비율이 가장 많고,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계 지역 인구의 핵심층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3세가 약 30%, 1세가 20% 남짓, 그리고 4세·5세·혼혈 일본계인·비일본계인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각 세대의 연령별 인구 구성 특징을 보면 1세 인구는 60대에서 80대까지의 고령자층 비율이 가장 높고, 2세 인구는 10세 미만에서부터 80대까지의 광범위한 연령층에 확산하고 있지만 대체로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3세 인구는 30대까지의 청(소)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4세 이후의 인구는 10대까지가 대부분이다. 또한 혼혈 일본계인의 인구 비율은 대체로 2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본계인 배우자가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비일본계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30대·40대부터이며 이민족 간 결혼의 증가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계 지역공동체에서의 세대별 연령별 인구 구성의 일반적인 경향은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에서도 아리안사 이주지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지만 특히 아리안사 이주지에서는 2세의 인구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이 있다.(상파울루 인문과학연구소 2002: 55~56).

다음의 표25, 표26에 이번 언어생활 조사 조사지인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과 아리안사 이주지 2곳의 조사 대상자에 관하여 그 세대나 연령의 분포 상황을 제시하여 둔다.

표25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언어생활 조사 대상자의 세대별 · 연령별 인원 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합계
1세	-	-	-	1(2.6)	9(23.1)	3(7.7)	14(35.9)	12(30.7)	-	39
2세	-	3(7.3)	2(4.9)	9(22.0)	13(31.7)	13(31.7)	1(2.4)	-	-	41
3세	1(3.6)	16(57.1)	7(25.0)	4(14.3)	-	-	-	-	-	28
	1	19	9	14	22	15	15	12	-	108

표26 아리안사 이주지의 언어생활 조사 대상자의 세대별 · 연령별 인원 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합계
1세	-	-	1(2.40)	1(2.40)	3(7.3)	6(14.6)	13(31.7)	15(36.6)	2(5.0)	41
2세	-	2(5.0)	5(12.2)	5(12.2)	11(26.8)	14(34.1)	4(9.8)	-	-	41
3세	-	8(28.6)	15(53.6)	5(17.9)	-	-	-	-	-	28
	-	10	21	11	14	20	17	15	2	110

대상자의 선정 시 앞서 언급한 일본계 사회의 기초 사회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세대별 연령별 인구 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지역 전체의 세대 · 연령 분포 상황은 거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세 및 2세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 ‘언어 기록 · 보존의 긴급성’이라는 관점에서 되도록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3세의 경우 그 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적게 되었다.

2) 조사 대상자의 개인 속성 2 -사회경제적 측면 및 일본과의 관계성 측면-

이번 언어생활 조사의 조사 대상자 개인들의 속성에 대해서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초적인 개인 정보(성별, 연령, 세대, 국적 등) 외에도 사회경제적 측면(혼인

상의 지위, 배우자 세대, 학력, 직업 등), 문화적 측면(언어, 종교 귀속 등), 일본과의 관계성 측면(방일(訪日) 경험, 객지별이 경험) 등 다양한 시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조사 대상자의 여러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세대 간 차이의 특징에 대하여서 보면, 1세와 3세 개인의 사회적 속성은 거울상과도 같은 대조 관계에 있으며, 2세의 사회적 속성은 그 중간의 양의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세로 대표되는 농업 이민적(일본성) 특성은 2세층을 중간으로 하여 3세로 대표되는 도시 생활자적(브라질성) 특성으로 반전되는 경향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표27에서 몇 개 항목에 대하여 그 특징을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표27 언어생활 조사 대상자의 세대 간 개인 속성 차이

개인 속성 항목	세대 간 차이 특징
배우자 세대	1세 배우자 세대에 3세는 없으며 1세와 2세뿐이다. 2세의 경우에는 동 세대와의 결혼이 많고 이민족 간 결혼도 있다. 3세의 배우자 세대에서 1세는 없으며 이민족 간 결혼이 증가한다.
학력	1세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세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지만 대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그 뒤를 잇는다. 3세에서는 대학교 졸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대부분 고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활동	1세는 농업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퇴직자, 주부가 그 뒤를 잇는다. 2세에서도 역시 농업 종사자가 가장 많고 주부가 다음으로 많다. 다만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에서는 상업 종사자의 비율도 일정 부분 나타난다. 3세에서도 여전히 농업 종사자가 많지만,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에서는 상업·판매, 관리·사무, 전문·기술 등, 보다 도시적인 직업 범주로 그 취업 인구가 확산해가고 있다.
종교 귀속	1세에서는 불교 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리안사 이주지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신자의 비율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브라질적 종교인 가톨릭 신자의 비율은 낮다. 2세에서는 불교 신자와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반반이다. 3세에서는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 일본적/ 1세적 종교인 불교나 프로테스탄트의 신자의 비율은 낮다.
방일(訪日) 경험	여기에서 말하는 ‘방일(訪日) 경험’이란 관광과 친척 방문, 객지별이 이외의 일, 즉 유학·연수 등을 가리킨다. 1세의 방일(訪日) 경험자의 비율은 60%를 넘으며 2세가 되면 30% 남짓으로 감소하고, 3세에 이르러서는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객지별이 이외의 일본과의 관련성은 친척 방문 등을 통하여 방일(訪日) 경험이 많은 1세가 역시 강하고 3세가 되면 약해진다.
객지별이 경험	1세의 객지별이 경험자의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지만 2세가 되면 10%를 넘기 시작하며, 3세에 이르러서는 30% 정도로 증가한다. 방일(訪日) 경험과는 반대로 객지별이를 통하여 일본과의 관련성, 바꿔 말하면 직장으로서의 일본과의 관련성은 3세에서 강해지며 1세에서는 약하다.

3) 언어 사용에 관한 결과

여기에서는 언어에 관한 항목, 특히 언어 사용에 초점을 맞춰 사회언어학적 시점에서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분적이거나 도시 근교 농촌인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일본계인 주민 자료를 중심으로 각각의 도메인에서의 언어 유지와 언어 전환 실태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조사 대상자의 언어활동을 도메인별로 나눈 뒤, 각각의 도메인에서의 1세부터 3세까지의 언어 사용의 연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각 도메인에서의 세대와 언어 보존 유지 및 언어 전환의 관계를 밝히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한다.

다음에서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도메인별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전체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밝혀두면 다음과 같다.

- (1) 여기에서는 스자노의 데이터만을 취급하였지만, 언어 능력과 언어 사용 어느 쪽에 관하여서든 스자노와 아리안사, 양쪽의 조사 지점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기록하여 둘 필요가 있다. 도시 근교 농촌인 스자노가 비교적 유동성이 있어 브라질인과의 접촉도 많기 때문에 1세의 포르투갈어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알았지만, 전체적으로 아리안사와는 큰 차이가 없다.
- (2) 언어형성기 이후에 브라질로 건너간 1세와 언어형성기에 브라질로 건너간 준 1세 사이에 언어 사용에 관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과는 설문 조사에 의한 것으로 실제 언어 사용을 조사한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a)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각 조사 대상자가 가족의 각 구성원에게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각각의 상대가 조사 대상자에게 말을 걸 때의 언어를 세대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ㄱ. 세대와 언어 전환

각 세대별 결과를 보면 1세에서 3세로 갈수록 일본어로부터 포르투갈어로 점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청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일본어만을 사용하는 1세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포르투갈어를 우선시하는 3세의 결과가 주목할 만하다.

1세와 3세의 결과는 각각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한편 2세의 결과는 일정치 못하다. 그 결과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2세를 ‘1세에 가까운’ 화자에서부터 ‘3세에 가까운’ 화자까지의 한 연속체 안에 배치하여 볼 수 있다. 즉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여 1세와 유사한 언어생활 그룹(1세 유사 그룹)과 포르투갈어를 많이 사용하여 3세와 유사한 언어생활의 그룹(3세 유사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ㄴ. 세대 간 언어 사용

화자가 동세대와 윗세대, 아랫세대에게 각각 말을 걸 때 반드시 동일 언어를 사용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화 상대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는 1세에 비하여, 2세와 3세는 대화 상대의 세대에 따라 언어를 달리 구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2세의 경우에 동세대의 배우자에게 일본어를 사용하는 ‘1세 유사 집단’ 화자일수록 아이에게도 일본어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그 사용 빈도는 다소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배우자와 아이에게 포르투갈어만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3세 유사 집단’에 속하는 2세의 경우, 1세인 부모에게는 1세 화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어로 말을 건다고 한다.

3세의 대부분은 동세대의 배우자와 아랫세대의 아이, 양쪽 모두에게 포르투갈어로 말을 걸지만, 부모에게는 일본어도 사용한다는 화자도 있다. 게다가 조부모에게는 80%가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3세 중 현재 조부모가 생존하여 있는 사람, 또 조부모와 접촉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경향으로서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에서의 3세대의 언어 사용 결과를 근거로 하여 2세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일본어로부터 포르투갈어로의 전환 과정이 3세에 와서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b) 일본계 단체 내 언어 사용

일본계 단체는 해당 이민 사회 주민이 교류하는 장소인 동시에 같은 언어 공동체에 속한 일본계인들이 연대감을 강화하고 또한 확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는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성질과 활동 내용에 따라 스자노와 아리안사의 일본계 단체를 문화협회·자치회·촌의회, 노인회, 청년회, 부인회, 문예·스포츠·취미회, 그 외로 분류하여 각각의 단체 내의 일본어와 포르투갈어 사용률을 조사하였다. 스자노의 세대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조사 대상자가 복수의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계 시 참여 단체 수가 아닌 ‘참여한다’는 것을 중시하였다. 참여하는 사람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하와 같이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다.

우선 전체적인 언어 사용을 보면 1세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만을 사용한다. 2세도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1세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사회적 속성을 보면 그 대부분이 50세 이상으로 ‘1세 유사 집합’의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세의 일본어 사용에 관한 이 결과는 가정 도메인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3세는 포르투갈어만, 또는 포르투갈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대답한 화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일본계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1세의 경우는 각각 약 50%(39명 중 19명)이며, 2세와 3세의 경우에는 일본계 단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 절반을 상회한다(2세 41명 중 28명, 3세 28명 중 19명).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일본계 단체 내에서도 세대가 바뀔에 따라 일본어 사용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세에 이르러서는 일본어가 실용적인 언어로서 기능하지 않게 된 점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단체별 결과를 보면 각각의 세대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단체는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1세는 문화협회·자치회·촌의회, 노인회, 문예·스포츠·취미회, 2세는 부인회와 문화협회·자치회·촌의회, 3세는 문화협회·자치회·촌의회와 청년회이다. 참고로 3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회의 경우 포르투갈어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편 자치회에서는 적게나마 일본어를 사용하는 3세 화자도 볼 수 있다. 그것은 본인의 윗세대, 특히 1세와의 접촉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통하여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의 일본계인 이민 사회 내 언어 사용 양태를 알아보았다. 특히 언어 보존 유지 및 전환의 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도메인과 지역 사회 일부인 일본계 단체 도메인 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어느 도메인에서든 세대가 바뀔에 따라 일본어로부터 포르투갈어로의 전환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1세와 3세는 거울상(mirror image) 관계에 놓여 있으며 2세는 두 개의 패턴을 보였다. 즉 1세는 어느 도메인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지 주로 일본어를 사용한다. 그에 반하여 전형적인 3세는 포르투갈어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세와 3세의 접점인 2세의 경우에는 1세 유사 집단 화자와 3세 유사 집단 화자의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고령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 (2) 전체적인 결과로 보면 실용적인 생활 언어로서의 일본어는 1세 및 일부 2세와 대화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가정 도메인에서 관찰된다. 낮은 연령대의 2세(40대 이하 화자)에서부터 3세에 걸쳐 포르투갈어 단일화자화가 진행되고 있음은 명확하다.

4) 콜로니아어의 실태와 의식

언어생활 조사에서는 이른바 ‘콜로니아어’의 사용 실태와 의식, 이미지에 관하여 조사 대상자 전원에게 ‘당신은 가족이나 일본계 친구와 이야기할 때, 일본어와 포르투갈어를 섞어서 말할 때가 있습니까?’, ‘당신은 일본어와 포르투갈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자의 경우 ‘있다’, ‘없다’, ‘모른다’의 세 가지 선택지를 준비하였으며 후자의 경우는 자유 응답으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콜로니아어(일본어와 포르투갈어를 혼합한 것)의 사용 실태 조사 결과부터 보면, 스자노 후쿠하쿠 마을과 아리안사 이주지 모두에서 1세·2세·3세 상관없이 조사 대상자 전체의 약 80%가 ‘콜로니아어로 이야기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2세층이며, 양 조사지 모두에서 콜로니

아어로 이야기한다는 답변이 90%를 넘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 1세층에서는 ‘콜로니아어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이 20% 이상이었으며 3세층에서는 20%보다 약간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1세층에서는 일본성, 일본어에 대한 보다 강한 자기 정체성 의식, 3세층에서는 브라질성, 포르투갈어에 대한 보다 강한 자기 정체성 의식이 사용 실태 답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콜로니아어를 둘러싼 의식에 대하여 각 세대의 조사 대상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얻었는데, 이는 크게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중간 이미지’의 세 범주로 나누어 답변을 유형화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는 ‘말하기 쉽다·알기 쉽다·의사소통상의 편리’라는 답변이 각 세대마다 공통적으로 나왔으며 1세층에서는 ‘콜로니아어는 친근한 말’, 2세·3세층에서는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섞으면 일본어를 잊지 않기 때문에 좋다’ 등 세대별 특성이 반영된 보다 적극적인 답변도 얻을 수 있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섞어 버린다’는 소극적인 답변이 각 세대 전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어로 말할 때는 일본어만으로, 포르투갈어로 말할 때는 포르투갈어만으로 말하는 편이 좋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보였다. 이 설문에 대하여서는 ‘중간 이미지’라는 답변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반적인 일’,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1.6.3.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이 연구는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일본어와 포르투갈어라는 계통이 다른 언어 접촉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접근이다. 언어 접촉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층위의 상관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① 정치, 경제, 사회적 층위
- ② 언어행동 층위 (언어 사용과 의식)
- ③ 언어구조 층위

또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매우 단순하게 말하면 ①층위의 변화가 ②층위의 변화를 제공하고, ②층위의 변화가 ③층위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통시적이

고 동태적인'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어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브라질의 일본계 이민자들은 두 개의 장벽에 직면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포르투갈어라는 브라질의 우세 언어에 대한 대응 문제이다. 또 하나는 (이민 시 연령이나 학력의 문제 등을 고려해도) 다양한 방언을 모어로 하는 이민자들 사이에서 일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할 때 지역 공통어로서의 일본어의 생성 문제이다. 따라서 브라질 일본계 사회에서는 단순한 일본어와 포르투갈어 접촉이 아닌, 일본어 내부의 방언 접촉과 포르투갈어와의 접촉이 중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포르투갈어 내부 변형은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어를 중심으로 세대차를 축으로 한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결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1) 세대의 이주와 일본어의 동적 측면

결과를 매우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그림1, 그림2와 같다.

우선 그림1을 보기 바란다. 굵은 선 역삼각형은 일본어이고 가는 선 삼각형은 포르투갈어이다. 1세, 2세, 3세별로 일본어에서 포르투갈어로 이행해 가는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일본어와 포르투갈어 능력과 사용에 있어서 1세와 3세가 거울상(mirror image) 관계에 있다는 것도 나타내고 있다. 전형적인 형태로 일본어와 포르투갈어의 이중 언어 화자가 출현하여 문장 층위의 코드 스위칭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물망으로 나타낸 2세이다. 왼쪽의 지역, 가정(조부모)은 도메인이며 오른쪽의 복문·연문, 단문, 단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 구조적 측면이다.

도메인의 축소화와 언어 구조면에서의 단순화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굵은 선 역삼각형의 상단은 4기능이다. 복잡하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것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2이다. 여기서는 1세는 4기능을 갖추고 있고 반대로 3세는 듣기 능력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1 콜로니아어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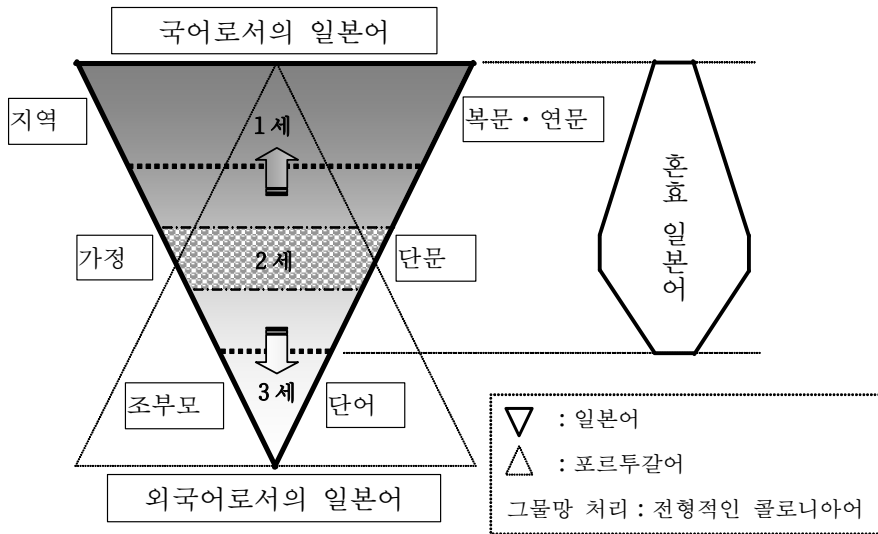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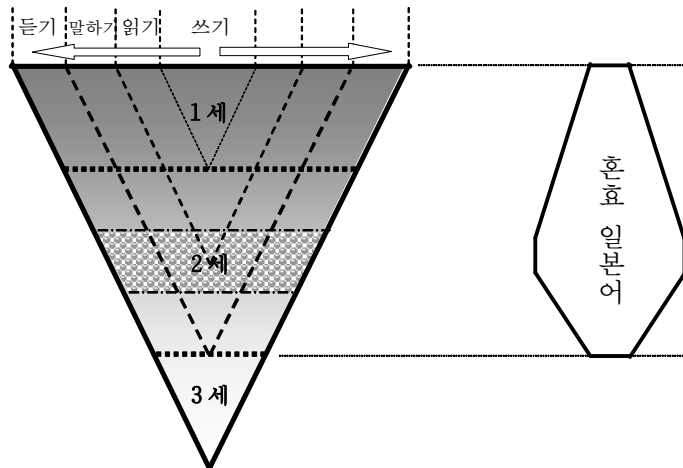


그림2 일본어 운용 능력과 4기능



다음으로 상기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1) 여기서 1세는(현재의 분석 결과에서 성인 이민자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아이 이민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 태생의 이민 모두를 포함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아이 이민이 학력에 관계없이 성인 이민

자와 다르지 않은 일본어를 익히고 있는 것은 지역의 일본어 기능과 정체성 문제, 또는 국어로서의 일본어 의식 문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점의 분석은 이후 과제이다.) 1세의 특징은 다음의 4가지이다.

- ① 가정 도메인뿐만 아니라 가정 외 도메인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한다.
- ② 일본어는 듣고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 ③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문장을 단위로 (일본의 일본인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담화 구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
- ④ 출신 방언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다양한 지역 출신의 이민자 간의 지역 공통어로 혼효 일본어라고 하는 방언 접촉에 의한 일본어의 변형이 생성되어 있다.

(2) 2세는 다양한 양상이 있는데 1세에 근접한 유형, 3세에 근접한 유형, 그 중간의 가장 2세다운 유형 등 3분류로 모델화할 수 있다. 2세의 다양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는 (a)언어형성기의 언어가 일본어인가 포르투갈어인가, (b)브라질의 교육 정도의 차이가 현저한 것 같다. 기본적으로 언어형성기의 언어가 일본어이고 교육력이 높지 않은 2세는 일본어 능력 (듣고 말하기 능력)이 높고, 언어형성기의 언어가 포르투갈어이고 브라질의 교육력이 높은 2세는 일본어 능력이 3세에 가깝다.

다시 말하여 2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도메인적으로는 일본어 사용이 가정 내로 한정되고 있다.
- ② 듣기·말하기의 2기능으로 한정된다.
- ③ 위와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 활동 단위로서의 문장 구조의 단순화(복문보다도 단문을 많이 사용)가 진행되고 있다. 반대로 기본적으로 포르투갈어가 단어 수준의 차용에 머물러 있는 1세와는 달리 2세는 문장 단위의 일본어와 포르투갈어 코드 스위칭을 자주 사용한다. 일상적인 화제에서는 일본어를 추상적인 화제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전환도 볼 수 있다.
- ④ 혼효 일본어라고 할 만한 접촉 방언으로서의 일본어 변이는 1세와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3) 3세가 되면 기본적으로 일본어로부터 포르투갈어로의 이행이 완성되는 단계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3세의 조사 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다.) 일본어 능력에 차이가 나는 요인으로서는 (a) 일본어 교육력 유무 및 그 기간, (b) 이주 경험의 유무 및 그 기간이 관련되어 있다. 3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조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조부모와의 대화에서 일본어를 습득하고 사용한다. (이것은 일본어가 일정한 도메인에서밖에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4가지 기능 중, 듣기 능력이 끝까지 남아 있다. (반대로 3세에서 포르투갈어는 4 기능 모두 갖추어져 있다.)
- ③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기본적으로 포르투갈어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3세라도 문장 수준의 사용은 불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단어 수준의 대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격조사의 사용 제한, 동사의 기본형과 (te)형의 사용에 제한, 종조사 (ne)의 제한 등이 연동하고 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단위가 문장인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의미에서 일본어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이 3세의 특징이지만 실제로 조부모가 있는 가정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1세의 ‘국어로서의 일본어’가 아니라 말하자면 ‘외국어로서의 일본어’ 교육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2) 콜로니아어에 대하여

콜로니아어는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본어와 포르투갈어를 섞어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언어생활 조사 결과에서는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인 세 가지 평가 태도를 볼 수 있다.

언어와 언어접촉·혼화를 일으키는 경우, 단순히 말하여 ① 접촉 관계의 질·정도와 ② 각각의 접촉 언어 실태가 먼저 문제가 될 것이다. ①에 대하여 말하자면 크게 포르투갈어와 일본어로 2분할한 경우에는 1세의 단어 층위의 이른바

은 접촉 단계에서, 2세의 문장 층위의 코드 스위칭이 일어나는 깊은 접촉 단계를 거쳐, 3세의 포르투갈어로의 이행을 관찰할 수 있다. (다만 3세의 포르투갈어 사용 중에 일본어의 흔적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하는 점은 아직 완전히 분석되지 않았고, 개인 수준의 접촉 관계와 지역 사회 수준의 접촉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지 못한 점도 밝혀둔다.)

이상과 같은 고찰로부터 일본어 내부의 변형은 불문하더라도, 포르투갈어와의 접촉과 동시 병행적으로 일본어 내부에서의 언어 (방언) 접촉 또는 그에 따른 단순화나 유추 형식의 생성 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1세, 2세의 일본어의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 (1) 동일본 지역 방언적인 요소(또는 표준어적 요소)와 서일본 지역 방언적인 요소의 혼재·병용
 - ・イル(iru)와 オル(oru), ~テル(teru)와~トル(toru), ~ナイ(nai)(~ナカッタ(nakatta))와 ~ン(n)(シカッタ(nkatta)) 등
- (2) 서일본 지역 방언 형식의 콜로니아 공통어화 (1세의 동일본 지역 출신자도 사용)
 - ・~ヨル(yoru), ヨウ~セン(yo~sen), ~シキラン(~sikiran) 등
- (3) 단순화
 - ・모든 동사의 5단활용화, (ra)탈락어(ranuki speech, 抜き と) 가능 형식과 ~シナイ(sinai)(セン(sen))デス(desu)형식의 사용
 - ・남녀 차를 나타내는 여러 형식의 미사용
- (4) 유추에 의한 생성 형식
 - ・行カンキヤナラン(ikankyanaran)(가야 한다)와 같은 양태 형식의 사용 등 (단 일본의 방언의 실태에 대하여서는 미확인)

일본어 내부의 방언 접촉과 동시 병행적인 포르투갈어와의 언어 접촉이라는 중층적인 전개 과정을 앞으로의 분석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 추측의 영역에 불과하지만, 표준어 또는 동일본 지역 방언으로서 ~シテル(siteru)형식이 ‘死による(siniyoru)、行きよる(ikiyoru)、12時になりよる(jyunijininariyoru)’에서는 간단히 나

타낼 수 있는 ‘변화 과정’의 의미를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다면, 포르투갈어와의 접촉 상황에서 이 형식은 이미 콜로니아 공동어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언어 접촉론은 가장 거시적인 정치·경제·역사적인 관점에서 가장 미시적인 복수의 여러 언어(여러 방언)의 구조적 실태의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계 사회의 언어 조사 연구의 이후 연구과제로서 다음의 2가지 항목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a) 일본 각지의 일본계 브라질인 이민 사회 내 일본어와 포르투갈어의 언어 접촉 현상은 일본계 브라질인의 객지별이 현상에 의하여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1908년부터 시작된 일본인의 브라질 이민을 계기로 브라질에서의 언어접촉이 현재의 일본에서의 언어접촉을 일으킨 것이며, 현재 우리들이 그러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다. 브라질 일본계 사회와 제일 브라질인 이민 사회의 언어접촉은 상호 비교하여 살펴볼 만한 현상이다. 브라질에서의 일본어와 포르투갈어의 접촉 결과와 일본에서의 일본어와 포르투갈어의 접촉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지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b) 제일 브라질인 이민 사회의 언어와 브라질 일본계 사회의 언어를 둘러싼 사회 문제에 대처하여, 자녀들의 일본어 습득과 모어 유지에 관한 정책적인 연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쓰다 편(津田編, 2003)에서는 일본인과 일본계 브라질인의 공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는데 이후 이러한 종류의 연구의 활발한 전개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李吉鎔(2006a) 「브라질日系社会言語調査の概要」 『国文学解釈と鑑賞 特集南米の日本人と日本語』 第71巻7号 至文堂 pp.90-98
- _____(2006b) 「言語調査を内観するー調査者の思いとフィールドの声ー」 『2005年度〈若手研究集合〉報告書』 大阪大学21世紀COEプログラム「インターフェイスの人文学」 大阪大学文学研究科・人間科学研究科・言語文化研究科
- 井出祥子(1992) 「日本人のウチ・ソト認知とわきまの言語使用」 『月刊言語』 21-12
- 前山隆(2001) 「同伴移民、妻移民、子供移民-ブラジル日系女性移住体験を中心に-」 阪南大学学会編『阪南論集 人文・自然科学篇』 36-3 pp.1-14
- アンドウ・ゼンバチ(1956) 「コロニア語」 『エスベランサ』 第3号 p.3
- アンドウ・ゼンバチ他(1951) 「二世と日本S語の問題(座談会)」 人文科学研究会編『時代』 第13号
- 太田典礼(1959) 「ブラジル邦人の言語生活」 『言語生活』 97 pp.64-70
- 工藤真由美編 (2003) 『言語の接触と混交ー日系ブラジル人の言語の諸相』 大阪大学21世紀COEプログラム「インターフェイスの人文学」 2002・2003年度報告書5 (第1部)
- _____(2004) 『ブラジル日系社会言語調査報告』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44-2
- 久山恵 (2000a) 「ブラジル日系一世の日本語におけるポルトガル語借用-借用頻度と社会的要因との関連性について-」 『第7回国立国語研究所国際シンポジウム第1専門部会 日系ブラジル人のバイリンガリズム』 国立国語研究所 pp.1-19
- _____(2000b) 「ブラジル日系一世の日本語におけるポルトガル語借用-その形態と運用-」 『社会言語科学』 3-1 pp.4-16
- 佐藤常蔵(1956) 「コロニア語の解剖」 『ブラジルの風味』 東京 日本出版貿易株式会社
- 真田信治編 (2006) 『社会言語学の展望』 くろしお出版馬瀬(1986)
- 山東功(2003) 「ブラジル日系人の日本語への視点」 『女子大文学 国文篇』 54 pp.36-54
- サンパウロ人文科学研究所編(2002) 『日系社会実態調査報告書』 サンパウロ
- 鈴木妙(1994) 「ブラジル日系人の敬語行動と文化変容」 『世界の日本&語教育〈日本語教育論集〉』 4 国際交流基金日本語国際センター、pp.209-223
- 津田葵編 (2003) 『言語の接触と混交ー日系ブラジル人の言語の諸相』 大阪大学21世紀COEプログラム「インターフェイスの人文学」 2002・2003年度報告書5 (第2部)
- 中東靖恵&Leonardo A . de P.MELO(2003) 「ブラジル日系社会における言語の総合的研究に向けて(1)」 『岡山大学文学部紀要』 第39号 pp.67-82
- 半田知雄(1952) 「ブラジルにおける日本語の運命」 人文科学研究会編『時代』 第15号(1972) 「日本語会話に取り入れられたポルトガル語」 コロニア文学会編『コロニア文学』 第17号
- _____(1980a) 「ブラジル日系社会における日本語の問題(一)」 『言語生活』 346 筑摩書房 pp.75-81
- _____(1980b) 「ブラジル日系社会における日本語の問題(二)」 『言語生活』 347 筑摩書房 pp.58-65

- _____(1980c) 「브라질日系社会における日本語の問題(三)」 『言語生活』 348 筑摩書房 pp.67-73
- 半田知雄他(1970) 「伝承に耐え得る日本語 コロニア日本語 の現状と将来」 『コロニア文学』 第12号
- 比嘉正範(1982) 「ブラジルにおける日本人移住者の言語適応」 『ラテンアメリカ研究』 4 153-179
- 前山隆(1972) 「トマテとコンピュータ縁起」 『コロニア文学』 第18号
- 馬瀬良雄 (1986) 「ブラジル便)-ブラジル日系人の日本語」 『言語生活』 418 筑摩書房
- Beebe, L. and H. Giles(1984) Speech accommodation theories: a discussion in term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46: 5-32
- Bell, A.(1984)Language style as audience design. *Language in Society* 13: 145-204
- Dorian, N. C.(1977)The problem of the semi-speaker in language death.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2:23-32
- Fishman, J.(1972)*The Sociology of Language*. Rowley, MA: Newbury House. 湯川恭敏訳 『言語社会学入門』 大修館書店
- Weinreich, U., W. Labov and M. Herzog(1968)Empirical foundations for a theory of language change. In W. P. Lehmann and Y. Malkiel eds. *Directions for Historical Linguistics: A symposium*, pp.95-189.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山口秀夫訳 『言語史要理』 大修館書店)

《재외동포 실태 및 이중언어에 관한 참고 문헌》

- 김정근 외(2005) 『재외한인 민족교육의 실태』, 집문당
- ____ 외(2006) 『재외 한인의 민족교육관』, 북코리아
- 金敏洙(1983) 「海外僑胞子女를 위한 国語教育의 効率的 法案」 『二重言語学会誌(국제화 시대의 이중언어 교육)』 (二重言語学会)
- 김성학(2005)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체성 및 한민족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통관광 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숙 외(2008) 『재외한인 민족교육 모형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북코리아
- 박갑수(2007)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중언어학』 제33호 이중언어학회 pp.365-393.
- 서정수(1979) 「사회구조변동과 한국어경어법의 추이」 『省谷論叢』 第10輯 別冊
- 윤인진(2002) 「세계 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와 한민족 정체성의 비교연구」 『재외한인연구』 제12권 제1호, pp.5-65.
- ____(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
- ____(2010) 「재외동포의 현황과 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방향」 『한국어교육학회지』 제131호, 한국어교육학회, pp.49-77.
- 이도희(2004) 「민족통합을 위한 재외동포 활용방안 연구」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중택(2006)『해외 한인의 민족관계』 아카넷 pp.175-218.

최기수(2010)「재외한국학교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연구」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井上史雄(1971)「ハワイ日系人の日本語と英語」『言語生活』第341号 筑摩書房

延辺朝鮮族自治州概況執筆班(1987)『中国の朝鮮族』(大村益夫訳)むくげの会刊

生越直樹(1983)「在日朝鮮人の言語生活」『言語生活』第376号 筑摩書房

金原左門他(1986)『日本の中の韓国・朝鮮人、中国人—神奈川県在住外国人実態調査より』明石書店

佐藤明、山田照美編(1986)『在日朝鮮人一歴史と現状』明石書店

真田信治(1986)「社会言語学の方法」『日本語学』第5巻12号 明治書院

野元菊雄(1969)「ブラジルの日本語」『言語生活』第219号 筑摩書房

———(1973)「日本語と日系人」『比較日本人論』林知己夫編 中央公論社

芳賀 純(1971)「二重言語生活者の発想と思考」『言語生活』第239号 筑摩書房

———(1979)『二言語併用の心理——言語心理学的研究』朝倉書房

———(1988)『言語心理学入門』有斐閣

比嘉正範(1974)「ハワイの日本語」『現代のエスプリ』第85号 至文堂

———(1979)「二言語併用の実態とその研究」『言語』第8巻10号 大修館書店

山本雅代(1991)『バイリンガル—その実像と問題点』大修館書店

徐竜達(1987)『韓国・朝鮮人の現状と将来—人権先進国・日本への提言』社会評論社

李光奎(1986)『在米韓国人—総体的接近』一潮閣

林成虎(1988)「在中国朝鮮民族のバイリンガリズム」『言語』第17巻9号 大修館書店

倫義英(1986)「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Koreans in America and their Settlement Patterns」『The Korea Community in America』ソウル

任榮哲(1989)「在米韓国人の言語生活——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から——」『計量国語学』第17巻1号 計量国語学会

———(1993)『在日・在米韓国人および韓国人の言語生活の実態』くろしお出版

韓国外務部編(1987)『在外国民現況』韓国ソウル

洪承稷・韓培浩(1977)「在日同胞の実態調査」『在日韓国人史研究』4(『亜細亜研究57 高麗大学校亜細亜問題研究所)ソウル

———(1978)「在日韓国人の実態調査」『在日朝鮮人史研究』第3号

洪祥進・中島智子(1979・1980)「日本のがっこうに子供を通わせている在日朝鮮人父母の教育に関する調査」『在日朝鮮人史研究』第5、7号

《이중언어 사용에 관한 참고 문헌》

- Ferguson, C.A. (1959) Diglossia. *Word* 15: 325-40
- Fasold, R. W. (1984) *The Sociolinguistics of Society*. Oxford: Blackwell.
- Fishman, J.A. (1965) Who speaks what language to whom and when? *La Linguistique* 2:67-88
- _____ (1967) Bilingualism with and without diglossia; diglossia with and without bilingualism. *Journal of Social Issues* 23(2): 29-38
- _____ (1971) The sociology of language: An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 approach to language and society. In J.Fishman(Ed.), *Advance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Volume 1. The Hague: Mouton
- .Holmes, J. (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London: Longman
- Li Wei, Milroy, L. and Pong, S.C.(1992) A two-step sociolinguistic analysis of code-switching and language choic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1): 63-86
- Muriel Saville-Troike(2009) 『언어와 사회: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입문』 한국문화사
- Suzanne Romaine(1989) 『Bilingualism』 blackwell
- Suzanne Romaine(2009) 『언어와 사회: 사회언어학으로의 초대』 소통
- Winford, Donald (2003) *An Introduction to Contact Linguistic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부 록

면접 조사표(한국어)

面接 調査票(일본어)

면접 조사표 지침서

심층 면접 조사 지침서

000. 조사 지역(大阪, 東京)

001. 조사 시작(_____시_____분)

면 접 조 사 표

<부탁의 말씀>

본 조사는 한국 국립국어원의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 유출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연구 책임자 중앙대학교 교수 임영철(+82-2-820-5123)

100.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10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성 ②여성

102.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①한국 ②북한 ③일본 ④기타(_____)

SQL. (위의 질문 102에서 ①한국 「②북한」 「④기타」라고 응답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그러면 귀하는 몇 살 때 일본으로 이주했습니까? (만_____세)

SQ2. 그러면 현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①한국 ②북한 ③기타(_____)

SQ3. 이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②결혼하기 위해서

③공부를 하기 위해서

④이민 경유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⑤부모나 가족을 따라서

⑥기타(_____)

103. 이주 몇 세대입니까?

①1세대

②1.5세대

③2세대

④3세대

⑤4세대

⑥기타(_____)

104.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농림·어업·임업 ②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 ③단순 노무
④판매·서비스직 ⑤사무직 ⑥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
⑦전업 주부 ⑧학생 ⑨무직 및 기타(_____)

105. 최종으로 졸업한 학력과 지역을 ()안에서 골라 ○표를 해주세요.

- ①초등학교(한국, 북한, 일본, 기타)졸업 ②중학교 (한국, 북한, 일본, 기타)졸업
③고등학교(한국, 북한, 일본, 기타)졸업 ④대학 (한국, 북한, 일본, 기타)졸업
⑤대학원 (한국, 북한, 일본, 기타)졸업 ⑥무학

200. 귀하는 한국에 어느 정도 갑니까?

- ①1년에 1회 이상 ②2~3년에 1회 정도 ③4~5년에 1회 정도
④5~10년에 1회 정도 ⑤10년 이상에 1회 정도 ⑥모르겠다

201. 귀하는 동포와 일본인 중 주로 어떤 사람과 교류합니까?

- ①주로 동포와 교류한다 ②대부분 동포와 교류한다
③동포와 일본인 반반 정도이다 ④대부분 일본인과 교류한다
⑤주로 일본인과 교류한다 ⑥모르겠다

202. 귀하는 일상적으로 동포와는 어느 정도 만납니까?

- ①하루에 1회 이상 ②2~3일에 1회 정도 ③일주일에 1회 정도
④1달에 1회 정도 ⑤2~3달에 1회 정도 ⑥모르겠다

300. 귀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301. 귀하는 한국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302. 귀하는 일본 문화에 적응하기 쉬운 편입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400. 귀하는 동포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401. 귀하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동포는 민족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402. 귀하는 자신의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모르겠다

SQ1 (위의 질문 402에서 「①매우 그렇다」 또는 「②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만
답 해주세요) 그러면 가르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취직이나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②가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③한국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④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⑤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싶기 때문에
⑥기타(_____)

SQ2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까?

- ①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을 정도 ②길을 물을 수 있을 정도
③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을 정도 ④어떤 상황이든지 불편이 없을 정도
⑤완벽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 ⑥기타(_____)

SQ3 (위의 질문 402에서 「③별로 그렇지 않다」 또는 「④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그러면 가르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일본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②장래의 취직 때문에
③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④교육 내용상의 장점 때문에
⑤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받기 싫기 때문에 ⑥기타(_____)

500. 귀하는 한국식 성(姓)과 일본식 성(通名)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①한국식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②일본식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양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④모르겠다

501. 귀하는 조국 팀과 일본 팀이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어느 쪽 팀을 응원합니까?

- ①조국 팀을 응원한다 ②일본 팀을 응원한다
③양쪽 팀을 응원한다 ④모르겠다

502. 귀하는 다음 세대 동포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동포끼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②일본인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③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④모르겠다

600.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 ①잘 한다 ②조금 한다 ③잘 못한다 ④전혀 못 한다 ⑤모르겠다

(1)자기 소개하기나 물건사기 등과 같은 기초적인 대화	① ② ③ ④ ⑤
(2)자신의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	① ② ③ ④ ⑤
(4)연설, 토의, 통역 등 전문적인 대화	① ② ③ ④ ⑤

601.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 ①잘 이해한다 ②조금 이해한다 ③잘 못 이해한다
④전혀 이해 못 한다 ⑤모르겠다

(1)인사말 등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광고, 일기예보 등의 실용적 담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뉴스를 대체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적인 내용의 연설, 토의 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02.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 ①잘 읽는다 ②조금 읽는다 ③잘 못 읽는다 ④전혀 못 읽는다 ⑤모르겠다

(1)간단한 광고나 간판 등의 안내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편지,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잡지, 신문 등 평이한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분야의 서적이거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03. 귀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 ①잘 쓴다 ②조금 쓴다 ③잘 못 쓴다 ④전혀 못 쓴다 ⑤모르겠다

(1)간단한 사물 이름, 위치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00. 귀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 ①잘 한다 ②조금 한다 ③잘 못한다 ④전혀 못 한다 ⑤모르겠다

(1)자기 소개하기나 물건사기 등과 같은 기초적인 대화	① ② ③ ④ ⑤
(2)자신의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	① ② ③ ④ ⑤
(4)연설, 토의, 통역 등 전문적인 대화	① ② ③ ④ ⑤

701. 귀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 ①잘 이해한다 ②조금 이해한다 ③잘 못 이해한다
④전혀 이해 못 한다 ⑤모르겠다

(1)인사말 등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광고, 일기예보 등의 실용적 담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뉴스를 대체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적인 내용의 연설, 토의 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02. 귀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 ①잘 읽는다 ②조금 읽는다 ③잘 못 읽는다 ④전혀 못 읽는다 ⑤모르겠다

(1)간단한 광고나 간판 등의 안내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편지,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잡지, 신문 등 평이한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분야의 서적이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03. 귀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 ①잘 쓴다 ②조금 쓴다 ③잘 못 쓴다 ④전혀 못 쓴다 ⑤모르겠다

(1)간단한 사물 이름, 위치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00. 귀하는 다음의 가족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귀하 →가족)
사용하는 언어를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보기〉		①대부분 한국어로 한다	②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많다
		③반반씩이다	④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많다
		⑤대부분 일본어로 한다	⑥모르겠다

귀하가 말을 거는 상대			사용 언어					
관 계	유 무	국 적	선 택 지					
(1)조부	① ②	한국. 북한. 일본.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2)조모	① ②	한국. 북한. 일본.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3)아버지	① ②	한국. 북한. 일본.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4)어머니	① ②	한국. 북한. 일본.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5)배우자	① ②	한국. 북한. 일본.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6)형제	① ②	한국. 북한. 일본.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7)자매	① ②	한국. 북한. 일본.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8)자녀	① ②	한국. 북한. 일본.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9)손자/손녀	① ②	한국. 북한. 일본.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10)사위	① ②	한국. 북한. 일본.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11)며느리	① ②	한국. 북한. 일본.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12)기타()	① ②	한국. 북한. 일본.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SQL. 그러면 가족이 귀하와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가족 →귀하)
위의 질문 800번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가족→귀하	사용 언어						가족→귀하	사용 언어					
관 계	선택지						관 계	선택지					
(1)조부	①	②	③	④	⑤	⑥	(7)자매	①	②	③	④	⑤	⑥
(2)조모	①	②	③	④	⑤	⑥	(8)자녀	①	②	③	④	⑤	⑥
(3)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9)손자/손녀	①	②	③	④	⑤	⑥
(4)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10)사위	①	②	③	④	⑤	⑥
(5)배우자	①	②	③	④	⑤	⑥	(11)며느리	①	②	③	④	⑤	⑥
(6)형제	①	②	③	④	⑤	⑥	(12)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801. 귀하는 **한국어가 가능한 동포**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사용하는 언어를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 <보기> ①대부분 한국어로 한다 ②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많다
 ③반반씩이다 ④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많다
 ⑤대부분 일본어로 한다 ⑥모르겠다

(1)동포가 모이는 공식적인 모임에서 이야기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2)동포와 개인적인 식사나 술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3)동포가 경영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①	②	③	④	⑤	⑥
(4)길거리에서 서서 동포와 이야기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5)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동포와 이야기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6)동포와 말다툼을 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SQ1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의 질문 801번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1)암산이나 셈을 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2)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①	②	③	④	⑤	⑥
(3)꿈을 꿀 때	①	②	③	④	⑤	⑥

900.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과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그러면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901번으로 이동)

SQ1 (위의 질문 900에서 「①있다」 고 답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그러면 어디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까?

- ①민족학교 등의 정규학교 ②한글학교나 토요학교 등의 비정규학교
③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④독학 ⑤기타()

SQ2 한국어를 배운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3개월 미만 ②3~6개월 ③1년 정도
④2~3년 정도 ⑤5년 이상 ④기타()

SQ3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취직이나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 ②지금하고 있는 일이나 전공에 필요하기 때문에
- ③한국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 ④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 ⑤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 ⑥외국어 습득의 하나로
- ⑦장래에 한국에서 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 ⑧조부모, 부모, 가족, 친척,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 ⑨기타()

SQ4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통학의 어려움 ②교육시설의 부실
③수업료의 부담 ④교육 내용의 부실
⑤교사의 지도 능력 부족 ⑥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의 차이감
⑦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 ⑧기타()

□ SQ5 한국어를 배우고 난 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 ② 한국에 가 보고 싶어졌다.
- ③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다.
- ④ 취직이나 진학할 때 유리했다.
- ⑤ 가족이나 친척들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⑥ 장래에 한국에 가서 취업하거나 생활하고 싶어졌다.
- ⑦ 그다지 없다
- ⑧ 기타()

901. (위의 질문 900에서 「②없다」 고 응답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귀하는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 ①그렇다 ②아니다 ③모르겠다

SQL1 (위의 질문 901에서 「①그렇다」 고 응답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그러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를 답해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 ①취직이나 신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 ②지금하고 있는 일이나 전공에 필요하기 때문에
- ③한국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 ④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 ⑤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 ⑥외국어 습득의 하나로
- ⑦장래에 한국에서 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 ⑧조부모, 부모, 가족, 친척,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 ⑨기타(_____)

SQ2 귀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습니까?

- ①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을 정도 ②길을 물을 수 있을 정도
- ③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을 정도 ④어떤 상황이든지 불편이 없을 정도
- ⑤완벽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 ⑥기타(_____)

902. 귀하는 이후 한국어 교육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보기〉	①매우 중요하다	②약간 중요하다
	③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④전혀 중요하지 않다
	⑤모르겠다	

(1)정치	① ② ③ ④ ⑤	(5)역사	① ② ③ ④ ⑤
(2)경제	① ② ③ ④ ⑤	(6)사회생활	① ② ③ ④ ⑤
(3)사회	① ② ③ ④ ⑤	(7)일상생활	① ② ③ ④ ⑤
(4)문화	① ② ③ ④ ⑤	(8)기타()	① ② ③ ④ ⑤

< 감사합니다 >

- 002. 조사 종료 (_____ 시 _____ 분)
- 003. 사용 언어 (한국어, 일본어, 반반)
- 004.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 (가. 부) 연락처(_____)
- 005. 조사원 (_____)
- 006. 조사 장소 (_____)

000. 調査地域(大阪, 東京)

001. 調査開始(____時____分)

面接調査票

<調査へのご協力のお願>

本調査は、韓国の国立国語院による「海外同胞の言語使用の実態調査のための基礎研究」の一環として行われる研究です。皆様がお答え下さった内容は、研究以外の目的では使用されることなく、皆様の個人情報は決して流出しないことを約束します。調査へのご協力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責任研究者 中央大学校 教授 任栄哲(+82-2-820-5123)

100. 西暦何年生まれですか。(____年)

101. 性別は何ですか。 ①男性 ②女性

102. 出生地はどこですか。 ①韓国 ②北朝鮮 ③日本 ④その他(____)

SQ1 (上の質問102で「①韓国」「②北朝鮮」「④その他」と回答した方のみ答えて下さい) では、あなたは何歳の時、日本に移住しましたか。(満____歳)

SQ2. では、現在の国籍はどこですか ①韓国 ②北朝鮮 ③その他(____)

SQ3 移住した理由は何ですか。

- | | |
|------------|------------------|
| ①経済的な理由のため | ②結婚のため |
| ③勉強するため | ④移民の経由地として活用するため |
| ⑤親や家族とともに | ⑥その他(____) |

103. 移住の何世代ですか。

- | | | |
|------|--------|------------|
| ①1世代 | ②1.5世代 | ③2世代 |
| ④3世代 | ⑤4世代 | ⑥その他(____) |

104. 職業は何ですか。

- | | | |
|-----------|---------------|----------------|
| ①農林・漁業・林業 | ②技能・機械操作及び組立て | ③単純労務 |
| ④販売・サービス業 | ⑤事務職 | ⑥専門家・役員及び管理職 |
| ⑦専業主婦 | ⑧学生 | ⑨無職及びその他(____) |

105. 最終的に卒業した学歴とその地域を()の中から選んで○印をつけて下さい。

- ①小学校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卒業 ②中学校(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卒業
③高等学校(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卒業 ④大学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卒業
⑤大学院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卒業 ⑥無学

200. あなたは韓国へどのくらいの頻度で行きますか。

- ① 1年に1回以上 ② 2～3年に1回くらい ③ 4～5年に1回くらい
④ 5～10年に1回くらい ⑤ 10年以上に1回くらい ⑥ わからない

201. あなたは同胞と日本人のうち、主にどちらの人と付き合っていますか。

- ①主に同胞と付き合う ②ほとんど同胞と付き合う ③同胞と日本人と半々くらい
④ほとんど日本人と付き合う ⑤主に日本人と付き合う ⑥わからない

202. あなたは日常的に同胞にはどのくらい会っていますか。

- ① 1日に1回以上 ② 2～3日に1回くらい ③ 1週間に1回くらい
④ 1ヶ月に1回くらい ⑤ 2～3ヶ月に1回くらい ⑥ わからない

300. あなたは韓国の文化に対して誇りに思いますか。

- ①とても思う ②少し思う ③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④全くそう思わない ⑤わからない

301. あなたは韓国の文化を次の世代に伝承することは重要だと思いますか。

- ①とても思う ②少し思う ③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④全くそう思わない ⑤わからない

302. あなたは日本の文化に適応しやすいほうだと思いますか。

- ①とても思う ②少し思う ③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④全くそう思わない ⑤わからない

400. あなたは同胞は韓国語を話せるべきだと思いますか。

- ①とても思う ②少し思う ③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④全くそう思わない ⑤わからない

401. あなたは韓国語が流暢な同胞は民族意識が強いと思いますか。

- ①とても思う ②少し思う ③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④全くそう思わない ⑤わからない

402. あなたは自分の子供や孫に韓国語を教えたいと思いますか。

- ①とても思う ②少し思う ③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④全くそう思わない ⑤わからない

SQ1.(上の402の質問に「①とても思う」または「②少し思う」と回答した方のみ答えて下さい。)

では、教えたい理由は何ですか。(いくつでも選んで下さい)

- ①就職や進学に有利なため
- ②家業を継が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
- ③韓国の最新情報を得るため
- ④韓国人として当然のことだから
- ⑤韓国と韓国の文化に関心を持たせたいため
- ⑥その他(_____)

SQ2. では、どの程度まで韓国語を教えたいですか。

- ①簡単な単語が読めるくらい
- ②道を尋ねられるくらい
- ③映画やドラマを見ることができるくらい
- ④どんな状況でも不自由なく話せるくらい
- ⑤完璧に韓国語を話せるくらい
- ⑥その他(_____)

SQ3. (上の402の質問に「③あまりそう思わない」または「④全くそう思わない」と回答した方のみ

答えて下さい。)では、教えたくない理由は何ですか。(いくつでも選んでください)

- ①日本の学校に進学した方が良いため
- ②将来の就職のため
- ③経済的な負担のため
- ④教育の内容上の長所のため
- ⑤日本の社会で差別を受けたくないため
- ⑥その他(_____)

500. あなたは韓国式の姓と日本式の姓(通名)をどう使用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か。

- ①韓国式のみを使用した方がいい
- ②日本式のみを使用した方がいい
- ③両方とも使用した方がいい
- ④わからない

501. あなたは祖国のチームと日本のチームがサッカーなどスポーツ競技をする場合、どちらのチームを応援しますか。

- ①祖国のチームを応援する
- ②日本のチームを応援する
- ③両方のチームを応援する
- ④わからない

502. あなたは次の世代の同胞の結婚相手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

- ①同胞同士の方がいいと思う
- ②日本人の方がいいと思う
- ③どちらとも言えない
- ④わからない

600. あなたは韓国語がどのくらい話せますか。

①よく話せる ②少し話せる ③あまり話せない ④全く話せない ⑤わからない

(1)自己紹介や買い物などの基礎的な会話	①	②	③	④	⑤
(2)自分の職業や趣味など馴染みのある内容の簡単な会話	①	②	③	④	⑤
(3)社会的な事件など馴染みのない内容に対する説明や報告	①	②	③	④	⑤
(4)演説、議論、通訳など専門的な会話	①	②	③	④	⑤

601. あなたは韓国語がどのくらい聞き取れますか。

①よく聞き取れる ②少し聞き取れる ③あまり聞き取れない ④全く聞き取れない ⑤わからない

(1)あいさつの表現など定型化した簡単な文章が聞き取れる	①	②	③	④	⑤
(2)広告、天気予報などの実用的な談話が聞き取れる	①	②	③	④	⑤
(3)ニュースなどが大体聞き取れる	①	②	③	④	⑤
(4)専門的な内容の演説、議論などが聞き取れる	①	②	③	④	⑤

602. あなたは韓国語がどのくらい読めますか。

①よく読める ②少し読める ③あまり読めない ④全く読めない ⑤わからない

(1)簡単な広告や看板などの案内文が読める	①	②	③	④	⑤
(2)手紙、説明書などが読める	①	②	③	④	⑤
(3)雑誌、新聞などの平易な内容の記事が読める	①	②	③	④	⑤
(4)専門分野の書籍や文学作品が読める	①	②	③	④	⑤

603. あなたは韓国語がどのくらい書けますか。

①よく書ける ②少し書ける ③あまり書けない ④全く書けない ⑤わからない

(1)簡単な事物の名前や位置などが書ける	①	②	③	④	⑤
(2)簡単な手紙、日記、案内文などが書ける	①	②	③	④	⑤
(3)特定分野のテーマで文章が書ける	①	②	③	④	⑤
(4)専門分野の報告書が書ける	①	②	③	④	⑤

700. あなたは日本語がどのくらい話せますか。

①よく話せる ②少し話せる ③あまり話せない ④全く話せない ⑤わからない

(1)自己紹介や買い物などの基礎的な会話	①	②	③	④	⑤
(2)自分の職業や趣味など馴染みのある内容の簡単な会話	①	②	③	④	⑤
(3)社会的な事件など馴染みのない内容に対する説明や報告	①	②	③	④	⑤
(4)演説、議論、通訳など専門的な会話	①	②	③	④	⑤

701. あなたは日本語がどのくらい聞き取れますか。

- ①よく聞き取れる ②少し聞き取れる ③あまり聞き取れない ④全く聞き取れない ⑤わからない

(1)あいさつの表現など定型化した簡単な文章が聞き取れる	①	②	③	④	⑤
(2)広告、天気予報などの実用的な談話が聞き取れる	①	②	③	④	⑤
(3)ニュースなどが大体聞き取れる	①	②	③	④	⑤
(4)専門的な内容の演説、議論などが聞き取れる	①	②	③	④	⑤

702. あなたは日本語がどのくらい読めますか。

- ①よく読める ②少し読める ③あまり読めない ④全く読めない ⑤わからない

(1)簡単な広告や看板などの案内文が読める	①	②	③	④	⑤
(2)手紙、説明書などが読める	①	②	③	④	⑤
(3)雑誌、新聞などの平易な内容の記事が読める	①	②	③	④	⑤
(4)専門分野の書籍や文学作品が読める	①	②	③	④	⑤

703. あなたは日本語がどのくらい書けますか。

- ①よく書ける ②少し書ける ③あまり書けない ④全く書けない ⑤わからない

(1)簡単 事物 名前や位置 どが書ける	①	②	③	④	⑤
(2)簡単 手紙 日記 案内文 どが書ける	①	②	③	④	⑤
(3)特定分野 ー 文章が書ける	①	②	③	④	⑤
(4)専門分野 報告書が書ける	①	②	③	④	⑤

800. あなたは次の家族と話す時、主に何語を使いますか。 (あなた→家族)

使用言語を下の例の中から選んで下さい。

<例> ①ほとんど韓国語で話す ②韓国語が日本語より多い ③半々だ ④日本語が韓国語より多い ⑤ほとんど日本語で話す ⑥わからない
--

聞き手				使用言語						
関係	有	無	国籍	選択肢						
(1)祖父	①	②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	①	②	③	④	⑤	⑥	
(2)祖母	①	②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	①	②	③	④	⑤	⑥	
(3)父	①	②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	①	②	③	④	⑤	⑥	
(4)母	①	②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	①	②	③	④	⑤	⑥	
(5)配偶者	①	②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	①	②	③	④	⑤	⑥	
(6)兄弟	①	②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	①	②	③	④	⑤	⑥	
(7)姉妹	①	②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	①	②	③	④	⑤	⑥	
(8)子	①	②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	①	②	③	④	⑤	⑥	
(9)孫	①	②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	①	②	③	④	⑤	⑥	
(10)婿	①	②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	①	②	③	④	⑤	⑥	
(11)嫁	①	②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	①	②	③	④	⑤	⑥	
(12)その他	①	②	韓国、北朝鮮、日本、その他	①	②	③	④	⑤	⑥	

SQL. では、次の家族はあなたと話す時、主に何語を使いますか。(家族→あなた)

上の質問800の例の中から選んで下さい。

話 手	使用言語						話 手	使用言語					
関係	選択肢						関係	選択肢					
(1)祖父	①	②	③	④	⑤	⑥	(7)姉妹	①	②	③	④	⑤	⑥
(2)祖母	①	②	③	④	⑤	⑥	(8)子	①	②	③	④	⑤	⑥
(3)父	①	②	③	④	⑤	⑥	(9)孫	①	②	③	④	⑤	⑥
(4)母	①	②	③	④	⑤	⑥	(10)婿	①	②	③	④	⑤	⑥
(5)配偶者	①	②	③	④	⑤	⑥	(11)嫁	①	②	③	④	⑤	⑥
(6)兄弟	①	②	③	④	⑤	⑥	(12)そ 他	①	②	③	④	⑤	⑥

801. あなたは**韓国語が話せる同胞**と次のような状況では、主に何語を使いますか。

使用言語を下の例から選んで下さい。

- | | |
|--|--|
| <例> ①ほとんど韓国語で話す
③半々だ
⑤ほとんど日本語で話す | ②韓国語が日本語より多い
④日本語が韓国語より多い
⑥わからない |
|--|--|

(1)同胞が集まる公的 場 話 するとき	① ② ③ ④ ⑤ ⑥
(2)同胞と個人的 食事やお酒 席 話 するとき	① ② ③ ④ ⑤ ⑥
(3)同胞が経営するお店 買物 するとき	① ② ③ ④ ⑤ ⑥
(4)路上 同胞と立 話 するとき	① ② ③ ④ ⑤ ⑥
(5)地下鉄や 中 同胞と話 するとき	① ② ③ ④ ⑤ ⑥
(6)同胞と口喧嘩 するとき	① ② ③ ④ ⑤ ⑥

SQ1. では、次のような場合はどうですか。上の質問801の例の中から選んでください。

(1)暗算や数を数えるとき	① ② ③ ④ ⑤ ⑥
(2)何かを祈ったり願ったりするとき	① ② ③ ④ ⑤ ⑥
(3)夢を見るとき	① ② ③ ④ ⑤ ⑥

900. (日本で生まれた方と小学校に入る前に日本に移住した方のみ、答えて下さい。)

あなたは韓国語を学習した経験がありますか。

- ①ある ②ない

SQ1 (上の質問900で「①ある」と答えた方のみ答えて下さい。)

では、どこで韓国語を学習しましたか。

- ①民族学校などの正規の学校 ②ハングル学校や土曜学校などの非正規の学校
③語学学校または家庭教師をととして ④独学 ⑤その他(_____)

SQ2 韓国語の学習期間はどのくらいですか。

- ①3ヶ月未満 ②3～6ヶ月 ③1年ぐらい
④2～3年ぐらい ⑤5年以上 ⑥その他(_____)

SQ3 韓国語の学習を始めた動機は何ですか。(いくつでも選んで下さい)

- ①就職や進学に有利なため
②現在の仕事や専攻に必要なため
③韓国の最新情報が得られるため
④韓国人として当然のことだから

- ⑤韓国の文化に興味があるため
- ⑥外国語習得の一つとして
- ⑦将来、韓国に住むことを計画しているため
- ⑧祖父母、父母、家族、親戚、世代間の意思疎通のため
- ⑨その他(_____)

SQ4 韓国語を学習するときに大変だった点は何ですか。(いくつでも選んで下さい)

- ①通学の苦勞
- ②劣悪な教育施設
- ③授業料の負担
- ④教育内容の不十分さ
- ⑤教師の指導能力の不足
- ⑥韓国で話されている韓国語との違いや異質感
- ⑦周囲の否定的な評価
- ⑧その他(_____)

SQ5 韓国語を勉強した後で、変わった点は何ですか。(いくつでも選んで下さい)

- ①韓国と韓国文化に興味が沸いてきた
- ②韓国に行ってみたくなった
- ③自分が韓国人だということに誇りを持てるようになった
- ④就職や進学に有利だった
- ⑤家族や親戚たちと韓国語で話せるようになった
- ⑥将来、韓国で就職または生活したくなった
- ⑦あまりない
- ⑧その他(_____)

901. (上の質問900で「②ない」と回答した方のみ答えて下さい。)

あなたはこれから韓国語を勉強したいですか。

- ①はい
- ②いいえ
- ③わからない

SQ1 (上の質問901で「①はい」と回答した方のみ答えて下さい。)

では、韓国語を勉強したい理由を答えて下さい。(いくつでも選んで下さい)

- ①就職や進学に有利なため
- ②現在の仕事や専攻に必要なため
- ③韓国の最新情報が得られるため
- ④韓国人として当然のことだから
- ⑤韓国の文化に興味があるため

- ⑥外国語習得の一つとして
 ⑦将来、韓国に住むことを計画しているため
 ⑧祖父母、父母、家族、親戚、世代間の意思疎通のため
 ⑨その他(_____)

SQ2 あなたはどの程度まで韓国語を勉強したいですか。

- ①簡単な単語が読めるぐらい ②道を尋ねられるぐらい
 ③映画やドラマを見ることができるぐらい ④どんな状況でも不自由なく話せるぐらい
 ⑤完璧に話せるぐらい ⑥その他(_____)

902. 今後、韓国語教育を行う際、次のような項目がどのくらい重要だと思いますか。次の例の中から選んで下さい。

<例> ①とても重要だ ②少し重要だ ③ あまり重要ではない
 ④まったく重要ではない ⑤わからない

(1)政治	① ② ③ ④ ⑤	(5)歴史	① ② ③ ④ ⑤
(2)経済	① ② ③ ④ ⑤	(6)社会生活	① ② ③ ④ ⑤
(3)社会	① ② ③ ④ ⑤	(7)日常生活	① ② ③ ④ ⑤
(4)文化	① ② ③ ④ ⑤	(8)その他(____)	① ② ③ ④ ⑤

<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002. 調査終了 (_____時_____分)
 003. 使用言語 (韓国語、日本語、半々)
 004. 深層調査対象者 (可、否) 連絡先 (_____
 005. 調査員 (_____
 006. 調査場所 (_____)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

2011. 8.

연구 책임자 임 영 철

면접 조사 지침서

<목 차>

- | | |
|--------------------------|-----------------------------|
| ■ 면접 조사 방법 및 유의사항 | ■ 조사표 500. 자기 정체성 |
| ■ 조사표 000. 조사 정보 | ■ 조사표 600. 한국어의 언어 4기능 |
| ■ 조사표 100. 기본 속성 | ■ 조사표 700. 일본어의 언어 4기능 |
| ■ 조사표 200. 사회생활 환경 | ■ 조사표 800. 상대와 장면에 따른 언어 선택 |
| ■ 조사표 300. 한국 문화와 이문화 적응 | ■ 조사표 900. 한국어 교육 |
| ■ 조사표 400. 언어 지향 의식 | |

■ 면접 조사 방법 및 유의사항

개인 프라이버시의 유지

조사는 응답자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면접 조사표 1쪽에 기재되어 있는 「부탁의 말씀」 중에서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 유출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응답자에게 알려준다.

면접 조사 준비물

- 면접 조사를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면접 조사표 (한국어와 일본어로 되어 있는 조사표 각각 1부씩)
- 조사 지침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면접 조사 지침서 1부)
- 선택지 카드 (항목에 따라서 선택지 카드를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
- 필기구 1식 (볼펜 등 조사를 위한 필기구류)
- 증답품 1식 (응답자에게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전달한다)

면접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조사 대상자의 선정

오사카 및 도쿄, 그리고 그 부근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뉴커머는 일본에 온 후, 거주 10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 일본에서 거주를 계획하는 사람으로 한다.

- 조사 대상자수

오사카 및 그 부근 지역 40명

도쿄 및 그 부근 40명

- 조사 대상자의 세대별 남녀별 비율

될 수 있으면 세대별, 남녀별 균형을 맞춘다.

- 면접 조사자 중에서 심층 면접 조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심층 면접 조사에 협력을 부탁한다. 심층 면접 조사는 장면에 따른 언어 사용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으로서, 녹음에 소요되는 시간은 30~40분 정도이다.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증답품을 증정한다.

- 응답자와 실시한 녹음 등 담화자료를 공표할 때는 자료의 공표에 대해서 응답자의 허락을 받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한다는 내용을 알려준다.

■ 조사표 000. 조사 정보

(‘조사 정보’는 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000. 조사 지역

- 조사 지역인 大阪, 東京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001. 조사 시작

-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시작 시각을 기입한다.

002. 조사 종료

- 조사를 끝나치고 난 다음에 조사 종료 시각을 기입한다.
- 조사 종료 기입란은 조사표의 마지막 쪽에 있다.

003. 사용 언어

- 조사를 할 때 응답자에게 사용한 언어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사용 언어 기입란은 조사표의 마지막 쪽에 있다.

004. 심층 면접 대상자

- 조사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심층 면접을 부탁한다. 심층 면접이 가능하다면 연락처를 기입한다.
- 심층 면접 대상자 기입란은 조사표의 마지막 쪽에 있다.

005. 조사원

- 면접 조사를 실시한 사람의 이름을 ()안에 기입한다.

006. 조사 장소

- 면접 조사를 실시한 장소를 ()안에 기입한다.
예를 들면 교수 연구실, 개인 사무실, 자택 응접실 등

■ 조사표 100. 기본 속성

(‘기본 속성’은 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 출생 연도

- 응답자의 출생 연도를 묻고 서기로 기입한다.

101. 성별

- 응답자의 남녀 성별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102. 출생지

- 응답자의 출생지는 한국, 북한, 일본 그리고 기타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기타의 경우는 응답자에게 국가(지역)를 물어 기입한다.
- 여기에서의 ‘북한’은 통상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통칭되고 있는 ‘북조선’을 의미한다.

SQ1. 이주 당시의 나이

- 응답자의 이주 당시의 나이를 만으로 기입한다.
- 질문 102에서 「①한국」 「②북한」 「④기타」 라고 응답한 사람만이라는 지시문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SQ2. 현재의 국적

- 응답자의 현재의 국적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SQ3. 이주 이유

- 응답자의 이주 이유는 보기에서 하나만을 골라 표시한다.

103. 이주 세대

- 이주 세대 분류 중 일본에서는 1.5세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조사 지역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조사표의 선택지를 연구 목적에 맞추어 구성했다.
- 이주세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①의 1세대는 본인이 한국·북한에서 출생한 사람을 의미한다.
 - ②의 1.5세대는 부모를 따라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을 의미한다.
 - ③의 2세대는 부모가 한국이나 북한에서 출생한 사람을 의미한다.
 - ④의 3세대는 조부모가 한국이나 북한에서 출생한 사람을 의미한다.
 - ⑤의 4세대는 증조부모가 한국이나 북한에서 출생한 사람을 의미한다.
 - ⑥기타(_____)

104. 직업

- 직업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① 농림·어업·임업
 - ② 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숙련 공장 노동자 등)
 - ③ 단순 노무(미숙련 공장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육체노동자)
 - ④ 판매·서비스(가게 운영, 보험설계사, 관광가이드, 음식점 종업원, 간병인 등)
 - ⑤ 사무(일반 행정 등 사무직 종사자)
 - ⑥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학원 강사, 통·번역사 등)
 - ⑦ 전업주부
 - ⑧ 학생
 - ⑨ 무직 및 기타(_____)

105. 최종 학력 및 졸업한 지역

- 응답자의 최종 학력 졸업 지역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조사표 200. 사회생활 환경

(‘사회생활 환경’은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 조국과의 왕래 빈도

- 조국과의 왕래 빈도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급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1년에 1회 이상 ② 2년~3년에 1회 정도 ③ 4년~5년에 1회 정도
 - ④ 5년~10년에 1회 ⑤ 10년 이상에 1회 정도 ⑥ 모르겠다

201. 일상적인 교제 대상

- 일상적으로 교제하는 대상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여기에서의 급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주로 동포와 교류한다는 ‘네 명 중 네 명 정도가 동포’임을 의미한다.
 - ② 대부분 동포와 교류한다는 ‘네 명 중 세 명 정도가 동포’임을 의미한다.
 - ③ 동포와 일본인 반반 정도이라는 ‘네 명 중 두 명 정도가 동포’임을 의미한다.
 - ④ 대부분 일본인과 교류한다는 ‘네 명 중 한 명 정도가 동포’임을 의미한다.
 - ⑤ 주로 일본인과 교류한다는 ‘네 명 중 네 명 정도가 일본인’임을 의미한다.
 - ⑥ 모르겠다

202. 동포와의 교제 빈도

- 동포와의 교제 빈도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여기에서의 급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하루 1회 이상 ② 2~3일에 1회 정도 ③ 일주일에 1회 정도
 - ④ 1달에 1회 정도 ⑤ 2~3달에 1회 정도 ⑥ 모르겠다

■ 조사표 300. 한국 문화와 이문화 적응

(‘한국 문화와 이문화 적응’은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00.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

- 모국의 문화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가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여기에서의 ‘한국 문화’란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등을 포함하며, 북한 문화도 포함한다.

301. 차세대에 대한 한국 문화 전승도

- 모국의 문화인 한국 문화를 차세대에 전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여기에서의 '한국 문화'란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등을 포함하며, 북한 문화도 포함한다.

302. 일본 문화에 대한 적응도

- 이문화인 일본 문화에 대한 적응도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조사표 400. 언어 지향 의식

(‘언어 지향 의식’은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00. 동포들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 태도

- 동포들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401.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동포에 대한 언어 지향 의식

-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동포에 대한 지향 의식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402.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향

-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의향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SQL. 모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

-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질문 402에서 「①매우 그렇다」 또는 「②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만이라는 지시문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SQ2. 한국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르치고 싶은가.

-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한국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르치고 싶은가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질문 402의 SQL.의 「①매우 그렇다」 또는 「②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SQ3. 모어를 가르치고 싶지 않은 이유

-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모어를 가르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질문 402에서 「③별로 그렇지 않다」 또는 「④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만이라는 지시문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조사표 500.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은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00. 한국인 성과 일본식 성(통명)의 사용 의식

- 한국식 성과 일본식 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여기에서 ‘일본식 성(통명)’이란, 다나카(田中)와 같은 성씨만을 의미한다.

501. 스포츠 경기 응원팀

-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 팀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①의 ‘조국 팀을 응원한다’에는 북한 팀도 포함한다.

502. 제일 한국인의 차세대 결혼관

- 질문은 기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하여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조사표 600. 한국어의 언어 4기능

(‘한국어의 언어 4기능’은 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600. 한국어 말하기 능력

-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4개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그 수준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카테고리 설정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평가 기준에 의한다.
- 카테고리 (1)은 초급(1급), (2)는 초급(2급), (3)은 중급(3급), 중급(4급), (4)는 고급(5급), 고급(6급)에 준하여 설정하였다.
- 이하, 한국어와 일본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 4기능도 이의 기준과 동일하다.
- 선택지는 카드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면서 조사를 실시한다.

601. 한국어 듣기 능력

- 한국어 듣기 능력은 4개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그 수준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카테고리 (1)의 초급(1급)은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안녕하세요 고 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이다. 이하, (2)는 초급(2급), (3)은 중급(3급), 중급(4급), (4)는 고급(5급) 고급(6급)에 준하여 설정하였다.
- 선택지는 카드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면서 조사를 실시한다.

602. 한국어 읽기 능력

- 한국어 읽기 능력은 4개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그 수준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선택지는 카드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면서 조사를 실시한다.

603. 한국어 쓰기 능력

- 한국어 쓰기 능력은 4개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그 수준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카테고리 (1)은 사물의 이름이나 위치 등 간단한 단어를 의미한다.
카테고리 (2)는 편지나 일기문 등 10문장 정도이다.
카테고리 (3)은 특정분야에 대해서 A4용지 1-2장 정도이다.
- 선택지는 카드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면서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표 700. 일본어의 언어 4기능

(‘일본어의 언어 4기능’은 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700. 일본어 말하기 능력

- 일본어 말하기 능력은 4개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그 수준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선택지는 카드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면서 조사를 실시한다.

701. 일본어 듣기 능력

- 일본어 듣기 능력은 4개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그 수준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선택지는 카드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면서 조사를 실시한다.

702. 일본어 읽기 능력

- 일본어 읽기 능력은 4개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그 수준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선택지는 카드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면서 조사를 실시한다.

703. 일본어 쓰기 능력

- 일본어 쓰기 능력은 4개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그 수준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카테고리 (1)은 사물의 이름이나 위치 등 간단한 단어를 의미한다.
카테고리 (2)는 편지나 일기문 등 10문장 정도이다.
- 카테고리 (3)은 특정분야에 대해서 A4용지 1-2장 정도이다.
- 선택지는 카드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면서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표 800. 상대와 장면에 따른 언어 선택

(‘상대와 장면에 따른 언어 선택’은 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800. 상대에 따른 언어 선택

- 카테고리 (1)부터 (12)까지는 귀하가 가족에게 말을 거는 상황이라는 지시문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선택지는 카드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면서, 사용 언어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1)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유무

- 먼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유무를 묻고,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가족이 있을 경우만 응답하는 항목이므로, 해당하는 가족이 없다면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간다.
- 가족 이외에 기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재하고, 국적 항목으로 나아간다.

2)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국적

-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국적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3) 가족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

- 가족의 유무와 국적을 표기한 후, 응답자가 가족에게 통상적으로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SQL. 상대에 따른 언어 선택

- 카테고리 (1)부터 (12)까지는 가족이 귀하에게 말을 거는 상황이라는 지시문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조사는 800번 항목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801. 장면에 따른 언어 선택

- 카테고리 (1)부터 (6)까지는 한국어가 가능한 동포라는 지시문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선택지는 카드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면서, 사용 언어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SQL. 언어변용

- 언어심리학적 관점에서 이주에 의한 모어의 유지와 변용과정을 살피는 항목이다.
- 선택지는 카드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면서, 사용 언어를 801번의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조사표 900.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은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900. 언어 형성기를 일본에서 보낸 사람의 한국어 학습 경험

- 먼저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과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이라는 지시문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여기에서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과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이란 일본에서 언어 형성기를 보낸 사람을 의미한다.
- 언어 형성기를 일본에서 보낸 사람의 한국어 학습 경험 여부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SQL. 일본에서 한국어를 교육받은 기관

-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국어를 배운 교육 기관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SQ2. 일본에서의 한국어 학습 기간

- 여러 곳의 교육 기관에서 학습했을 경우 그 학습 기간을 모두 합하여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SQ3.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

-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를 복수응답으로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SQ4.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어려웠던 점

-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어려웠던 점을 복수응답으로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SQ5. 한국어를 학습한 후에 달라진 점

- 한국어를 학습한 후에 달라진 점을 복수응답으로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901.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가

- 위의 질문 900번 항목에서 ‘②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만 조사한다는 지시문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가 어떤가를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SQ1.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

- 위의 질문 901번 항목에서 ‘①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만 조사한다는 지시문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SQ2. 한국어 학습 희망 수준

- 응답자의 한국어 학습 희망 수준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902. 이후의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항목

- 이후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한다.
- 선택지는 카드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한다.

심층 면접 조사표

조사자 이름()

조사 정보 기입

- 조사 시작 시간
- 조사 종료 시간
- 사용 언어
- 조사 장소

기본 속성 파악

- 연령
- 성별
- 출생지
- 현주소
- 국적
- 이주 시기
- 이주 세대
- 직업
- 학력

조사 항목

1. 한국어는 언제 어디서 배웠습니까?
2. 일본어는 언제 어디서 배웠습니까?
3. 가족과 함께 지냅니까?

①네 ②아니오(4번 항목으로 이동)

SQL. '①네'라고 답한 사람에게

그러면 가정 내에서는 가족들에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4.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족이나 동포, 그리고 한국인 등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5번 항목으로 이동)

SQL. '①있다'고 답한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하관계. 친소관계. 사업상 등)

SQ2. 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5. 제일 한국인은 어떤 화제에서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6. 어떤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7. 앞으로 제일 한국인의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8. 이 지역의 제일 한국인이 사용하는 말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는 어떤 점이 가장 다릅니까?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9. 최근의 한류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0. 제일 한국인의 일본 및 한국에서의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일본에서 제일 한국인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한국에서 제일 한국인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

2011년 9월

연구 책임자 임영철

심층 면접 조사 지침서

■ 심층 면접 조사 목적

2010년 현재, 일본에는 약 57만 명에 달하는 재일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재일 한국인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거주하게 된 올드커머¹⁾와 주로 1980년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하게 된 뉴커머의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올드커머는 대부분이 고령에 달해, 그들의 한국어 운용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과제라 하겠다.

이에 본 심층 면접 조사에서는 이러한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 운용 실태에 대한 담화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본에서의 한국어의 사회적 역할

이주 초기의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 한국어의 사회적 역할은 어떠했으며, 현재의 한국어의 역할과 앞으로의 역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1) 오고시(2007)에 의하면, 재일 한국인은 내일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일본의 강점기(1910-1945) 전후에 내일한 사람과 그 후손들로서 이른바 올드커머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재일 한국인의 대부분은 이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협의의 재일 한국인은 이 그룹을 가리킨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장래에도 일본에 거주할 의향을 갖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로 1980년대 이후 사업, 결혼, 유학 등을 위해서 내일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 뉴커머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이 그룹은 일본에 영주할 것인가 아니면 본국으로 귀국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다시 두 그룹으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세 그룹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올드커머(1910-1945년 전후 내일) 거주 지향 ———> 거주지향
뉴커머(1980년 이후 내일) 일본에 거주 예정 ↗
 장차 본국으로 귀국——> 일시체재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뉴커머는 1980년대 이후 내일하여 거주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로서 주로 취업, 결혼, 사업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2. 한국어의 유지와 변용

올드커머는 일본에 이주하여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현재 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운용 실태는 어떠하며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특히 모어화자가 사용하는 한국어와 재일 한국인 한국어(모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한국어와는 음성면, 문법면, 어휘면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상이점이 있는가.

또한 올드커머와 뉴커머와의 세대 간 또는 개인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혹시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심층 면접 조사 방법

개인정보에 대한 배려 약속

심층 면접 조사에서 실시한 녹음 등 담화자료를 공표할 때는 자료의 공표에 대해서 응답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는 연구 목적이 외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응답자에게 약속하고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다.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는 다음과 같다.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과제명 : 국외 동포 실태 조사 기초 연구

본 연구는 국외 동포 실태 조사 기초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위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귀하의 자료를 귀하의 동의하에 정리, 분석,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연구의 연구자 및 보고업무를 위임 받은 기관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자료는 익명 처리한 상태로 사용되며 위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공유 및 활용되며,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귀하는 위 정보공유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으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위 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경우 아래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본 연구과정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아래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 책임자: 임영철(중앙대학교)

(2) 전화번호: 00-000-0000

- 조사 대상자 이름 : _____
- 조사 대상자 서명 : _____
- 서명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 및 조사 대상자수

심층 면접 조사는 원칙적으로 면접 조사 응답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최선이나, 면접 조사 응답자가 아니더라도 면접 조사 응답자의 지인 등, 심층 면접 조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으면 심층 면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올드커머는 될 수 있으면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뉴커머는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심층 면접 조사 대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올드커머 10명

뉴커머 10명

현지 조사원(key person) 활용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서 제일 한국인의 ‘격식적인 담화’와 ‘일상적인 담화’를 수록한다. 먼저 ‘격식적인 담화’는 한국에서 온 연구자(조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며, ‘일상적인 담화’는 제일 한국인끼리의 대화를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담화’는 자료 수집이 쉽지 않으므로, 제일 한국인을 현지 조사원(key person)으로 의뢰하여, 제일 한국인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아울러 현지 조사원(key person)은 사회언어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녹음 시 유의사항

녹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녹음할 때는 녹음기 2대를 이용한다. 이는 녹음기 상태가 불량하여 녹음이 잘 안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만약을 위해서이다. 녹음 시간은 30분

을 기본으로 하고 최장 1시간 이내로 하며, 될 수 있으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녹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심층 면접 조사 준비물

- 조사 지침서 1부
- 녹음기 2대
- 필기구 1식
- 예비 건전지 2개
- 답례품

■ 조사 항목

조사 정보 기입

조사 실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그리고 조사 장소와 사용 언어를 묻는다.

- 조사 시작 시간.
- 조사 종료 시간.
- 사용 언어
- 조사 장소

조사 대상자의 기본 속성

조사 대상자의 기본 속성은 될 수 있는 한 조심스럽게 질문한다. 특히 가족의 이주 시기와 직업, 학력 등 조사 대상자가 꺼리지 않는다면 자세하게 파악한다. 그리고 한국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서 통용되는 통명을 사용하는지 이 단계에서 질문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연령 • 성별 • 출생지 • 현주소 • 국적
- 이주 시기 • 이주 세대 • 직업 • 학력

(1) 한국어 학습 경험

Q1. 한국어는 언제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어를 언제 어디에서 학습했는지를 묻는다. 또한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한다.

(2) 거주국 언어 습득

Q2. 거주국 언어는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배웠습니까?

거주국 언어를 언제 어디에서 학습했는지를 묻는다. 또한 거주국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도 파악한다.

(3) 가족과의 동거 여부

Q3. 가족과 함께 지냅니까?

①네 ②아니오(4번 항목으로 이동)

SQ1. (‘①네’라고 답한 사람에게)

그러면 가정 내에서는 가족들에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면접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을 묻고 구성원 각각과의 사용 언어를 상세하게 묻는다. 부모 세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모 세대의 이주 시기와 출신지를 파악하여 둔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연령과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사회인이라면 졸업한 학교를 파악하고 한국어 학습의 유무를 묻는다. 만약 자녀가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거나 잘 못 한다면, 장차 한국어 교육을 받게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다.(예를 들어 한글학교에서의 학습, 민족학교로의 진학, 한국으로의 어학연수 등). 한국어 교육을 받게 할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다.

(4) 한국어 사용 경험

Q4.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족이나 동포, 그리고 한국인 등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5번 항목으로 이동)

SQ1. (‘①있다’고 답한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하관계. 친소관계. 사업상 등)

SQ2. 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한국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외 동포 중에서 어떤 상대와 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가를 파악한다.

(5) 화제에 따른 한국어 사용

Q5. 어떤 화제에서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동포끼리의 대화에서 어떤 화제 때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를 묻는다. 제일 한국인 시범 조사에서는 친족 호칭, 제사 지낼 때, 싸움을 할 때 한국어 사용이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응답이 안 나올 때는 유도 질문할 수도 있다.

(6)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대

Q6. 어떤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어떤 상대에게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를 묻는다. 예를 들면 상하관계, 친소관계, 가족 등이다.

(7) 장래의 바람직한스러운 한국어 교육

Q7.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한국 정부의 지원과 연계, 강사의 자질, 체계성과 전문성의 필요, 학습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한국 문화와 사회, 정치 등과 연관시켜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대답하기 쉽지만, 한국어 경험이 전혀 없다면 질문자가 능숙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8) 한국어의 차이점

Q 8. 이 지역의 제일 한국인이 사용하는 말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는 어떤 점이 가장 다른지?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주위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민단계 제일 동포나 조선학교 출신의 제일 동포가 있을 경우, 그들의 언어와 실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와의 이질감을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조선학교 출신뿐만 아니라 민단계 제일 동포라도 제일 동포 특유의 말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에 민감한 사람은 차이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의 말투가 한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와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 본인은 한국어 사용에 있어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말투에는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억양, 어휘, 표현 등 조사 대상자가 평상시에 느끼던 점을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2세나 3세의 경우 부모와 조부모 어느 지역(남한 또는 북한) 출신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면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추가로 묻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조선어를 존중해야 된다, 남북한의 절충식이 좋다 등 유도 질문 여하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9) 한류에 대한 의견

Q9. 최근의 한류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 세계 각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연관 지어 물을 수 있을 것 같다. 동포라고 해서 모두가 한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며, 한류 그리고 한국에 대한 생각, 이미지, 문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피조사자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미지와 현재 살고 있는 일본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하여 문화에 대한 적응도나 호감도 파악도 가능할 것이다.

(10) 사회적인 처우

Q10. 제일 한국인의 일본 및 한국에서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일본에서 제일 한국인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한국에서 제일 한국인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에 대해서 질문한다.

이 상

◆ 연구 책임자: 임영철(학술박사)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교수

◆ 주요 저서

在日・在米韓国人及び韓国人の言語生活の実態，くろしお出版，1993，単著

箸とチョッカラク -ことばと文化の日韓比較-，大修館書店，2004，共著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和泉書院，2005，共著

韓国人による日本社会言語学研究，おうふう，2006，編著

対人行動の日韓対照研究，ひつじ書房，2008，共著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태학사，2008，単著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

발행인	권 재 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27
인쇄일	2011년 11월 28일
발행일	2011년 11월 28일
인 쇄	(주)계문사(tel.02-725-5216)
